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모델 구축방안

정병순 김태욱

A Study on the Support for Promoting the Youth Activities in Seoul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모델 구축방안**

연구책임

정병순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김태욱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이봉조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대상자 맞춤형 지원 ‘활동계획서’ 도입하고 진로준비활동 돕는 ‘청년컨설턴트’도 운영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층 사회참여 역량 키우기에 목적

최근 서울시는 날로 악화되는 청년들의 현실에 적극 대응하여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2020 서울청년보장플랜’을 모색하고 있다. 이 ‘플랜’은 설자리/일자리/놀자리/살자리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설자리’에 해당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들, 특히 ‘취업 및 교육이나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니트(NEET)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자유로운 활동 경험을 통해 사회참여 역량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으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 가운데 3천 명을 선정해,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바, 무엇보다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지원대상활동의 범위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년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를 도출하는 것도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미취업 청년층 대상 조사로 청년활동지원사업 각종 정책수요 파악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실행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수요 조사도 실시하였다. 현재 정부의 청년정책 중 취업성공패키지Ⅱ는 사업의 유사성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으로,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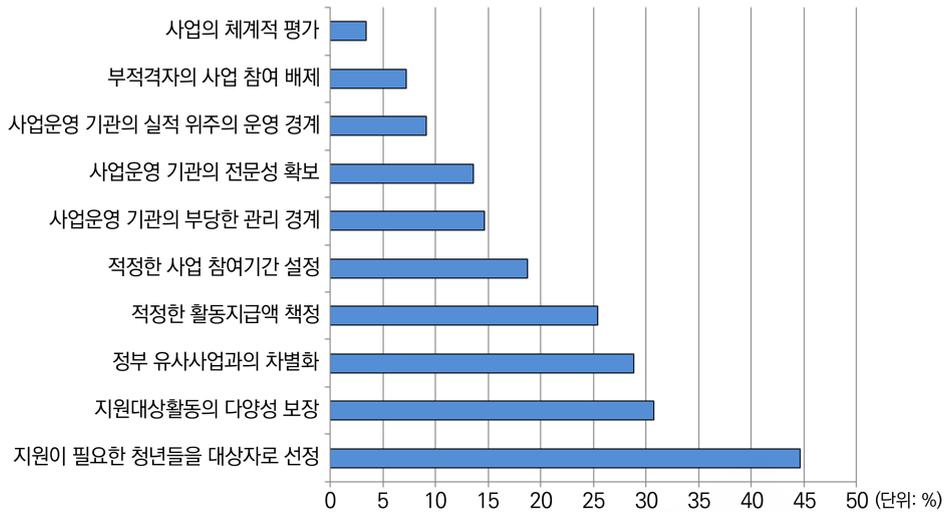
실제, 취업성공패키지Ⅱ의 경우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참여는 2,324명('14년 현재, 전체 청년

참여자의 2.7%)에 불과하였다. 사업의 성과 또한 매우 저조해, '14년을 기준으로 지원종료자 중 임금 150만 원 이상 일자리 취업자는 24.4%(취업성공패키지Ⅱ)에 불과하며,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또한 유사하게 3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직업훈련 일변도의 지원체계, 실적 위주의 사업운영과 부실한 취업알선 등 운영과정에서도 다양한 불합리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이를 적극 개선·보완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청년층 대상 조사에서도 다양한 조사결과는 이 사업의 실행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청년들은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다양한 정책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의 목적에 대해 '취업 및 창업 준비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 제도설계 시 핵심적 고려요소로는 '적정 대상자 선정'과 '지원활동의 다양성 보장'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경우에 지원대상자 선정방식과 기준에 대해서는 '지원신청자 일부를 선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강한 가운데, '저소득 미취업자'와 '장기 실업자'를 우선적 지원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사업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적정 대상자 선정'을 손꼽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조사결과이다.



[그림 1]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합리적 목적(복수응답)



[그림 2]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제도설계 시 고려사항(복수응답)

[표 1]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단위: %)

구분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	취(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	적정 금액과 지원기간 설정	지원활동의 철저한 관리
비율	29.0	24.5	18.8	11.8	11.1	4.8

이 연구에서는 상술한 사전 검토에 기초해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① 사업의 합목적성을 극대화하고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를 모색한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기존 사업에 대해 지원대상/지원대상활동의 범위/사업의 관리운영체계 등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 방안을 강구한다.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맞춤형·현장연계형 관리운영체계를 모색한다. ③ 선별주의 원리에 기초한 이 사업의 실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체계를 확립한다. ④ 상호의무부과를 기본원칙으로 한 투명한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한다. ⑤ 마지막으로 사업의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한 사업의 지속적 개선·강화를 모색한다.

‘NEET 청년’의 현실·사회적 요구 등 반영한 사회모델 정립할 필요

현재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는 사업의 목적을 ‘사회 밖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 제고와 사회적 관계 형성 촉진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밖 청년’, ‘사회 참여’ 등의 목적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다의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목표하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활동’이 구체화될 수 있는 적절한 사업모델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사업 모델은 현재 청년, 특히 니트(NEET) 청년(실업자, 임시일용직 종사자 일부까지 포함한 광의의 니트 청년)이 당면한 현실, 그리고 이들이 가지는 사회적 요구 등을 적극 반영해 도출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지원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청년활동지원사업의 2가지 제도적 모델

구분	청년사회참여촉진수당(A모델)	청년진로준비지원수당/ 청년취(창)업활동촉진수당(B모델)
지원 목적	· 청년들의 사회참여 촉진 ·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생계비 지원	· 취업취약계층(청년) 구직활동 촉진 · 취업준비를 위한 활동비 지원
목표 집단	· 저소득 미취업자를 기본 대상으로 함 · 사회참여 욕구 및 의지가 강한 자 ·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청년 우선 선정	·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극히 취약한 청년 · 취업지원이 매우 시급한 자 우선 선정
지원 대상 활동	· 청년 사회참여역량 강화에 필요한 활동 - 지역 커뮤니티 활동, 봉사활동 - 시민사회 활동, 사회적경제 활동 · 이외의 사회참여와 연관된 활동 - 직업훈련, 창작활동	·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 - 직접활동: 어학학습, 자격증 취득, 직무 관련 학원 등록, 교재구입, 시험등록, 스터디 그룹 운영, 공모전 준비 - 간접활동: 공익봉사 활동 등
대상자 식별기준	· 사회참여활동계획 평가	· 대상자가 처한 객관적 조건
지원 범위	· 사회참여 활동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생계비 지원 · 유흥비를 제외한 용도에 자유롭게 사용가능	· 취업준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간접비용: 식비, 교통비 - 직접비용: 교재비, 시험등록비, 어학학습비 등 · 공익 봉사활동에 수반된 각종 비용

이 연구에서 확인된 니트 청년의 현실적 여건과 요구를 고려 시, 이 사업의 목적은 광범위한 사회활동 가운데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촉진·지원하는 데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청년들은 이 사업에 있어 일반적인 사회참여 활동보다는 ‘취업 및 창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이나 ‘부족한 생활비 충당’을 강하게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이 연구에서는 2가지 제도적 모델을 검토하였다([표 2] 참조). 각각은 ‘청년사회참여촉진수당 모델’(A모델)과 ‘청년진로준비활동지원수당 모델’(B모델)로, 모델별로 사업의 취지(목적), 목표집단 및 지원대상활동, 이에 따른 지원대상자 식별 등이 상이하다. 두 모델의 비교평가 결과, “청년진로준비활동지원수당 모델”이 현재의 여건상 보다 현실적합성을 지닌 모델로 판단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진로준비활동에의 지원이 시급한 자를 우선 선정해, 취(창)업활동에 요구되는 다양한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사회·정성적 조건 고려한 대상자 선정기준-절차 마련도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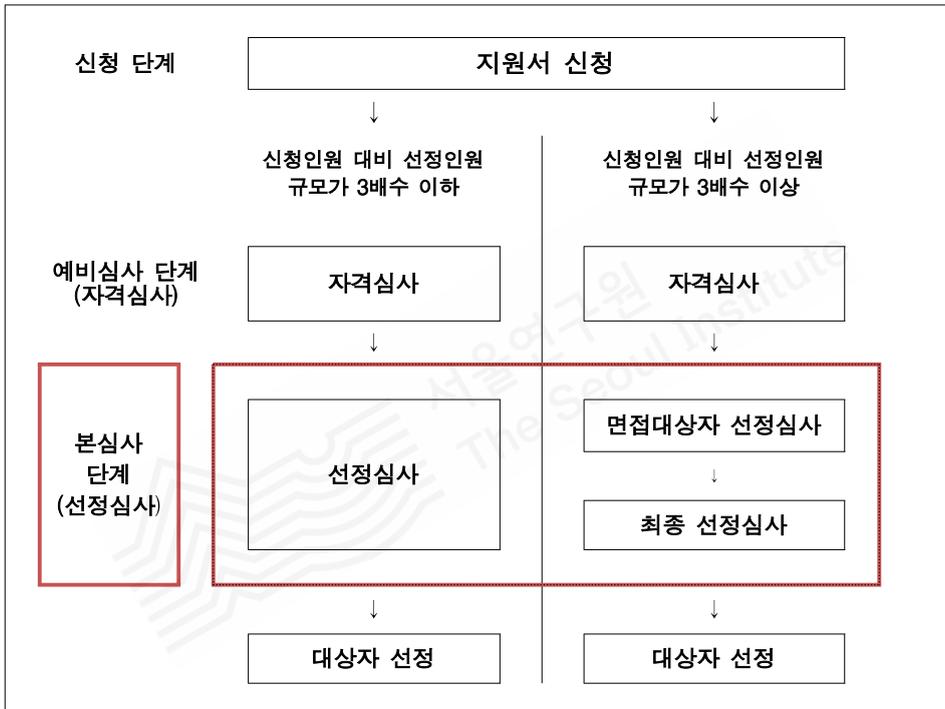
사업의 모델에 부합하는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 현재 서울시의 니트 청년은 약 63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은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한국복지패널(2014)에 기초한 추정치).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이러한 잠재적 대상자 중 3천 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공정한 절차나 기준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지 않은 논란과 잡음이 초래될 수 있다.

우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이 연구에서 실시한 정책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다만, 사업이 소기의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주체(지원대상자)의 열의와 의지 등도 중요하므로 이러한 정성적 기준들이 함께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은 취업취약계층을 선별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으로서 ‘경제적 조건’(가구 소득수준, 부양가족 수 등)과 ‘사회적 조건’(미취업기간, 학력 등)을 우선적 기준으로 활용하는 한편, 사회활동 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 등의 정성적 기준으로 구성한다. 특히, 정성적 기준도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문항표(체크리스트)에 입각한 평가를 고려한다.

[표 3]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구성

구분	세부지표
경제적 조건	가구 소득인정액, 개인 부채액,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사회적 조건	학력, 미취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취약계층 여부
정성적 조건	사회활동 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지원의 시급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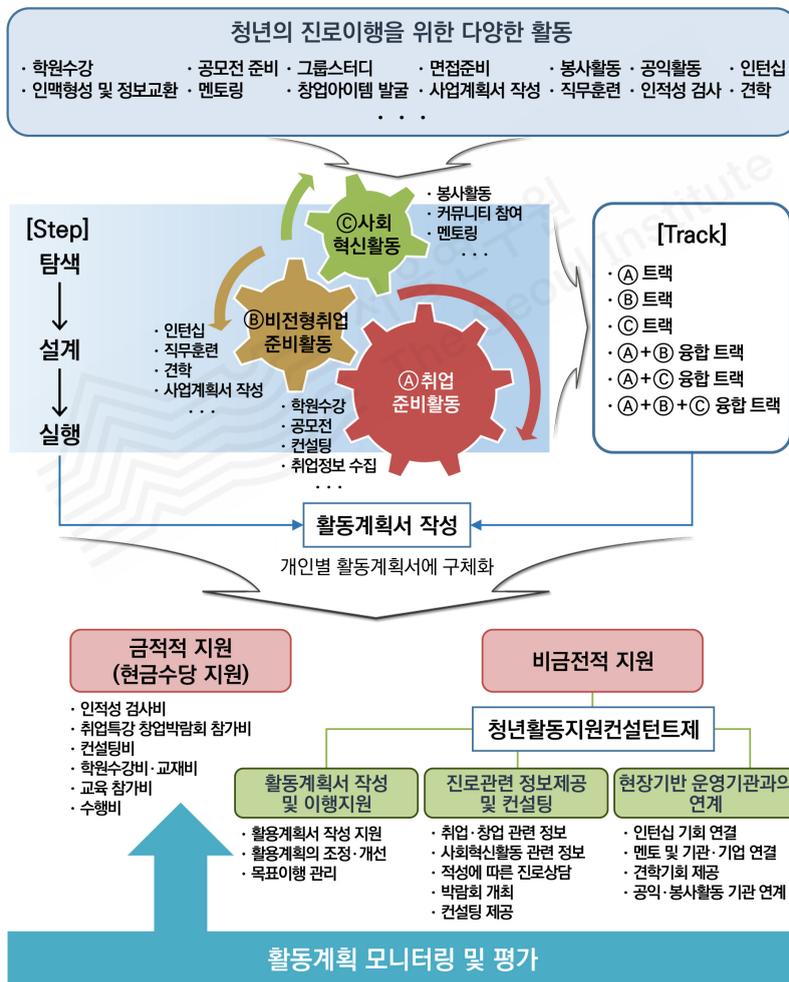
이러한 선정기준을 고려하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령, 신청자가 대규모인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선정절차는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선정체계의 효율성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일차로 정량적 기준에 기초해 2배수 또는 3배수의 대상자를 예비적으로 선발하고, 다시 정성적 기준에 의거한 대면면접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절차가 강구될 수 있다. [그림 3]은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상자 선정체계라 할 수 있다.



[그림 3] 신청인원 규모에 따른 대상자 선정절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활동에 현금수당 등 금전·비금전적 지원 제공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실행을 위해 구체화되어야 할 다른 요소는 ‘지원대상활동의 범위’로, 도출된 활동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아울러, 이 지원대상 활동은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기존 정책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진로준비활동 실태와 정책수요 조사에 기초한 수요지향적인 방식으로 지원대상활동 범위를 도출한다.



[그림 4]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 및 지원 내역

사업의 지원대상활동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일반취업준비활동/비전형취업준비활동/사회혁신 활동으로 구분되는 ‘활동 모듈’과 진로탐색 활동/진로설계 활동/진로실행 활동으로 구분되는 ‘활동단계’를 식별하였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활동 모듈과 활동단계를 토대로 진로준비 활동계획(서)을 수립하도록 하며, 그 계획에 대해서는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그림 5 참조). 특히 금전적 지원은 진로준비에 수반되는 직접적 활동은 물론, 간접적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지원체계로 설계한다(표 4 참조).

[표 4] 청년활동 지원 내용

구분		① 일반취업준비활동	② 비전형취업준비활동	③ 사회혁신활동	
지 원 체 계	금 전 적 지 원 (현 금 수 당)	탐색 비용	- 인적성 검사비 - 취업특강설명회 참가비	- 인적성 검사비 - 창업박람회 등 참가비	- 인적성 검사비 - 견학 등에 따른 비용 - (무급) 인턴십비
		설계 비용	- 전문 컨설팅비	- 전문교육 및 컨설팅비	- 전문 컨설팅비
		실행 비용	- 학원수강비 - 시험등록비, 교재비 - 공모전 준비비 - 그룹스터디 장소대여 - 모의면접비	- 학원수강비 - 공모전 준비비 - 창업관련 컨설팅비 - 교재비 - 창업준비비	- 사회활동 교육 참가비 - 사회혁신활동 수행비 - 협동조합 출자(조합비) - 사회적기업 창업 기반 조성(장소, 장비)비
	부대 비용	식비, 교통비 등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비 금 전 적 지 원	활동 계획서 관련 지원	- 활동계획서 작성 지원 - 활동계획의 조정개선 - 목표이행에 대한 지원	- 활동계획서 작성 지원 - 활동계획의 조정개선 - 목표이행에 대한 지원	- 활동계획서 작성 지원 - 활동계획의 조정개선 - 목표이행에 대한 지원	
	진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 취업관련 정보제공 - 적성에 따른 진로상담 - 취업설명회·박람회 개최 - 취업관련 컨설팅	- 창업관련 정보제공 - 적성에 따른 진로상담 - 창업관련 컨설팅 제공 - 창업자프라랜서 초청 간 담회 개최	- 사회혁신활동 관련 정보제공 - 적성에 따른 진로상담	
	현장 기반 운영 기관과 연계	- 인턴십 기회 연계 - 공익·봉사기관 연계 - 멘토 및 기업 연결	- 멘토와 관련 기관 연결 - 견학기회 제공 - 인턴십 기회 연계 - 유사 창업자(기업) 연결	- 인턴십 기회 연계 - 멘토 및 기관 연결 - 재능기부 기회 제공 - 사회활동가 및 사회단체 연결 - 사회적기업 참여 제공	

현장연계형 지원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 바람직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용자의 현실과 괴리된 사업 내용의 형식적 운용은 사업의 성과나 운영활성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만큼 사업의 면밀한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요소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가 사업의 실효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지원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계획서’의 도입·운영이다. 지원사업이 효과적이라면 당사자의 여건과 계획,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모색되어야 하는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활동계획서의 운용이다. 지원대상자는 각자 진로목표와 준비활동을 이 활동계획서에 구체화하고, 공공은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대상자에 따라서는 계획서 작성이나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을 상담·지원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활동계획서는 최소한 희망하는 활동 목표와 그것을 준비·실행하는 활동계획, 요구사항 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한다(표 5 참조). 활동목표는 가급적 세부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활동계획은 이행경로와 이행단계에 기초한 희망진로계획과 이를 이행하는 세부 활동계획으로 구성함으로써 각종 활동과 현금 지출이 체계적(계획적)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이 활동계획서에 기초한 실행체계는 지원대상자가 자기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사업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사업의 ‘목표에 의한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청년들의 진로준비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이하 청년컨설턴트)의 도입·운영을 강구한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이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한정되고 않고,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둘러싼 비금전적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청년컨설턴트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사업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인식된다.

청년컨설턴트는 지원대상자의 활동계획서 작성은 물론,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 역할로 설정하되, 이를 위해 대상자 선정과정(면접심사 등)에서부터 지원대상자의 모니터링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시스템을 고려해, 청년컨설턴트는 ‘취업지원컨설턴트’와 ‘현장연계컨설턴트’로 이원화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 경우에, 취업지원컨설턴트는 진로상담이나 취업준비 지원에 전문성을 지닌 주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연계컨설턴트는 사업의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기관들에 소속된 현장기반 활동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5] 활동계획서 구성 및 주요내용

구분	세부항목	주요내용	비고
개인별 정보	개인 기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에 대한 식별정보	
	주요 이력사항	취업준비활동(지원한 회사명 등) 이력(학업 및 전공, 직업, 사회적 활동경험 등)	
활동 목표	희망진로	구체적인 최종목표(목표 분야와 기관, 직업명 등)	예) 건축회사 건축 설계사 취업 등
	세부목표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목표(자격증 취득, 스펙 쌓기, 인턴십, 유사분야 경험 등)	
희망 진로 계획*	이행경로 (Track) 선택	취업준비형, 비전형취업형, 사회혁신활동형 중 1개 이상 선택	2개 이상 선택하는 융합형 가능
	이행단계 (Step) 선택	진로탐색, 진로설계, 진로실행, 결합형 중 택일 후, 컨설턴트로부터 제공된 단계별 활동 목록에서 원하는 활동 선택	희망이행계획 참조
세부 활동 계획	활동내용	본인이 선택한 이행경로 Track과 이행단계 Step에 따라 실제로 활동할 목록 기재 · 활동이행 세부계획은 정성적 방법으로 자유롭게 기재 (필요시 컨설턴트의 도움 가능)	
	현금수당 사용계획	활동내용을 수행하는 데 지출할 직접비용, 부대비용 내역을 기재 · 직접비용: 학원비, 장소대여비, 컨설팅비 등 · 부대비용: 식비, 교통비 등	활동계획서 예시 참고
	기간별 활동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기간별로 활동계획 기재	
요구 사항	활동관련 요구사항	활동을 이행하는 데 추가적으로 원하는 지원에 대해 기재	선택사항 활동계획서 예시 참고
	애로사항	활동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애로사항	

* 희망진로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뒤 페이지 부속표를 참조

셋째, 현재 다변화되고 있는 직업세계와 복잡해지고 있는 진로환경을 고려 시, 현장과 연계된 지원체계 구축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현장연계형 지원체계’는 지원대상자 맞춤형 지원과도 부합하며, 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장에 기반한 다양한 주체(기관)들과 사업의 운영에 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협력네트워크에 전통적인 ‘일반취업지원형’ 기관은 물론, ‘비전형취업지원형’ 기관, ‘사회혁신활동지원형’ 기관 등 다양한 성격의 주체(기관)들이 포함되어야 자금의 다양화되고 있는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이러한 현장연계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일반기업 대상의 정형화된 취업 및 창업 준비에 필요한 직업체험이나 경력형성은 물론 사회활동가를 진로목표로 하는 대상자에게 디딤돌로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단순 급여성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상호의무부과’ 원칙에 입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원칙은 활동계획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통해 지원대상자의 활동이 계획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모니터링 및 평가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활동보고서에 기초해 매월 1회 정도로 실시하도록 하며, 활동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보다는 활동의 이행에 관한 단순 확인이나 요구에 대한 의견청취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하에 사업의 평가는 ‘활동계획 이행평가’와 ‘예산지출 적정성 평가’로 이원화하여 추진한다([표 8] 참조). 활동계획 이행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상에 대해 지원기간을 일부 연장하여 ‘활동장려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예산지출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이나 불법·부실한 지출에 대해 환수나 지원중단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표 6]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구성

구분	내용	활용
활동계획 이행평가	당초 계획 대비 이행 정도, 상담결과 반영 여부, 기타 지원서비스 이용도 등을 평가	저평가자(70점 미만)를 대상으로 개선에 관한 권고나 컨설팅
지출 적정성 평가	계획 대비 지출 정도, 사용처 적정성 등 최소한의 평가	저평가자(30점 미만)나 부정적지출에 대한 환수 및 지원중단

목차

01 연구의 개요	2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02 청년에 관한 기초현황 및 주요 정책사례	6
1_청년 관련 주요 현황	6
2_청년정책 관련 주요 현황	11
3_국내외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례	19
03 청년활동 실태 및 청년정책 수요	36
1_청년활동 실태파악을 위한 정책대상 FGI 조사	36
2_청년활동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결과	39
3_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78
04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제도화 방안	82
1_예비적 논의: 사업의 주요 쟁점 검토	82
2_지원대상자 선정체계	92
3_지원대상활동과 청년활동지원체계 구축	104
05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관리·운영방안	112
1_관리운영체계 총괄	112
2_활동계획서 작성과 이행 지원 및 관리	114

3_청년활동지원컨설팅트제 도입·운영	123
4_사업 관리·운영을 위한 추가적 방안	126
참고문헌	135
부록	136
1_청년활동 실태 및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수요 조사 온라인 설문지	136
2_청년활동 실태 및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수요 조사 오프라인 설문지	144
Abstract	161



표

[표 2-1] 2013년 OECD 주요 국가의 청년 니트(15~29세) 비율	9
[표 2-2] 전국 및 서울시 청년(20~29세) 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9
[표 2-3] 서울시 연령계층별 실업률 현황	10
[표 2-4] 전국 청년층 체감실업률 현황(2015년 1~9월)	10
[표 2-5] 20대 청년층 일자리 특성	11
[표 2-6] 청년층 대상 주요 취업지원 사업 현황	12
[표 2-7] 청년층 대상 주요 창업지원 사업 현황	12
[표 2-8]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유형별 지원대상	13
[표 2-9]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체계	14
[표 2-10]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서의 청년(18~34세)의 2단계 사업참여 현황	15
[표 2-11]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청년(18~34세) 참여 현황	16
[표 2-12]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실적	16
[표 2-13] 내일배움카드 청년층(20~29세) 직업훈련 분야 현황(2014년 기준)	18
[표 2-14] 가랑띠 쥔 사업규모 현황	21
[표 2-15] 요코하마시 니트 지원정책에서의 니트 유형별 지원대상	28
[표 2-16] 요코하마시 니트 지원정책에서의 니트 유형별 정책운영형태	29
[표 2-17]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유형(2015년 기준)	31
[표 2-18] 세부사업 유형별 지원대상자 1인 예산지원 기준	32
[표 2-19]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34
[표 3-1]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대상 FGI 실시 개요	37

[표 3-2]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수요 조사 실시 개요	40
[표 3-3] 청년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	40
[표 3-4] 청년의 취업문제에 대한 심각성	41
[표 3-5] 청년 특화형 정책 추진의 필요성	41
[표 3-6] 청년정책 수행 시 우선 지원대상(복수응답)	42
[표 3-7] 정부의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43
[표 3-8] 정부의 청년일자리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	44
[표 3-9] 정부의 청년취업지원정책 평가	44
[표 3-10] 취업성공패키지의 효과성 평가	45
[표 3-11] 취업성공패키지 개선사항(복수응답)	46
[표 3-12]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47
[표 3-13]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47
[표 3-14]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48
[표 3-15]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지향해야 할 우선적 목적(복수응답)	49
[표 3-16]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설계 시 고려사항(복수응답)	49
[표 3-17]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50
[표 3-18]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복수응답)	50
[표 3-19]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우선 지원대상(복수응답)	51
[표 3-2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서 활동지원금 사용가능 범위	52
[표 3-21]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서 지원금 지급기간	52
[표 3-22]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요소	53
[표 3-23] 학교졸업 후 취업경험과 종사상 지위	57
[표 3-24] 취업경험자 중 취업 중단 이유	57
[표 3-25] 취업활동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	58
[표 3-26] 구직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요인(복수응답)	58

[표 3-27]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유형	59
[표 3-28] 학원수강 내용과 경험 여부	60
[표 3-29] 창업을 진로로 선택하게 된 동기(복수응답)	60
[표 3-30]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요소(복수응답)	61
[표 3-31] 프리랜서를 진로로 선택하게 된 동기(복수응답)	62
[표 3-32] 프리랜서로 성공하기 위한 요건(복수응답)	62
[표 3-33] 사회활동가를 진로로 선택하게 된 동기(복수응답)	63
[표 3-34] 사회활동가로서 성공하기 위한 주요 요건(복수응답)	63
[표 3-35] 현재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64
[표 3-36] 현재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에의 참여경험	64
[표 3-37] 현재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에의 참여 동기	65
[표 3-38] 정부 취업지원사업에의 참여 정도(복수응답)	66
[표 3-39] 취업지원정책 유경험자 중 취업지원사업의 만족도	66
[표 3-40] 정부 취업지원정책의 불만족 사유	67
[표 3-41]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참여경험 여부(복수응답)	68
[표 3-42]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68
[표 3-43] 정부 청년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불만족 사유(복수응답)	69
[표 3-44]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기대효과	72
[표 3-45]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합리적 목적(복수응답)	72
[표 3-46]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제도설계 시 고려사항(복수응답)	73
[표 3-47]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방식	73
[표 3-48]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우선적 지원대상	75
[표 3-49] 경제적 기준을 고려한 지원대상자 세부 선정기준	75
[표 3-50]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	76
[표 3-51]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금 적정규모	76

[표 3-52]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77
[표 3-53]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시행될 때 청년활동의 적절한 관리방안	78
[표 4-1]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원대상 기준에 따른 잠재적 지원대상자(신청가능자) 수	87
[표 4-2] 청년활동지원사업의 2가지 제도적 모델	90
[표 4-3] 사업의 기본모델별 장·단점	91
[표 4-4] 지원대상자 선정지표 구성(안)	98
[표 4-5] 선정지표별 사실관계 확인방법	99
[표 4-6] 정성적 지표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예시	100
[표 4-7] 대안별 평가점수표 구성	101
[표 4-8]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점수표 예시: 총점 250점 기준	102
[표 4-9]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	106
[표 4-10] 진로준비활동을 위한 현금수당의 지출 범위: 열거형 방식(Positive List)	108
[표 4-11] 비금전적 지원의 주요내용	109
[표 4-12] 청년활동 지원 내용	110
[표 5-1] 활동계획서 구성 및 주요내용	117
[표 5-2] 부속표: 활동계획서 희망진로계획의 세부항목	118
[표 5-3] 활동계획서 기준으로 살펴본 특정 지원대상자 예시	119
[표 5-4] (참고자료) 활동계획서의 작성 예시: 메뉴선택형	120
[표 5-5] (참고자료) 활동계획서의 작성 예시: 본인서술형	121
[표 5-6] 단계별 활동계획서 이행에 따른 지원 및 관리	122
[표 5-7] 분야별 운영주체(기관) 예시	127
[표 5-8] 분야별 운영주체(기관) 지원서비스	128
[표 5-9] 지원대상자 평가체계	132

그림

[그림 2-1] 청년계층 및 청년 니트(NEET)의 구성	8
[그림 2-2]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프로세스	14
[그림 2-3] 가랑띠 쉼의 사업추진 절차	22
[그림 3-1] 청년정책 수행 시 우선 지원활동(복수응답)	42
[그림 3-2]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인지 여부	45
[그림 3-3] 청년들의 월평균 생활비 구성	53
[그림 3-4] 생활비 해결	54
[그림 3-5] 생활비 조달의 어려움	54
[그림 3-6] 계층별 부채 보유 현황	55
[그림 3-7] 부채를 보유하게 된 사유	55
[그림 3-8] 청년들의 최종 진로목표	56
[그림 3-9] 취업에 중요한 스펙	56
[그림 3-10] 취업을 위한 노력(복수응답)	59
[그림 3-11] 창업에 관한 계획	60
[그림 3-12] 프리랜서 희망 여부	61
[그림 3-13] 사회활동가 희망 여부	63
[그림 3-14]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인지 여부	69
[그림 3-15] 취업문제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효과성	70
[그림 3-16]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개선사항(복수응답)	70
[그림 3-17] 청년활동지원사업 인지 여부	71

[그림 3-18]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71
[그림 3-19]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방식	74
[그림 3-20]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74
[그림 3-21] 청년활동지원금 적정 지급기간	77
[그림 4-1]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추진방향	83
[그림 4-2] 신청인원 규모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정	95
[그림 4-3]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 범위	104
[그림 4-4]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 및 지원내용	107
[그림 5-1]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관리·운영체계	112
[그림 5-2] 청년활동지원사업 지원체계	114
[그림 5-3] 활동계획서 수립 절차	116
[그림 5-4]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의 구성과 역할	124
[그림 5-5]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연계형 지원체계	126
[그림 5-6]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131
[그림 5-7] 클린카드제 운영체계	133

01

연구의 개요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01 | 연구의 개요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최근 서울시는 날로 악화되는 청년들의 현실에 적극 대응하여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2020 서울청년보장플랜’을 도입함
 -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삶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서 활동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모색
 - ‘서울청년보장플랜’은 설자리/일자리/놀자리/살자리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구성
- ‘서울청년보장플랜’ 가운데 ‘설자리’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역량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청년들이 다양하고 자유로운 활동 경험을 통해 사회참여 역량을 제고하도록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도입함
-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짐
 -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을 선정해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함
 - 201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하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 중 3,00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임

2) 연구의 목적

-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야 함
 - 일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지원대상활동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운영체계도 중요함
- 이 연구에서는 청년이 처한 다양한 여건과 활동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을 모색함
 - 특히, 사업의 합리적 모델에 기초하여 대상자 선정체계와 적정 지원대상활동범위를 도출하는 한편,
 -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관리·운영체계를 모색하고자 함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 청년정책 주요 현황 및 실태 분석
 - 정책의 지원대상인 청년, 특히 청년 니트(NEET)의 개념 설정과 기본현황 파악
 - 청년정책에 관한 정책 및 제도적 현황 분석
 - 특히, 유사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외국의 청년정책 사례 분석
- 청년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청년층의 정책수요 조사
 - 청년에 관한 현재의 여건과 청년정책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조사
 - 청년활동의 실태 및 청년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청년의 정책수요 파악
-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제도화 방안 도출
 - 청년의 여건과 청년의 정책수요를 고려한 적정 사업모델 검토
 - 사업의 모델에 부합하는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체계 도출
 - 사업의 모델과 부합하고 정책수요를 반영한 지원대상활동 범위의 도출
-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관리·운영방안 구체화
 -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사업관리체계 도출
 - 청년에 대한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운영체계 구축방안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 이 사업의 주요 정책지원대상 청년 니트(NEET)의 특성 및 구성에 관해 관련문헌을 조사
 - 서울시 청년계층의 기초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함
- 사례 분석
 - 이 연구의 대상인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현황 및 실태 분석 실시
 - 아울러, 청년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수당제도의 해외사례를 분석함
- 설문조사 실시
 - 일반시민과 청년계층으로 이원화하여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실시
 -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년계층이 처한 여건 및 청년정책에 관한 온라인 기반 인식조사
 -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활동실태 및 청년정책에 관한 정책수요 조사 실시
- 정책주체에 대한 집단면접조사(FGI) 실시
 - 미취업 청년의 이행 경로 및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파악을 위해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인터뷰 대상으로 설정
 - 최종구직 목표에 따라 인터뷰 집단을 구분하고,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여 4차례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02

청년에 관한 기초현황 및 주요 정책사례

- 1_청년 관련 주요 현황
- 2_청년정책 관련 주요 현황
- 3_국내외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례

02 | 청년에 관한 기초현황 및 주요 정책사례

1_청년 관련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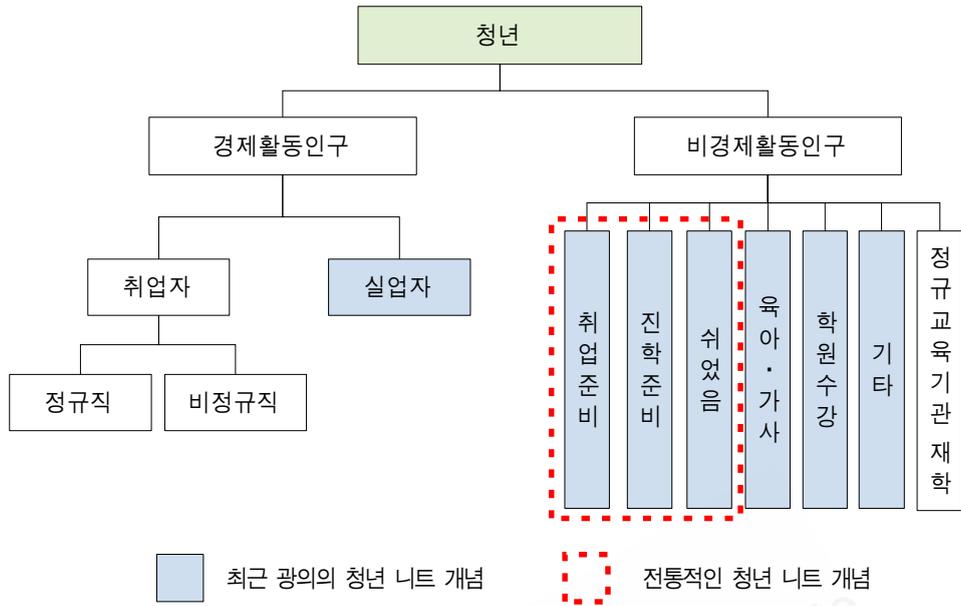
1) 청년에 관한 주요 개념

- 현재 청년계층은 관련 법률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만 15세 이상~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로 인식되고 있음
 - 우선, 통계청에서는 ‘청년’을 15~29세로 규정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시행령 제2조 1항에서도 15~29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채용하는 청년의 범위는 15~34세로 다소 확대(동법 제5조 1항)
 - 이외에 대통령 직속기구인 청년위원회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19~39세로 규정
- 외국에서 청년에 관한 연령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OECD와 EU 등은 청년의 범위를 15~24세로 다소 좁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일본의 경우에는 청년계층을 15~34세로 보다 넓게 규정함
-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개념 중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개념이 ‘청년 니트(NEET)’ (이하 청년 니트)임
- 일반적으로 청년 니트는 ‘취업 및 교육이나 훈련상태에 있지 않은(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젊은 청년계층을 지칭함
 - 1999년 후기 중등교육에 진학하지 않은 16~18세의 청소년을 지칭하여 영국 정부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 일본에서는 미혼의 34세까지 연령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을 확대 적용함
- 국내에서도 청년 니트에 관한 연구들이 조금씩 시도되고 있으며, 각기 청년 니트의 범위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이로미, 2008)
- 청년 니트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경제활동인구, 특히 ‘실업자’의 포

함여부로, 과정에 따라 청년 니트의 범위가 상이함

- 초기에는 청년 니트의 범위로 구직의지가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는 제외된,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부에만 한정됨
- 나아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
- 가령, 채창균 외(2008)는 ‘1주일간 활동’에 대한 조사에서 ‘쉬었음’을 응답한 사람에 한정된 반면, 남재량(2006, 2011)은 정규교육기관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에 다니지 않는 취업준비자와 진학준비자까지도 니트에 포함¹⁾
- 이렇게 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경우 경제활동 인구에 속한 청년 니트는 ‘구직 니트’,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한 청년 니트는 ‘비구직 니트’로 구분됨
- 상술한 논의들을 종합해보자면, 청년 니트는 다양한 인구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식으로 개념화가 가능함
 - ① 협의의 청년 니트: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의 주된 활동’이 ‘쉬었음’인 사람
 - ② 다소 광의의 청년 니트: 협의의 청년 니트+비경제활동인구 중 미혼 ‘가사’인 사람
 - ③ 광의의 청년 니트: 다소 광의의 청년 니트+비경제활동인구 중 ‘발령대기’+‘취업준비’+‘진학준비’+‘군입대 대기’+‘기타’인 사람
- 이러한 개념 구분에 대해 최근에는 청년 니트가 미취업 상태 청년 전반을 의미하는 광의의 인식체계를 고려해 이 연구에서도 광의의 청년 니트로 접근하고자 함
 - 경제활동인구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준비’, ‘진학준비’, ‘쉬었음’, ‘육아가사’, ‘학원수강’, ‘기타’까지를 청년 니트에 포함([그림 2-1]의 음영부분)

1) 만 15~34세의 청년 중 지난 1주간을 기준으로 ①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다니지 않고, ② 일하고 있지 않으며, ③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 않고, ④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정의



[그림 2-1] 청년계층 및 청년 니트(NEET)의 구성

2) 서울시 청년층 관련 주요 현황

- OECD(2013)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한국의 청년층(15~29세) 중 청년 니트의 비중은 18.5%로 조사됨
 - 이러한 청년 니트 비중은 OECD 국가 중 8번째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임
 - 대졸자 청년 니트의 비중은 24.4%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2배 높은 수준임
 - 고학력 청년들이 실업 상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취업 준비기간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 2013년 OECD 주요 국가의 청년 니트(15~29세) 비율

(단위: %)

구분	OECD 평균	한국	영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터키	그리스	스페인
15~29세	15.5	18.5	15.6	16.0	16.3	9.4	31.3	28.5	26.8
중졸	15.7	5.1	25.1	12.6	19.0	7.5	29.2	20.5	30.1
고졸	15.6	22.9	14.9	18.7	17.6	14.3	31.3	27.1	19.1
대졸	12.6	24.4	5.8	9.5	11.0	5.2	24.5	39.2	22.2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층 인구(20~29세)는 2014년 현재 143.7만 명이며, 이 중 청년 니트는 19.6만 명(13.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럼에도 비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31.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35.8%로 4.8%p 증가함
 - 청년층은 전체적으로 '04~'14년 동안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청년 니트의 경우에는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14년 현재 19만 6천 명으로, 서울시 청년층의 13.6%에 달함

[표 2-2] 전국 및 서울시 청년(20~29세) 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전국 청년층	7,070	6,741	6,584	6,369	6,219	6,315
서울시 청년층	1,728 (100.0)	1,621 (100.0)	1,574 (100.0)	1,517 (100.0)	1,447 (100.0)	1,437 (100.0)
경제활동인구	1,193 (69.0)	1,108 (68.4)	1,047 (66.5)	983 (64.8)	934 (64.5)	922 (64.2)
비경제활동인구	535 (31.0)	513 (31.6)	526 (33.4)	534 (35.2)	513 (35.5)	515 (35.8)
청년 니트	-	-	-	-	-	196 (13.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이와 같은 대규모 청년 니트의 존재와 증가세는 최근 청년층을 둘러싼 어려운 고용여건에서 비롯함
- 2015년 현재 서울의 청년층 실업률은 9.3%로, 전체 실업률인 4.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30~59세는 3.1%, 60세 이상은 3.2%를 나타내, 청년 실업률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표 2-3] 서울시 연령계층별 실업률 현황

(단위: %)

구분	2000	2004	2008	2012	2015
전체	5.1	4.7	3.9	4.2	4.2
15~29세	8.1	9.0	7.7	8.3	9.3
30~59세	3.9	3.4	3.0	3.2	3.1
60세 이상	2.8	2.0	1.7	3.7	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현재 청년이 처한 어려운 고용여건은 실질적인 실업상황에 보다 가까운 체감실업률²⁾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됨
 - 최근의 한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명목실업률의 약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실제 '15년 9월 현재 통계청의 (명목)실업률은 7.9%인 반면, 체감실업률은 21.5%에 달함

[표 2-4] 전국 청년층 체감실업률 현황(2015년 1~9월)

(단위: 만 명, %)

구분	실업자	공식실업률	체감실업률
1월	39.5	9.2	21.8
2월	48.4	11.1	22.9
3월	45.5	10.7	23.1
4월	44.5	10.2	21.3
5월	40.6	9.3	21.3
6월	44.9	10.2	23.0
7월	41.6	9.4	22.6
8월	34.5	8.0	22.6
9월	34.1	7.9	21.5

자료: 정세균 의원실(2015)

2) 체감실업률은 실업자 통계로는 잡히지 않는 임시직·일용직과 같은 불안전취업자, 구직단념자 등을 실업자에 포함시켜 계산한 고용보조지표임

- 아울러, 청년층은 취업을 한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정을 경험하고 있음
 - 종사상의 지위상 비정규직은 약 112만 명으로(2015년), 20대 청년층 전체의 32.1%를 차지함
 - 이러한 고용불안은 실업, 나아가 청년 니트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압력으로 작용함

[표 2-5] 20대 청년층 일자리 특성

(단위: 천 명,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5
정규직	2,446	2,346	3,330	2,320	2,365
비정규직	1,101	1,069	2,313	1,090	1,118
비정규직 비율	31.1	31.3	30.5	32.0	3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별 8월 자료

2_청년정책 관련 주요 현황

1) 취업 및 창업 관련 지원책

- 현재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청년층 대상 취업지원책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대표적인 청년지원프로그램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임
 - 이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내일배움카드제, 일·학습병행제 등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음

[표 2-6] 청년층 대상 주요 취업지원 사업 현황

사업명	내용	담당부처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미취업 청년에게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용노동부	저소득층, 청년층, 장년층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중소기업 인턴 고용 및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의 일부 지원	고용노동부	미취업 청년
내일배움카드제	청·장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를 위한 훈련비용 지원(최대 200만 원)	고용노동부	재직자, 구직자
청년취업아카데미	대학졸업예정자, 졸업생 등에게 산업 연관 교육 제공	고용노동부	졸업자/졸업예정자(34세 미만)
일·학습병행제	취업을 원하는 청년근로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제도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자
스펙초월 멘토 스쿨	청년들에게 멘토들이 현장 맞춤형으로 멘토링 제공	고용노동부	청년층
서울시 청년뉴딜일자리	청년들에게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연계 도모	서울시	청년층

- 이와 함께, 청년들의 창업활동지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함
 - 서울시에서는 ‘챌린지100프로젝트(서울시)’를 통해 청년 창업가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

[표 2-7] 청년층 대상 주요 창업지원 사업 현황

사업명	내용	담당부처	지원대상
청년창업 사관학교	기술창업 청년 창업가를 선발하여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	중소기업청	만 39세 이하 창업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의 전 단계를 지원하여 대학을 권역청년창업 전진기지로 육성	중소기업청	대학생 및 일반인 창업자
학교기업 지원사업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기술개발 등 창업 전초기지 역할 수행	교육부	대학생, 교고생
챌린지100 프로젝트(서울시)	청년 창업가에게 성장단계별 맞춤지원과 창업 플랫폼 구축	서울시	청년 창업가

2) 취업성공패키지 정책 현황 및 주요 현안

(1)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자 등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입됨
 - 이를 통해 기존의 자활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단편적 프로그램을 단계적·종합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개편함
- 2012년부터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미취업자(소득 무관)와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층 실업자에게도 지원을 개방함
 - 이 같은 노력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실업자에게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모델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I’과 청년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II’로 구성되어 있음
 - 패키지 I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원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되 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반면,
 - 패키지 II는 미취업 청년층(미취업자, 니트족 등)에 더해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중장년층도 지원 대상으로 함

[표 2-8]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유형별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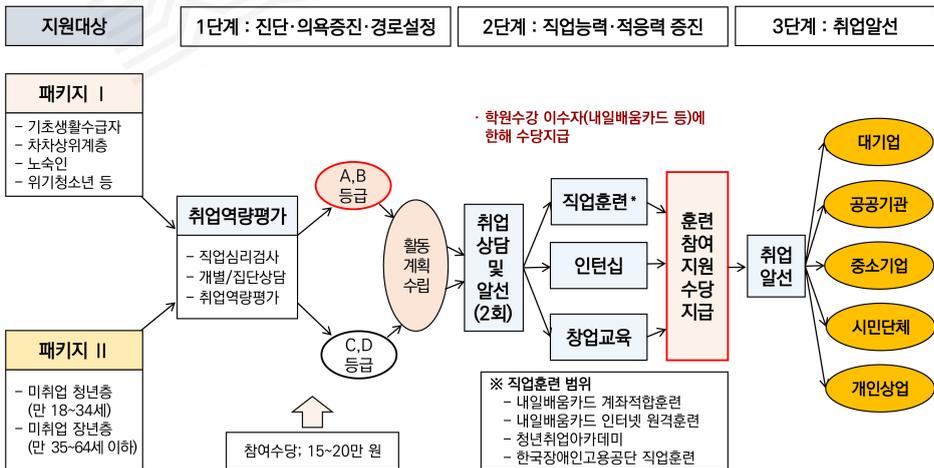
구분	패키지 I (저소득층)	패키지 II (청·장년층)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등	- 만 18~34세 미만 청년층 (미취업자, 니트족, 영세자영업자) -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만 35~64세 미만 중장년층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진단경로 설정(1단계)→직업능력·적응력 증진(2단계)→집중 취업알선(3단계)의 3단계 절차로 추진됨

- 1단계의 진단 및 경로설정 단계에서는 취업역량평가를 통해 개인의 취업역량을 진단함
 - 취업역량평가 결과 취업역량이 낮은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A~D등급으로 판정
 - A, B등급으로 판정된 지원대상자는 2단계에서 직업훈련을 거치도록 함
- 2단계의 직업능력 증진단계에서는 훈련을 위한 학원수강을 조건으로 하여 훈련참여 지원수당(28.4만 원~40만 원)이 지급됨
 - 직업훈련은 훈련자가 훈련과정을 직접 선택하는 ‘내일배움카드제’와 연계하여 운영됨
- 3단계에서는 2단계의 직업훈련을 거친 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 경우에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는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제공됨

[표 2-9]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체계

구분	[1단계] 진단경로설정 단계	[2단계] 직업능력적응력 증진 단계	[3단계] 집중 취업알선
지원 내용	- 취업역량평가를 위한 사전진단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IAP) 수립	-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제 등) - 창업교육 지원 - 청년인턴 사업 연계	- 취업알선 - 동행면접
지원금	- 취업참여수당(15~2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28.4~40만 원)	- 취업성공수당(100만 원)



[그림 2-2]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프로세스

<내일배움카드제 개요>

-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면 구직자가 스스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참여하는 제도
- 지원범위: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300만 원,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200만 원 지원(최대 2회)
- 사업방식: ① 고용센터는 참여자에게 카드를 발급, ② 참여자는 훈련기관에서 카드를 사용(일부 자부담), ③ 훈련기관은 금융기관에 비용을 청구
- 훈련내용: KECO 65대 분야, 36,332개 훈련과정(2014년)

(2)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운영실태

- '14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사업 2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은 63,424명(패키지 I 참여자 28,644명+패키지 II 참여자 34,780명)으로, 패키지 II 기준 전체 청년 참여자 수 대비 51.0% 수준임
- 2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층 대부분이 내일배움카드제(91.3%)에 참여함

[표 2-10]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서의 청년(18~34세)의 2단계 사업참여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청년(18~34세) 참여자 수(A)	2단계 총 참여자 수(B) (B/A)	내일배움 카드제(C) (C/B)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D) (D/B)	청년 인턴(E) (E/B)
2013년	취업성공 패키지 I	39,339	26,432 (67.1)	26,009 (98.4)	408 (1.5)	15 (0.1)
	취업성공 패키지 II	74,356	50,170 (67.5)	49,173 (98.0)	974 (1.9)	23 (0.1)
2014년	취업성공 패키지 I	46,307	28,644 (61.9)	27,302 (95.3)	1,286 (4.4)	22 (0.3)
	취업성공 패키지 II	68,188	34,780 (51.0)	31,749 (91.3)	2,975 (8.5)	56 (0.2)

출처: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를 재구성

- '14년을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18~34세)은 약 114,495명(패키지 I 참여자 46,307명+패키지 II 참여자 68,188명)으로 전체 참여자 수의 59.1%에 달하지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참여는 저조함
 - 취업성공패키지 I 과 II의 서울거주 청년 참여자 수는 전체 청년 참여자 수의 1.1%, 2.7%에 불과
- 전체 청년 참여자 수 대비 서울시 거주 청년 참여자 비율이 낮은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내일배움카드 계좌발급에 쿼터제를 두면서 서울시의 할당량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임

[표 2-11]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청년(18~34세) 참여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전체 참여자 수(A)	청년(18~34세) 참여자 수(B) (B/A)	서울시 거주 청년(18~34세) 참여자 수(C) (B/A)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I	102,721	39,339 (38.3)	979 (2.4)
	취업성공패키지II	106,055	74,356 (70.1)	2,487 (3.3)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I	106,986	46,307 (43.3)	1,222 (2.6)
	취업성공패키지II	86,759	68,188 (78.6)	2,324 (3.4)

출처: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를 재구성

[표 2-12]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실적

(단위: 명, %)

연도	구분	종료자 수	취업자 수	월 임금 15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 비율	
				종료자 기준	취업자 기준	종료자 기준	취업자 기준
2013	취업성공패키지I	39,256	21,930	12.8	23.0	27.8	49.8
	취업성공패키지II	74,291	45,641	19.2	31.2	28.8	46.9
2014	취업성공패키지I	44,290	27,182	18.7	30.5	26.2	42.8
	취업성공패키지II	65,156	42,231	24.4	37.6	27.2	42.0

출처: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취업률이나 고용유지율과 같은 지표를 고려해 볼 때, 사업의 성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표 2-12] 참조)
 - '14년을 기준으로 지원 종료자 수(취업 또는 지원기간 종료로 인한 지원 종료자 수) 대비 월 임금 150만 원 이상 일자리에 고용된 취업자는 패키지 I의 경우 18.7%, 패키지 II는 24.4%에 불과
 - 이와 유사하게 지원 종료자 수 대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 비율 또한 패키지 I과 II 모두 30%를 하회

(3)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고용환경에서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에 일부 기여가 있었던 점이 인정됨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무역량 관련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 필요한 현금도 지급함
 - 아울러,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취업으로까지 연결시키는 취업알선서비스도 종합적으로 제공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이 요구됨
 - ① 지나치게 광범위한 청년층 지원 범위 설정에 따른 정책의 비효율성 존재
 - 현재 취업성공패키지는 18~34세의 청년 중 재학생, 기존 정책 수혜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년층을 포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대상인 장기 미취업자, 저소득 미취업자 등의 취업취약 계층이 상대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② 청년층의 취업준비에 수반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직업훈련 일변도의 획일화된 지원체계도 주된 문제임
 - 2단계 지원프로그램은 내일배움카드제에 기초한 학원수강(직업훈련)에 국한된 활동만 지원하도록 제도가 설계됨
 - 이에 따라, 현재 청년들이 모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취업 및 창업 준비

- 활동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도 다양한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직업훈련의 경우 경영·회계·사무(29.9%), 문화·예술·디자인·방송(16.8%), 미용·숙박·스포츠(10.3%) 분야에 주로 집중하고 있는 반면, 취업 스펙의 핵심적 요소인 외국어 어학 등의 교육수강은 제외됨
 - 이외, 사회적경제 분야나 비영리 분야로의 진출, 프리랜서, 1인 창조기업 등과 같은 보다 새로운 형태의 취·창업 활동에도 적극 대응하기 어려움

[표 2-13] 내일배움카드 청년층(20~29세) 직업훈련 분야 현황(2014년 기준)

구분	인원(명)	비중(%)
전체	242,520	100.0
청년층(20~29세)	79,147	32.6
경영, 회계, 사무 관련 교육	23,662	29.9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 교육	13,314	16.8
미용, 숙박 및 스포츠 관련 교육	8,157	10.3
음식서비스 관련 교육	6,373	8.1
보건 및 의료 관련 교육	5,567	7.0
정보통신 관련 교육	4,991	6.3
기타	17,083	21.6

- ③ 실적 위주의 사업운영과 이에 따른 부실한 취업알선으로 인해 취업의 질 저하
 - 현재 고용센터의 취업알선은 저임금의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워크넷을 중심으로 진행됨
 - 이로 인해 알선하는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이 크며, 나아가 취업한 경우에도 고용의 지속성이 제한적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의 개선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훈련기관 선택범위의 다양화: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훈련기관을 고려하여 훈련기관 범위를 확장함

- 교육훈련 범위의 다양화: 직능훈련 이외의 청년층 참여자들이 희망하는 외국어 등의 강좌로 교육훈련 범위를 확장함
- 교육훈련 시설의 질적 개선: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노후화된 장비들을 최신 장비로 교체함
- 아울러 제도 운영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모델'의 도입·운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³⁾
 - 취업성공패키지가 각 지역의 노동시장 여건, 청년의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화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함
 - 중앙정부는 사업 전반을 총괄 기획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원 및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

3_국내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례

1) 프랑스 가랑띠 쥘(Garantie Jeunes)

(1) 사업개요

- 프랑스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악화되면서 취약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실제 2013년 청년실업률은 2008년에 비해 5% 상승한 23.9%에 이르며,
 - 특히 저학력 청년들은 중간 및 고학력의 청년들에 비해 매우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음
- 프랑스 정부는 니트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랑띠 쥘 사업을 추진

³⁾ '지역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가랑띠 쥘(Garantie Jeunes) 사업"을 참조할 것

- 이 사업은 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
- 이 사업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최대 12개월까지 매달 452유로의 활동지원금을 제공함
 - 지원대상자는 노동부 산하 지역 취업지원 기관 미션 로케일(Mission Locale)과 노동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1년 이상의 활동을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지원기간 내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지원대상자는 재심사를 통해 12개월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활동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지원금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므로 용처에 제한은 없음

<활동지원금 차등지급 방식>

- 2013년 1차년도에 지급된 433.75유로를 기준으로 차등지급 방식 설명
 - 근로소득이 300유로 이하인 청년에게 433.75유로의 활동지원금 지급
 - 근로소득이 300유로와 1,444.18유로(월간 최저임금의 80%) 사이인 경우:
(근로소득-1,444.18) × [433.75/(300-1,444.18)]만큼의 활동지원금 지급
 - 근로소득이 400유로이면 가량띠 쥘 지원금은 382.37유로, 근로소득이 700유로이면 228.23유로, 근로소득이 1,000유로이면 78.08유로의 활동지원금 지급
 - 근로소득이 월간 최저임금의 80% 이상이면 활동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교육과정에만 참여

- 근로소득이나 실업수당, 직업교육 수당, 인턴 수당 등 다른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을 경우 전체 금액을 합산한 상태에서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음
- 2013년 8월 10개의 도(Department)에서 8,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의 규모를 더욱 확대함
 - 2015년 6월까지 총 2만 명에 달하는 청년이 이 사업의 수혜자로 새로 등록함

- 2014년 7월 프랑스 마누엘 발스 총리는 2017년까지 10만 명까지 사업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발표함
- 2015년 현재 미션 로케일(Mission Locale)의 60%에 해당하는 273곳(72개 도)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2015년 3차년도 사업이 시작되면서 26개 지자체가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총 5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지원을 받음
 -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2015년에 16억 4천만 유로, 2016년에는 20억 유로를 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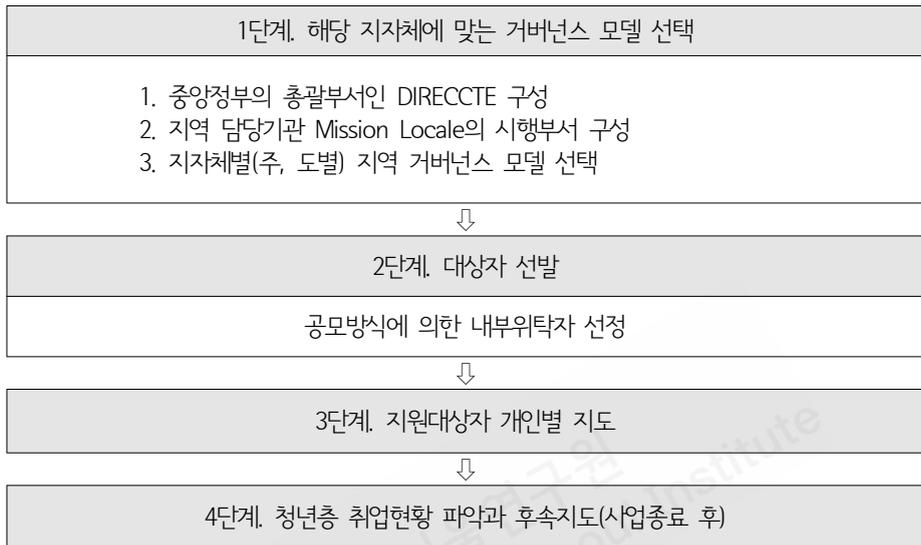
[표 2-14] 가랑띠 짚 사업규모 현황

연도	참여 지자체	지원대상자	총예산(억 유로)
2013~2014 (시범사업 연도)	20	10,000	6.2
2015	72	50,000	16.4

(2) 사업의 추진체계

- 프랑스의 가랑띠 짚은 전체적으로 4단계로 구분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됨
 - 1단계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시행 모델을 수립하며,
 - 지자체 모델이 확립된 이후에는 지자체별 사업주체들이 정해진 틀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함
- 이후 2단계 이후부터는 1년~1년 6개월에 달하는 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 프로세스가 진행됨
 - 2단계: 공모방식에 의한 내부위탁자 선정 후 대상자 선발
 - 3단계: 지원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도를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취업준비교육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연계
 - 4단계: 사업기간 종료 이후 취업현황 파악과 후속지도 수행

- 전반적으로 4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는 본 사업 초기단계에만 가동되고, 2~4단계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선발부터 교육, 취업 이후까지 1년에서 1년 반 이상 긴 호흡으로 사업 시행



[그림 2-3] 가랑띠 원의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주체인 지역위원회는 ‘지방 기업경쟁력 및 소비, 노동 및 고용 관리국’(이하 DIRECCTE⁴⁾), 미션 로케일(Mission Locale), 주정부 및 도정부, 지역 정치인, 협력주체(정부 및 기업)로 구성함
 - 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마다 DIRECCTE와 미션 로케일(Mission Locale), 그리고 지자체 정부와 민간 주체들이 참여하는 실행위원회가 구성됨
- DIRECCTE는 지역별로 동 사업의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하고 재원을 조달함
 - 본 사업에서 지자체별 협력주체들의 동원 수준과 내용을 점검하고, EU의 지원자금을 지자체와 연계함

⁴⁾ Directions régionales des entreprises,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du travail et de l'emploi의 약칭이며, 프랑스 중앙정부 경제부와 노동부 공동소관으로 지자체(시/군, 도, 주 단위로 묶이는 지방자치체 가운데 상급 단위인 주를 주요 대상으로 함)의 경제활동 및 노동활동을 촉진하는 중앙정부 기관임

- 미션 로케일(Mission Locale)은 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대상자의 취업준비활동을 지도·관리함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집단적으로 교육시키고, 청년 개인이 일자리나 고용교육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문제(이동성, 건강, 주택 등)를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가 지역 내 협력주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함
- 청년 1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연간 1,600유로의 사업비가 배정됨

<미션 로케일 개요>

- Mission Locale은 Mission Locale pour l'insertion professionnelle et sociale des jeunes의 약칭이며, 청년층 직업 및 사회 진입을 위한 지역 파견대임
- 청년이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미테랑 대통령 시기에 설립됨
 - 노동부 산하기관이 일자리 찾기와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16~25세)을 돕는 것이 주된 미션임
- 가톨릭 사상의 사회적 책무(mission)에서 영감을 받아 불우한 청년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만 알선해 주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직업 교육뿐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종합적으로 도움을 줌
- 창설 당시부터 12~18개월에 걸친 청년층 개별지도를 시행했으며, 기관 등록, 직업별 특성 파악, 희망 직업 선택, 관련 직업 직능교육을 수행함

(3) 지원대상자 선정

-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일정한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8~25세의 미취업 청년임
 - 해당 연령대의 청년층 가운데 EU가 정의한 청년 니트, 즉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일자리도 없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함
 - 이렇게 소외된 사회집단을 원조하는 것을 유럽연합에서 권고하고 있고, 프랑스 국가 예산 외에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특별보조금을 배정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가정 형편이 특별히 어렵거나 긴급한 원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 16~18세 청소년도 특별심사를 통해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
- 2015년 1월 현재, 소득합산에 의거한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은 신청자의 가구구성
성과 경제적 상황이 고려되며, 경제적 상황은 소득기준(가구당 소득합산)이 고
려됨⁵⁾
 - 다른 보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는 해당 보조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음
 - 동 사업은 ‘신청서 접수→서류심사(자격심사)→면접심사’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
가 최종적으로 선정됨
 -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지역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위원회 대신 미션 로케일에서 서류접수를 진행함(거버
넌스 모델에 따라 접수기관이 달라짐)
 - 신청서 외에 최근 3개월간 소득에 관한 자술서, 소득증명서, 계좌증명서 등
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서류심사에서는 지역위원회가 개인 상황의 긴급성이나 복잡성, 신청자 개인이
프로그램 전 과정에 참여할 시간과 직업훈련과 직업생활에 대한 의지가 충분한지
등을 심사함
 - 아울러, 혼자서는 구직이 힘든지 여부와 다양한 지원(주택, 건강문제, 이동
성 등)의 필요성도 서류심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됨
 - 이러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전체 신청자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지역별로
배당된 인원을 선정함
 - 분기별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인원이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분기로 지원
자격을 충족시킨 신청서류를 넘기도록 함(연간 분기별 1회씩 34회를 모집함)
 - 서류심사 이후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청자 본인이

⁵⁾ 소득 합산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실업수당이나 사회복지수당, 교육수당, 식비 보조금 등의 복지수당 등이 모두 해당됨

처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개별면접을 실시함

- 특히,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미션 로케일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과 인턴직 일자리에 주중 매일(시간적 가용성), 성실성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겠다 (지원동기)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야 함

(4) 지원대상자의 참여활동

- 지원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사업에 참여하는 12개월 동안 단체교육 및 활동계획서 수립(1.5개월)→직업교육 및 직업체험(10.5개월)에 참여하게 됨

① 단체교육 및 활동계획 수립

- 사업참여 협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지원대상자는 15명이 1팀이 되어 6주 동안의 단체교육에 참여하게 됨

- 교육내용: i) 집단의 역동성에 기여하는 개별 전략 세우기, ii) 직업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직업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론 발전시키기, iii) 빠르게 기업을 파악하는 방법론 등

- 지원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활동지원금도 이 단체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공됨

- 지원대상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취업분야에 대해 다양한 조사와 교육과정을 거쳐 가능한 활동계획을 수립함

- 지원대상자는 미션 로케일에 소속된 사업전담 컨설턴트와의 개별면담을 거쳐 6주간의 단체교육 기간에 활동계획서에 관한 초안이 마련됨

- 활동계획서는 팀별 컨설턴트의 지원하에 참여자별로 개별 작성하며, 매주 교육발달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정함

- 이후 같은 사업에 협력하는 지역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여건이 고려되고, 지원 대상자는 일자리 현장에 매칭됨

②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체험

- 지원대상자는 10.5개월 동안 직업교육·훈련은 물론, 미션 로케일과 협약을 맺은 공기업 및 사기업에서의 인턴교육 등의 직업체험을 수행함

- 지원대상자가 수행하는 견학, 직업훈련, 인턴 등의 프로그램은 개인과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짐⁶⁾
- 직업체험은 무급 단기인턴, 단기 계약직, 장기 계약직, 정규직을 불문하고 최소한 4개월(근무일 80일)을 이수해야 함⁷⁾

(5)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① 지원대상자 활동 모니터링

- 컨설턴트는 지원대상자가 작성한 활동노트의 확인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 지원대상자는 매주 자신의 취업준비활동의 결과에 관한 ‘행동양식 항목’에 따라 활동노트를 작성해서 서로 다른 단계의 다양한 활동들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함
 - 이 경우, 컨설턴트는 매주 당초에 설정한 활동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함

<지원대상자의 행동양식 항목>

- 경쟁력 파악: 해당 교육에서 얻은 것, 앞으로 보강해야 할 점, 자신의 경쟁력을 직업세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 등
- 직업분야에 대한 경제지식 습득: 직업분야별 활동, 분야별 관련 주요 기업 등
- 자자체 내 직업활동에 관한 지식 확보: 자자체 내 직업, 해당 기업의 경험과 경쟁력, 다른 분야로 활용가능한 자신의 경쟁력, 해당 직업과 관련 분야 기업에 대한 접근 절차 등
- 사회적 환경 조사: 해당 분야 기업의 기타 활동과 영향력, 네트워크 현황 등

⁶⁾ 예를 들어, 단기 일자리가 끝난 후에 바로 다른 일자리를 찾는 동안은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직업교육과 견학 등이 이루어지고 이 상황에서 미션 로케일과 연계한 고용센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연결함

⁷⁾ 최근에 본 사업을 도입한 파리의 미션 로케일의 경우, 프랑스 우정공사(La Poste)와 협약을 맺어 본 사업 교육생 50명을 계약직으로 우편배달 업무에 투입함. 교육과정에 포함된 이 계약직 일자리는 이후에 프랑스의 또 다른 고용지원정책인 Emploi d'avenir의 틀 안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

② 지원대상자의 관리

- 프로그램 기간에 교육이나 일자리 체험장에서 잦은 결석, 특히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결석 등이 있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됨
 - 질병이나 장기입원 등으로 인해 장기 결석으로 이어지면 지역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격이 상실되나, 단기결석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자격 유지를 허용

③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 참여기간 종료 이후 지원대상자에 대해 6개월간 사후관리를 수행
 - 미션 로케일의 컨설턴트는 교육 만족도, 사후 활동(진학, 취업 등)을 확인하고, 개별 인터뷰를 확보하며, 취업한 곳에서의 사회생활 등을 조언

2) 일본 요코하마시의 청년자립지원정책⁸⁾

(1) 정책의 주요 내용

- 요코하마시는 사업 시행 전부터 다른 지자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실행을 모색함
 - 새로 개편된 아동·청소년국이 니트에 관한 사업에 주목하였고, 2006년 니트 지원을 위하여 니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회를 발족함
 - 2007년 연구회를 해체하고, 여러 청년 니트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협의체를 신설함
- 2008년 종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다자간의 연계를 구축한 ‘요코하마 유스 포럼’이라는 네트워크 회의를 만들어 사업 추진
- 청년자립지원정책은 지원대상인 청년 니트를 ① 은둔형, ② 의욕부재형, ③ 실업자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정책내용을 다르게 설계함

⁸⁾ 이하 내용은 주로 한국고용정보원(2008)의 「한국형 니트 취업지원 연구」의 내용을 참조함

[표 2-15] 요코하마시 니트 지원정책에서의 니트 유형별 지원대상

유형	지원대상
은둔형(히키코모리)	집에만 있는 사람
의욕부재형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는 있지만, 배우거나 일할 의욕이 없는 사람
실업자형	취업활동을 하는데 좀처럼 취직이 안 되는 사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 한국형 니트 취업지원 연구

(2) 유형별 지원정책

① 은둔형 니트 지원정책

- 니트 지원정책 중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유형이며, 기존의 청소년상담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 정책의 목적은 은둔형 니트의 사회참가 촉진임
 -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은둔형 니트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점심 같이 먹기 등의 프로그램 및 이벤트 등을 운영

② 의욕부재형 니트 지원정책

- 요코하마시는 의욕 부재형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NPO에 사업을 위탁하여 “요코하마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요코하마시가 부담함
 - “요코하마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은 의욕부재형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취업정보안내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을 전개
- 아울러 집단생활을 통해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자립스쿨을 운영함
 - 청년자립스쿨은 청년이 기숙사에 입소하는 3개월 동안 청년이 기숙사를 거점으로 회사를 체험하게 하고, 특정의 사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함
 - 국가의 재정지원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1인당 10만 원의 입소료 지불·부담 능력에 따라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저소득계층은 무료 입소

③ 실업자형 니트 지원정책

- 청년 니트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 지원체제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자간 연계네트워크인 ‘요코하마 유스포럼’을 운영
 - 내각부, 후생노동성, 전문학교, NPO, 지자체, 기업 등 각 기관들이 연계하여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
 - 전문학교 및 NPO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에서는 실습을 수행하며, 아동청소년국은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함
-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교육하는 ‘영잡스퀘어’도 운영함
 - 면접태도, 이력서 작성법 등 세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기업의 후원을 받아 NPO가 운영하고, 요코하마시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거나 영잡스퀘어와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함

[표 2-16] 요코하마시 니트 지원정책에서의 니트 유형별 정책운영형태

유형	기관	운영형태
은둔형	청소년 상담센터	· 요코하마시 직영
의욕부재형	서포트 스테이션	· 국가가 운영비 지원 · 요코하마시가 인건비 부담 · 민간위탁 운영
	청년자립스쿨	· 국가와 요코하마시의 예산지원 · 민간위탁 운영
	지역 유스프라자	· 요코하마시 예산지원 · 은둔형과 의욕부재형 동시지원
실업자형	영잡스퀘어	· 기업지원 · NPO 운영 · 시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
	요코하마 유스포럼	· 다자간 연계네트워크 (2주 1회 회의방식 운영)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 한국형 니트 취업지원 연구

(3) 요코하마시 니트 지원정책의 특성

- 요코하마시의 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청년자립 지원정책과의 차별성을 가짐
- 첫째, 대상별 특성에 기초하여 차별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함
 - 지원이 협소한 구직기술 습득에 국한하지 않고, 심리적 취약성 극복에서부터 높은 취업역량 배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량 형성 프로그램까지 제공함
 - 지역 청년 취업지원 시스템은 취업취약 청년들이 취업능력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도하차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청년 취업지원에 기업, 교육기관, 연구자, 행정, 지역사회 등의 대규모 사회연계가 이루어져 있음
 -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지원 영역을 기능이나 지식의 습득과 같은 과제 달성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성 개발까지 포함

3) 고용노동부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례

(1) 사업의 주요 내용

-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함
 - 사회활동의 참여를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 증진 등으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
-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활동참여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부대경비(보조금 또는 운영비)를 지급함
 - 활동비는 개인에게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임(2016년 기준)
- 이 사업은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창업활동', '취업활동', '경력유지활동', '자

원봉사활동'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공익활동 사업(전국형): 전국단위로 일괄 실시하며, 독거노인, 부부노인가구, 조손가구,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을 집중 지원
- 공익활동 사업(지역형): 노인의 경륜을 활용한 지역사회 환경개선, 공공기관 업무지원 등 지역사회 활성화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
- 취업활동: 수요처 요구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 동안 일정 보수를 지급함
- 창업활동: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 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표 2-17]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유형(2015년 기준)

구분	유형	설명	세부사업(예시)
공익활동	전국형 (자원봉사활동)	· 참여노인 활동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	· 취약노인 가구 방문(안부확인, 생활상태 점검)
	지역형 (표준프로그램)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CCTV 상시관제, 스쿨존 교통지원, 숲 생태 해설
	재능나눔활동	· 참여노인 활동비를 전액 지원	
창업활동	공동작업형	·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	·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지역영농사업,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매장운영사업, 아파트택배 사업
	제조판매형		
	고령자친화기업		
취업활동	인력파견형	· 수행기관에 사업비 지원	·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시니어인턴십	·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	
경력유지 활동	시니어직능클럽	· 부대 경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	
	자원봉사활동	· 노인단체지원 예산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	

- 이 가운데 개인에게 직접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공익활동 사업’(전국형/지역형)과 ‘재능나눔활동 사업’이 해당함
 - 전국형 자원봉사활동은 1인당 월 2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참여기간은 9개월, 12개월 2가지 트랙으로 운영함
 - 지역형 표준프로그램은 상기와 동일하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되, 참여기간이 9개월로 정해져 있음
 - 재능나눔활동은 7개월간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함
- 나머지 사업은 노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보다는 해당 단체 또는 기업에 보조금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표 2-18] 세부사업 유형별 지원대상자 1인 예산지원 기준

구분	유형	지원대상자 1인 예산지원 기준			
		활동비	참여기간	부대경비	계
공익 활동	전국형 (자원봉사활동)	20만 원	9개월, 12개월	14만 원 16만 원	194만 원 256만 원
	지역형 (표준프로그램)	20만 원	9개월	14만 원	194만 원
재능나눔활동		10만 원	7개월		10만 원
창업 활동	공동작업형		연중	180만 원	180만 원
	제조판매형		연중	200만 원	200만 원
취업 활동	인력파견형		연중	15만 원	15만 원
	시니어인턴십				

(2) 사업의 추진절차

-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사업추진 준비(참여자 모집 및 선발 등)→참여자 교육→활동관리 및 활동비 지급→사업평가 단계로 운영
 -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광역 자치단체에서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군·구 계획을 수

립함

- 사업추진 준비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모집과 선발이 이루어지며, 참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기관 등 수요처를 개발·선정함
- 활동관리 및 활동비 지급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활동일지를 기록·관리하고, 현장 수시방문 등을 통해 사업수행 상황을 관리함
- 사업 평가 단계에서는 사업참여에 따른 만족도 조사, 사업 자체평가,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함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활동의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모든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통해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 참여자의 선발은 소득인정액과 세대주 형태 등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평가
 - 이에 더해 참여의 적극성, 일하려는 의지 등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사업의 관리를 위해 참여자는 활동(근무)관리대장을 작성하며, 필요시 개인별 활동일지(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자체 작성 가능)도 작성함
 - 활동(근무)관리대장은 매 활동 시 참여자가 자필로 작성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의 활동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함
 - 사업담당자는 주 또는 월 1회 참여자의 활동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활동(근무)관리대장에 확인함(자필서명, 날인 가능)
- 참여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참여자의 고충도 상담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함

[표 2-19]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번호	고려 요소	배점항목	배점	특점	비고	
합계			100			
가	소득 인정액	단독가구	10만 원 이하	50		
			20만 원 이하	30		
			20만 원 초과	0		
		부부가구	20만 원 이하	50		
			20만~40만 원 이하	30		
			40만 원 초과	0		
나	세대주 형태	노인독신가구 및 가족동거노인가구	20		가족범위: 노부모, 손자녀 및 장애인 등 경제 무능력자와 동거	
		노인부부가구(2명)	10			
		가족동거가구	0		경제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다	종합 의견	참여의 적극성(긍정적이고 적극적 성격, 책임감 및 협동심 등)	10			
		일하려는 의지 및 수행능력(건강 상태 등)	20			

03

청년활동 실태 및 청년정책 수요

- 1_청년활동 실태파악을 위한 정책대상 FGI 조사
- 2_청년활동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결과
- 3_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03 | 청년활동 실태 및 청년정책 수요

1_청년활동 실태파악을 위한 정책대상 FGI 조사

1) FGI 조사 개요

- FGI 조사의 목적
 - 닛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활동의 실태와 정책 수요에 대한 예비적 조사를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 실시함
 - 특히, 청년 당사자의 인식과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청년활동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아울러,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도 유용한 정보를 획득함
- 이를 위해 청년들을 진로목표(방향)에 따라 구분하고, 각 대상자 집단별로 FGI를 실시함
 - 진로의 최종목표는 ① 취업, ② 창업, ③ 사회활동가 및 프리랜서 등으로 구분함
- FGI 조사내용은 크게 ① 청년활동의 이행경로, ②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에 관한 평가, ③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함
 - 청년활동의 이행경로: 직업 이행경로에서의 목표, 직업이행을 위한 조건
 -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 평가: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향
 -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관리·운영방안 등

[표 3-1]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대상 FGI 실시 개요

구 분	취업준비자(1)	취업준비자(2)	사회활동가 및 프리랜서 준비자	창업준비자
조사 일시	2015.12.2	2015.12.3	2015.12.10	2015.12.17
피조사자 수	4	6	5	5
피면접자 선정	서울시 청년허브 소개	참여자 모집 공고 후 선착순 접수	서울시 청년허브 소개	참여자 모집 공고 후 선착순 접수

2) FGI를 통해 확인된 주요 조사 내용

- 진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로 진로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생활비 및 이행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나,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수행하기도 쉽지 않음
 -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미취업자들에 비해 취업 준비를 덜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음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다단계, 사이버 종교 등에 발을 들이기도 함
-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 외국어, 자격증, 인턴, 스터디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활동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
 - 특히, 취업을 위해 집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스터디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취업 목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스터디 그룹 운영이 활발함
-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수강비, 교재비, 시험전형료 등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이 적지 않음
 - 취업하는 데 있어 필수 요소가 된 외국어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는 데에 수십만 원이 소요되고, 교재구입비 부담도 만만치 않음
 - 스터디 이외 활동을 운영하거나 활동에 참가하는 데 있어서도 공간대여비(장소할용비) 등의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됨

- 취업을 준비하고 또 취업에 성공하는 데 있어 스펙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여건에서 요구되는 스펙이 확대·다양화되고 있음
 - 스펙이 좋은 청년들은 어렵지 않게 서류 전형 등에 합격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추진 시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기도 함
 - 심지어 인턴과정에 지원하고, 학원에 등록하는 데에도 스펙이 요구됨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취업역량을 높이는 데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며, 사업 내에 여러 제약요인들도 존재하고 있음
 - 직업교육훈련 강조의 수준 및 강사의 교육역량이 높지 않으며, 훈련참여수당이 이행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생계유지에 충분치 않음
 - 취업알선이 용이하지 않으며, 알선된 직장의 경우에도 질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아 고용지속성을 기하기가 어려움
 - 운영기관에서 청년들을 제대로 관리해주기보다는 사업의 실적을 쌓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를 포함한 정부 청년취업대책이 청년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데 별도 도움이 안 됨, 민간부문의 교육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있으면 좋을 것임
 - 민간기업 교육 프로그램은 직무역량 향상에 실제로 도움이 됨
 - 이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지원 서비스보다는 동일한 진로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음
- 한편,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이행활동에 전념하고 다른 의미있는 경험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아르바이트할 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서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음
- 지원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과 관리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청년보다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교육, 진로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이 병행되기를 희망함

- 지원사업의 활동지원금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들이 존재
- 청년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지원금의 목적을 고려하고 있는 입장이 있으며, 학원수강, 스터디 장소 대여 등 진로준비 활동을 위한 목적에만 지원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함

2_청년활동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현재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현실과 여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는 한편,
 - 청년 니트들의 활동실태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를 확인함
 - 아울러, 현행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싼 청년들의 정책수요를 조사함
- 본 설문조사에서는 그 대상을 서울시민 전체와 정책의 대상 주체인 청년층으로 이원화하여 실시함
 - 온라인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자
 - 오프라인 조사대상: 만 18~29세의 서울시 거주자
-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 각각 상이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해 설문을 실시함⁹⁾
 - 온라인 설문문항: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청년층의 어려움 인식 여부, 청년 지원정책 필요성, 시급한 지원 분야)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금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인지여부, 필요성, 지원 분야, 지원 대상 등) 등

⁹⁾ 세부 설문문항에 대해서는 '부록: 청년활동 실태 및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수요 조사 설문지'를 참조할 것

- 오프라인 설문문항: 청년층의 경제적 여건(월 지출규모, 생활상태 등), 구직 활동(최종목표, 구직활동 경험 등), 기존 정책에 대한 인식(참여경험, 만족도, 개선사항 등), 청년활동지원금제도에 대한 수요(정책의 목적, 지원분야, 지원 대상, 관리 방식 등) 등
- 설문조사는 청년고용 및 진로 관련 조사 전문 기관인 'NICE R&C'에서 수행함
 - 2015.12 조사 실시 후 유효 응답자(오프라인 조사 713명/온라인 조사 500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함

[표 3-2]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수요 조사 실시 개요

구분	오프라인 조사	온라인 조사
조사대상	만 18~29세 청년	서울시민 만 18세 이상
유효 응답자 수	713명	500명
조사 기간	15.12.18~15.12.23	15.12.18~15.12.21
조사 방법	면접조사	온라인 조사
허용오차(95% 신뢰수준)	±3.67%p	±4.38%p

2) 청년정책에 관한 인식 조사: 온라인 조사

(1)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 및 구직'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함
 - '취업 및 구직'(94.0%)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대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20대 이하(91.0%)임

[표 3-3] 청년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취업 및 구직	도전정신 부족	연예 및 결혼	주거	인간관계	건강	기타
전체	88.0	3.8	3.4	2.4	1.2	1.0	0.2
20대 이하	91.0	1.0	3.0	3.0	-	2.0	-
30대	85.0	2.0	6.0	5.0	1.0	-	1.0
40대	85.0	4.0	4.0	3.0	4.0	-	-
50대	94.0	5.0	-	1.0	-	-	-
60대 이상	85.0	7.0	4.0	-	1.0	3.0	-

- 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취업문제는 모든 연령층에서 '심각하다'고 인식함
 - 전체적으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8.6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함
 - 흥미로운 점은 당사자인 20대 이하나 30대에 비해 50대가 청년의 취업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함

[표 3-4] 청년의 취업문제에 대한 심각성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점수 (10점 만점)
전체	-	0.6	0.6	0.6	2.4	3.8	9.8	23.0	22.8	36.4	8.62
20대 이하	-	1.0	1.0	-	2.0	4.0	9.0	24.0	17.0	42.0	8.67
30대	-	1.0	1.0	1.0	2.0	5.0	9.0	21.0	25.0	35.0	8.55
40대	-	1.0	-	1.0	2.0	3.0	17.0	20.0	23.0	33.0	8.50
50대	-	-	-	-	1.0	1.0	6.0	24.0	25.0	43.0	9.00
60대 이상	-	-	1.0	1.0	5.0	6.0	8.0	26.0	24.0	29.0	8.38

- 청년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연령층이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응답함
 - 특히, 50대가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20대 이하의 인식도 높게 나타남

[표 3-5] 청년 특화형 정책 추진의 필요성

(단위: %)

구분	전혀 필요없음	크게 필요없음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평균 점수 (5점 만점)
전체	0.4	2.4	10.2	45.0	42.0	4.26
20대 이하	-	2.0	7.0	43.0	48.0	4.37
30대	-	3.0	13.0	49.0	35.0	4.16
40대	-	2.0	13.0	47.0	38.0	4.21
50대	-	-	5.0	43.0	52.0	4.47
60대 이상	2.0	5.0	13.0	43.0	37.0	4.08

- 청년정책을 수행할 때 우선 지원해야 할 대상자로는 ‘장기실업자’, ‘저소득 미취업자’에 대해 높은 응답을 나타냄
- 이외, 졸업유예자도 우선순위가 높으며, 특히 50대 연령층에서 높은 응답률 (29.0%)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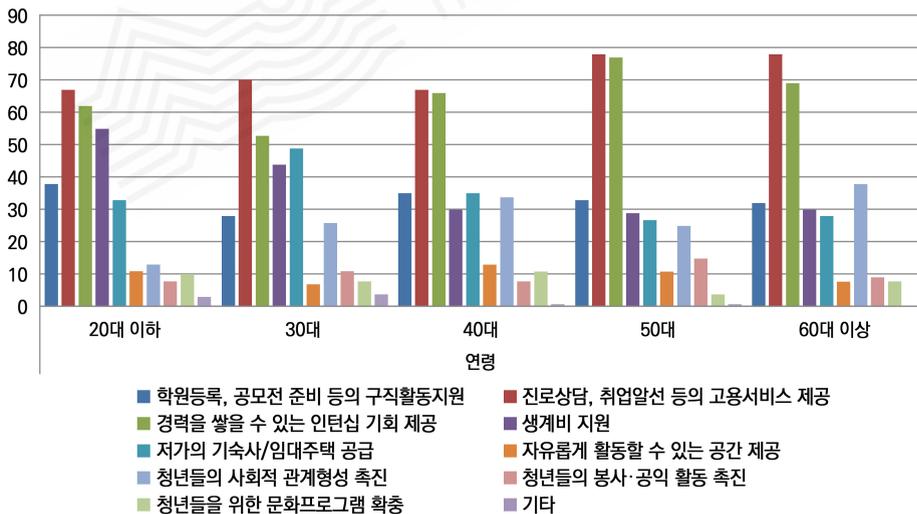
[표 3-6] 청년정책 수행 시 우선 지원대상(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저소득층 미취업자	졸업 유예자	장기 실업자	저학력 미취업자	은둔형 미취업자	구직 단념자	기타
전체	57.0	24.5	71.0	19.8	10.9	15.6	1.2
20대 이하	56.1	27.6	71.4	12.2	14.3	15.3	3.1
30대	56.7	19.6	71.1	23.7	16.5	12.4	-
40대	63.3	21.4	72.4	17.3	4.1	20.4	1.0
50대	56.0	29.0	71.0	21.0	8.0	15.0	-
60대 이상	52.7	24.7	68.8	24.7	11.8	15.1	2.2

주: [표 3-5]에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486명)에만 설문

(단위: %)



[그림 3-1] 청년정책 수행 시 우선 지원활동(복수응답)

- 청년정책 수행 시, 우선 지원활동으로는 ‘진로상담,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을 중요하게 고려함
 - 이외에 20대는 ‘생계비 지원’, 30대는 ‘저가의 기숙사/임대주택 공급’에서 응답률이 높은 반면,
 - 50대는 ‘학원등록, 공모전 준비 등의 구직활동 지원’, 60대는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형성 촉진’ 등에 대해서도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2) 청년문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 정부 청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2.28점에 불과한 저조한 인식을 나타냄
 - 특히 30대는 2.04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20대 이하도 비교적 부정적 인식이 강함

[표 3-7] 정부의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보통	다소 적절	매우 적절	평균 점수 (5점 만점)	
전체	22.4	37.6	31.2	7.4	1.4	2.28	
연령	20대 이하	27.0	43.0	18.0	8.0	4.0	2.19
	30대	33.0	37.0	25.0	3.0	2.0	2.04
	40대	24.0	31.0	35.0	10.0	-	2.31
	50대	20.0	38.0	34.0	7.0	1.0	2.31
	60대 이상	8.0	39.0	44.0	9.0	-	2.54

- 한편, 정부의 여러 정책 가운데 청년일자리사업이 충분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2.12점에 불과한 낮은 점수로 응답함
 - 연령별로는 50대를 필두로 20대 이하와 30대에서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강함

[표 3-8] 정부의 청년일자리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매우 부족	다소 부족	보통	다소 충분	매우 충분	평균 점수 (5점 만점)
전체	27.0	40.6	26.6	5.0	0.8	2.12
20대 이하	36.0	34.0	23.0	4.0	3.0	2.04
30대	31.0	41.0	22.0	5.0	1.0	2.04
40대	27.0	37.0	29.0	7.0	-	2.16
50대	28.0	43.0	27.0	2.0	-	2.03
60대 이상	13.0	48.0	32.0	7.0	-	2.33

- 청년일자리사업 외에 청년취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2.33점의 저조한 평가결과를 나타냄
 - 이 경우에도 20대 이하와 30대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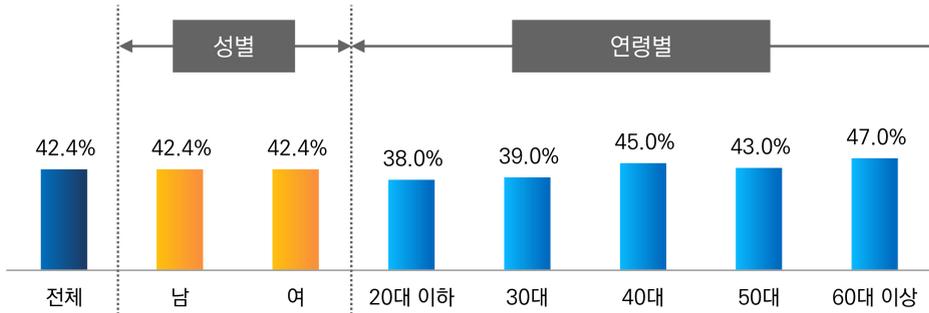
[표 3-9] 정부의 청년취업지원정책 평가

(단위: %)

구분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보통	다소 도움	매우 도움	평균 점수 (5점 만점)
전체	18.8	41.2	29.2	10.2	0.6	2.33
20대 이하	31.0	41.0	17.0	9.0	2.0	2.10
30대	21.0	46.0	29.0	4.0	-	2.16
40대	16.0	38.0	34.0	12.0	-	2.42
50대	20.0	35.0	36.0	8.0	1.0	2.35
60대 이상	6.0	46.0	30.0	18.0	-	2.60

(3)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평가

-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응답자의 42.4%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모든 연령층에서 50% 이하를 나타냄



[그림 3-2]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인지 여부

- 취업성공패키지가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3.06점의 저조한 평가결과를 나타냄
 - 특히, 20대 이하와 30대, 그리고 50대의 경우 3점 미만의 응답률을 보인 반면, 4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

[표 3-10] 취업성공패키지의 효과성 평가

(단위: %)

구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거의 도움이 안 된다	평균 점수 (5점 만점)
전체	3.8	34.0	32.5	23.6	6.1	3.06
20대 이하	7.9	18.4	34.2	39.5	-	2.95
30대	-	28.2	46.2	15.4	10.3	2.92
40대	8.9	37.8	22.2	24.4	6.7	3.18
50대	2.3	30.2	34.9	23.3	9.3	2.93
60대 이상	-	51.1	27.7	17.0	4.3	3.26

주: 취업성공패키지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

- 취업성공패키지의 개선사항으로는 ‘교육·훈련기관의 선택범위 다양화’(36.4%), ‘교육·훈련 범위 다양화’(32.6%) 등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이외에도, 취업알선이나 진로상담 서비스 향상, 교육·훈련의 질적 제고 등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됨

[표 3-11] 취업성공패키지 개선사항(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교육·훈련기관의 선택범위 다양화	36.4	28.0	40.0	39.0	40.0	35.0
교육·훈련 범위 다양화	32.6	38.0	41.0	37.0	23.0	24.0
참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취업알선	27.6	23.0	23.0	23.0	34.0	35.0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상담	24.2	19.0	18.0	26.0	24.0	34.0
교육·훈련의 질 제고	23.6	33.0	23.0	21.0	22.0	19.0
훈련참여 수당의 인상	20.8	25.0	25.0	21.0	23.0	10.0
교육·훈련기관 시설의 질 제고	19.0	17.0	20.0	21.0	18.0	19.0
취업난을 겪는 청년으로 선별	14.8	15.0	8.0	11.0	16.0	24.0
기타	1.0	2.0	2.0	1.0	-	-

(4)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수요

-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다’(전혀 모름 26.2%, 들어봤으나 어떠한 제도인지는 모름 35.2%)는 응답은 61.4%로, 약 1/3 정도만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 주목할 점은 20대 이하가 ‘전혀 모르고 있다’(37.0%)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음
 -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사업 취지만 앎+제도 전반을 상세히 앎)는 응답(각각 42.0%)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게 나타남

[표 3-12]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구분	전혀 모름	들어봤으나 어떠한 제도인지는 모름	사업 취지만 앎	제도 전반을 상세히 앎
전체	26.2	35.2	30.4	8.2
20대 이하	37.0	26.0	32.0	5.0
30대	28.0	36.0	25.0	11.0
40대	25.0	39.0	29.0	7.0
50대	20.0	38.0	34.0	8.0
60대 이상	21.0	37.0	32.0	10.0

- 이 경우에 조사대상자들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대체로 ‘성남시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청년배당제와 유사한 사업’으로 인식함
 - 그러나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청년 구직촉진수당제 성격’이라는 응답 (27.8%, 26.2%)도 매우 높게 나타남

[표 3-13]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정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유사한 사업	서울시만의 차별적인 정책	청년 배당제와 유사한 사업	청년 구직촉진 수당제 성격의 사업	청년생계 보장을 위한 복지사업	정부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기타
전체	13.5	16.6	23.3	21.8	11.9	9.8	3.1
20대 이하	13.5	13.5	29.7	18.9	8.1	10.8	5.4
30대	8.3	13.9	30.6	27.8	16.7	2.8	-
40대	8.3	8.3	27.8	27.8	11.1	16.7	-
50대	23.8	16.7	19.0	26.2	9.5	4.8	-
60대 이상	11.9	28.6	11.9	9.5	14.3	14.3	9.5

주 : [표 3-12] 문항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193명)에만 설문

-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기대는 43.6%가 효과적일 것으로 응답해 사업에 대한 다소 긍정적 기대가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과가 있겠으나 사업의 관리·운영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38.8%에 달함
 - 2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현재의 사업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지만, ‘사업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사업추진을 재고(취소)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음

[표 3-14]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단위: %)

구분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임	제대로 된 사업 관리·운영 필요	효과적이지 않다	사업 전반의 재설계 필요	사업추진 재고(취소) 필요
전체	43.6	4.8	38.8	56.4	41.2	15.2
20대 이하	50.0	6.0	44.0	50.0	40.0	10.0
30대	37.0	2.0	35.0	63.0	48.0	15.0
40대	49.0	5.0	44.0	51.0	37.0	14.0
50대	44.0	5.0	39.0	56.0	41.0	15.0
60대 이상	38.0	6.0	32.0	62.0	40.0	22.0

- 사업추진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목적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청년의 취업 및 창업 준비를 위한 비용지원’으로 응답함
 -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지원’(37.4%), ‘다양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지원’(36.8%)에 대한 응답률이 전 연령에서 높게 나타남
 - 20대 이하는 ‘청년의 취업 및 창업 준비를 위한 비용지원’(39.0%)이 가장 높고, ‘청년의 부족한 생활비 충당’(35.0%), ‘다양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지원’(35.0%) 등 다양한 항목에서 고른 응답률을 보이고 있음

[표 3-15]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지향해야 할 우선적 목적(복수응답)

(단위: %)

구분	취창업 준비를 위한 비용지원	다양한 경험을 위한 활동지원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비용지원	저소득 청년의 생활비 지원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지원	부족한 생활비 지원	은둔형 미취업자(히키코모리) 지원	기타
전체	52.4	37.4	36.8	24.0	20.2	19.6	8.6	1.0
20대 이하	39.0	34.0	35.0	30.0	9.0	35.0	15.0	3.0
30대	58.0	38.0	39.0	22.0	14.0	21.0	7.0	1.0
40대	54.0	34.0	34.0	31.0	23.0	17.0	7.0	-
50대	59.0	39.0	38.0	17.0	22.0	16.0	9.0	-
60대 이상	52.0	42.0	38.0	20.0	33.0	9.0	5.0	1.0

- 제도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20대 이하는 ‘적정한 지원대상자 선정’(39.0%), 30대는 ‘지원대상활동의 다양성 보장’(40.0%)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함

[표 3-16]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설계 시 고려사항(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정	42.6	39.0	34.0	43.0	48.0	49.0
지원대상활동의 다양성 보장	33.4	38.0	40.0	30.0	38.0	21.0
사업운영기관의 전문성 확보	22.6	18.0	17.0	27.0	23.0	28.0
사업운영기관의 부당한 관리 경계	21.0	20.0	33.0	16.0	15.0	21.0
적정수준의 활동지급액 책정	19.2	23.0	15.0	22.0	21.0	15.0
적정기간의 사업 참여기간 설정	16.6	16.0	13.0	19.0	13.0	22.0
사업운영기관의 실적 위주 운영 경계	16.2	16.0	15.0	14.0	23.0	13.0
부적격자의 사업 참여 배제	12.8	10.0	15.0	15.0	10.0	14.0
정부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7.8	11.0	10.0	10.0	3.0	5.0
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	7.2	8.0	6.0	4.0	6.0	12.0
기타	0.6	1.0	2.0	-	-	-

- 바람직한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으로는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자 일부를 선별하여 지원’(40.0%)하는 방법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음
 - 다만, 20대 이하와 50대의 경우에는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에게 모두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음

[표 3-17]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단위: %)

구분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 모두 선정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자 일부 선정	모든 청년계층	신청자 일부 선정	기타
전체	26.2	40.0	14.8	16.4	2.6
20대 이하	32.0	32.0	19.0	15.0	2.0
30대	15.0	46.0	21.0	15.0	3.0
40대	26.0	44.0	11.0	19.0	-
50대	31.0	37.0	11.0	19.0	2.0
60대 이상	27.0	41.0	12.0	14.0	6.0

[표 3-18]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시험등록비 지원	44.0	48.0	48.0	46.0	35.0	43.0
학원수강료 지원	43.0	47.0	48.0	41.0	43.0	36.0
취업준비 스터디 운영 지원	39.2	30.0	28.0	34.0	48.0	56.0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34.2	18.0	31.0	39.0	41.0	42.0
취업·창업 공모전 준비 지원	27.0	29.0	21.0	32.0	31.0	22.0
지원대상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음	26.4	31.0	22.0	22.0	30.0	27.0
교재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	19.8	27.0	29.0	21.0	11.0	11.0
급여를 받지 않는 인턴십 활동	18.8	22.0	17.0	18.0	14.0	23.0
봉사 및 공익 활동비용 지원	18.0	12.0	20.0	26.0	16.0	16.0
다양한 모임에 필요한 공간확보 지원	16.4	18.0	16.0	16.0	18.0	14.0
창작활동	6.8	6.0	11.0	1.0	9.0	7.0
여가활동비 지원	5.4	10.0	7.0	4.0	4.0	2.0
기타	1.0	2.0	2.0	-	-	1.0

- 한편, 지원대상활동으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등록비 지원’, ‘학원수강’ 순으로 나타나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지원요구가 강함([표 3-18])
 - 취업준비활동 외에 ‘창업활동 비용 지원’(34.2%), ‘취업창업을 위한 공모전 준비 지원’(27.0%) 등도 비교적 높은 응답을 나타냄
- 우선 지원대상으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 미취업자’에 대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이는 청년정책에서 ‘장기 실업자’와 ‘저소득층 미취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보는 앞의 인식([표 3-6])과도 일관됨
 - 그 밖에도 ‘사회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저학력 미취업자’가 각각 15.4%, 14.0%로 다소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표 3-19]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우선 지원대상(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저소득층 미취업자	졸업 유예자	장기 실업자	저학력 미취업자	은둔형 미취업자	구직 단념자	사회 활동 참여자	예비 창업자	협동 조합 설립 준비자	우선 순위 불필요
전체	48.0	20.0	53.8	14.0	8.8	9.8	15.4	4.8	1.4	12.0
20대 이하	44.0	24.0	60.0	10.0	12.0	11.0	16.0	3.0	-	10.0
30대	43.0	16.0	57.0	14.0	8.0	9.0	17.0	5.0	1.0	15.0
40대	56.0	14.0	53.0	9.0	11.0	12.0	13.0	5.0	1.0	13.0
50대	48.0	25.0	49.0	16.0	5.0	7.0	15.0	5.0	2.0	14.0
60대 이상	49.0	21.0	50.0	21.0	8.0	10.0	16.0	6.0	3.0	8.0

- 청년활동을 위한 지원금의 사용가능 범위는 ‘교통비 및 식비, 학원비 및 교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41.0%)이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함
 - 30대에서는 ‘교통비 등과 그외 취업준비에 필요한 제반 활동비용’(24.0%)에 대한 응답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2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서 활동지원금 사용가능 범위

(단위: %)

구분	교통비 및 식비	교통비 및 식비, 학원비 및 교재비	교통비 및 식비, 학원비 및 교재비, 주거비	교통비 등과 그외 취업준비에 필요한 저반 활동비용	기타
전체	19.2	41.0	17.4	18.8	3.6
20대 이하	21.0	40.0	14.0	19.0	6.0
30대	18.0	37.0	18.0	24.0	3.0
40대	25.0	37.0	20.0	17.0	1.0
50대	12.0	50.0	19.0	16.0	3.0
60대 이상	20.0	41.0	16.0	18.0	5.0

- 청년활동을 위한 지원금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51.40%)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표 3-21]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서 지원금 지급기간

(단위: %)

구분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9개월 정도	12개월 정도
전체	12.4	51.4	8.2	28.0
20대 이하	15.0	46.0	14.0	25.0
30대	11.0	54.0	4.0	31.0
40대	13.0	53.0	6.0	28.0
50대	9.0	45.0	13.0	33.0
60대 이상	14.0	59.0	4.0	23.0

- 마지막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성공적인 취·창업에 실질적 도움 제공’(31.2%), ‘참여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28.6%) 등을 지적함
 - 이외, ‘적정 지원대상자 선정’(12.4%), ‘적정 지원금 규모와 지원기간 설정’(10.8%)도 비교적 중요한 요소로 응답함

[표 3-22]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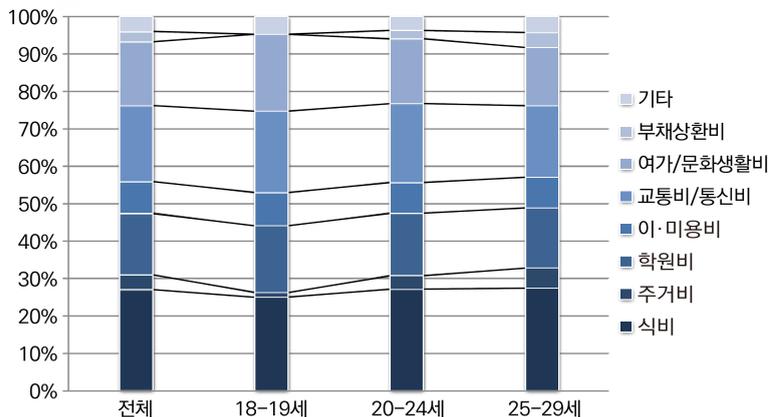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취창업에 실질적 도움 제공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	적정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설정	지원활동의 철저한 관리	기존 정책과 차별화	기타
전체	31.2	28.6	12.4	10.8	9.0	6.6	1.4
20대 이하	23.0	22.0	14.0	16.0	10.0	14.0	1.0
30대	35.0	20.0	13.0	9.0	12.0	9.0	2.0
40대	35.0	34.0	9.0	7.0	6.0	8.0	1.0
50대	33.0	34.0	14.0	11.0	7.0	-	1.0
60대 이상	30.0	33.0	12.0	11.0	10.0	2.0	2.0

3) 청년활동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오프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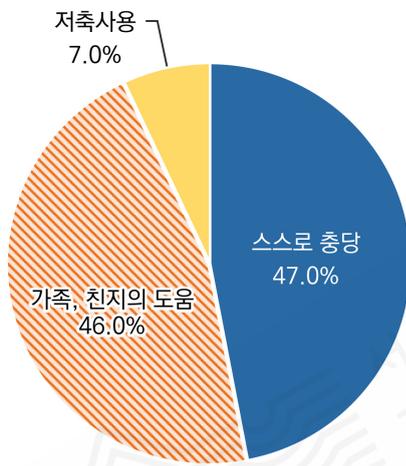
(1) 청년의 생활여건 및 상태

- 현재 청년들의 생활비 구조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으나 1개월을 기준으로 전체 생활비 중 식비(27.0%), 교통비/통신비(20.4%), 여가/문화생활비(17.0%), 학원비(16.5%) 등으로 구성됨([그림 3-3] 참조)
 - 특히, 교통통신비는 전체 지출의 20%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채상환비로 지출되는 비중(0.1%~4.0%)과 주거비로 지출되는 비중(0.2%~5.2%)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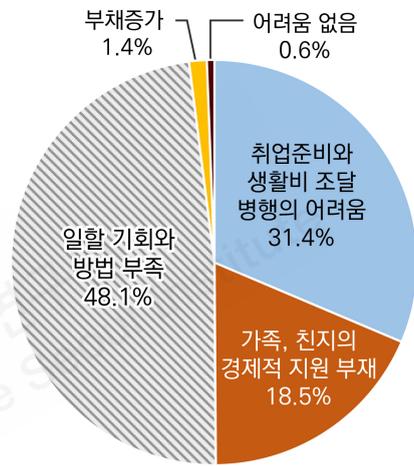


[그림 3-3] 청년들의 월평균 생활비 구성

-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스스로 충당’(47.0%)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형제 또는 친척의 도움’(46.0%)을 받는 경우도 비슷한 수준임
- 생활비 조달이 어려운 이유로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48.1%)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그다음으로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 병행에 따른 애로’(31.4%), ‘부모 또는 친척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부재’(18.5%) 등도 응답률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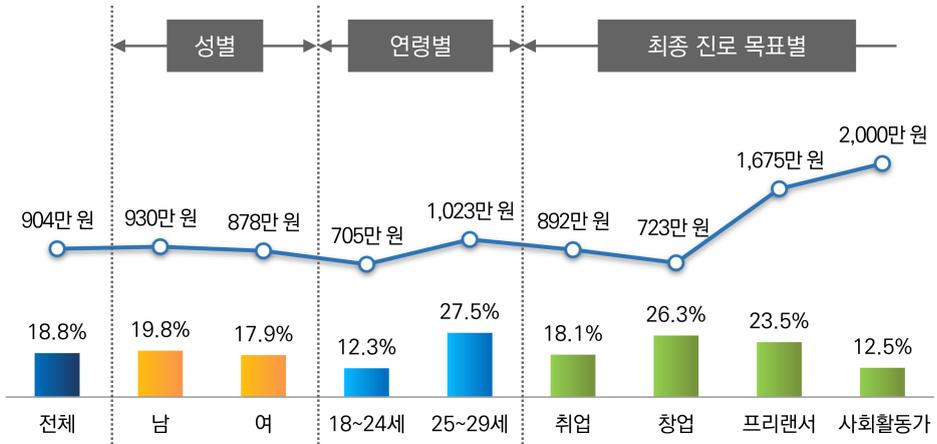


[그림 3-4] 생활비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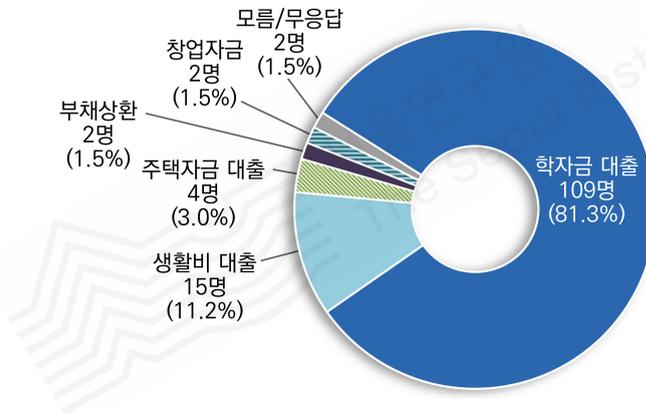


[그림 3-5] 생활비 조달의 어려움

- 부채에 대해서는 18.8%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25~29세의 경우에는 27.5%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함
 - 부채 비용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많은 20대 후반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
 - 부채 보유라고 응답한 청년 중 81.3%는 학자금 대출을 그 원인으로 응답함



[그림 3-6] 계층별 부채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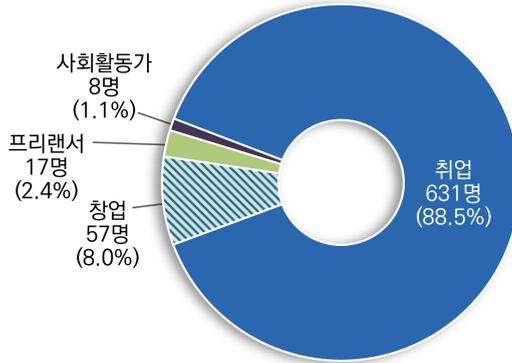


[그림 3-7] 부채를 보유하게 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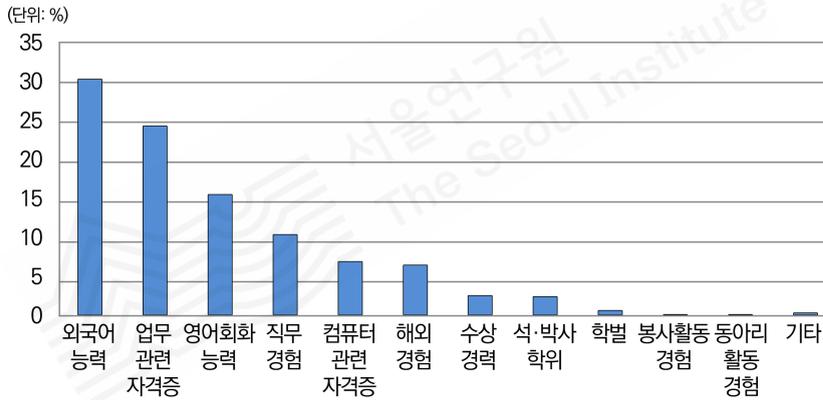
(2) 청년의 활동 경험 및 진로 계획

- 최종 진로 계획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88.5%가 ‘취업’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취업스펙이 취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취업에 중요한 스펙으로 ① 외국어 능력(30.4%), ② 업무(직무) 관련 자격증 (24.3%), ③ 영어회화 능력(15.6%), ④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직무 경험(10.4%), ⑤ 컴퓨터 관련 자격증(6.9%) 순으로 응답함

- 청년이 인식하고 있는 취업에 필요한 스펙은 현재의 청년정책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항목이 상당수 존재함



[그림 3-8] 청년들의 최종 진로목표



[그림 3-9] 취업에 중요한 스펙

- 조사대상자의 78.5%는 학교졸업 후 취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취업의 대부분(70.9%)이 기간제 비정규직(단시간 근로 포함) 지위 형태인 것으로 조사됨
-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 이상으로 기간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표 3-23] 학교졸업 후 취업경험과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취업 경험		취업 기간 동안 종사상 지위					
	없음	있음	정규직	기간제 비정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 종사자
전체	21.5	78.5	7.0	70.9	20.0	0.2	0.4	1.6
18~19세	34.3	65.7	-	55.2	38.8	-	-	6.0
20~24세	24.6	75.4	4.8	68.7	24.8	-	-	1.7
25~29세	14.1	85.9	10.6	76.8	11.0	0.4	0.8	0.4

- 취업유경험자 중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직장이나 직무가 전망이 없어서’(19.6%),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19.5%) 순으로 나타남
 - 기간제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15.6%), 일용직(초단기 근로)의 경우에는 ‘근무조건이 열악해서’(14.3%)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남

[표 3-24] 취업경험자 중 취업 중단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종사상 지위			
		정규직	기간제 비정규직	일용직	기타
직장이나 직무의 전망이 없음	19.6	20.5	19.6	20.5	8.3
적성에 맞지 않음	19.5	59.0	14.1	22.3	41.7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열악	12.3	7.7	12.6	14.3	-
계약기간이 만료	12.0	2.6	15.6	2.7	8.3
학업을 계속하게 됨	5.7	5.1	4.8	8.0	16.7
폐업이나 해고, 사업(일) 종료로 인해	2.5	5.1	1.3	4.5	16.7
동료 또는 상관과의 불화로	2.3	-	2.3	3.6	-
창업이나 개인 사업을 위해	0.5	-	0.3	1.8	-
건강상의 이유	0.2	-	0.3	-	-
현재도 일자리를 유지	25.4	-	29.2	22.3	8.3

주: [표 3-23] 문항에서 취업경험이 있는 560명을 대상으로 함

- 청년들은 취업활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희망조건에 맞는 일자리 부족’(60.9%), ‘전공이나 기술에 맞는 일자리 부족’(43.1%), ‘경기 침체로 채용기회 축소’(36.7%) 등을 주된 이유로 응답함

[표 3-25] 취업활동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희망하는 일자리 부족	전공(기술)에 맞는 일자리 부족	채용기회 축소	학력, 기능, 자격 불일치	근무시간, 근로환경 불안	일자리 정보 부족	성차별, 신체적 차별
전체	60.9	43.1	36.7	25.4	15.7	8.6	3.5
18~19세	55.9	31.4	36.3	36.3	20.6	11.8	2.0
20~24세	62.3	43.3	35.1	26.9	14.4	9.8	5.2
25~29세	61.1	46.7	38.6	20.3	15.4	6.2	2.3

- 구직활동에서 경험한 애로요인으로는 ‘시간적인 여유 부족’(39.6%), ‘경력을 쌓을 기회 부족’(38.1%), ‘취업준비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서’(36.7%) 순으로 나타남
 - 20~24세의 경우 ‘시간적인 여유 부족’(43.9%), ‘경력을 쌓을 기회 부족’(39.0%) 순으로 나타났으나,
 - 대학을 졸업한 연령인 25~29세는 ‘취업준비 자금 부족’(41.5%), ‘시간적인 여유 부족’(37.6%) 순으로 응답함

[표 3-26] 구직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요인(복수응답)

(단위: %)

구분	시간적 여유 부족	경력을 쌓기 어려움	취업준비 자금 부족	적성을 몰라서	직무 관련 자격증 부족	봉사 해외연수 기회 부족	외모나 신체적 결함
전체	39.6	38.1	36.7	30.3	23.4	14.2	6.5
18~19세	32.4	35.3	36.3	41.2	32.4	7.8	5.9
20~24세	43.9	39.0	32.1	31.1	21.0	15.1	7.9
25~29세	37.6	38.2	41.5	25.8	22.9	15.4	5.2

- 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의 경우 희망기업으로는 중소기업(26.9%), 공공기관(23.9%), 대기업(23.6%) 순으로 나타났음
- 연령이 낮을수록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응답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대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응답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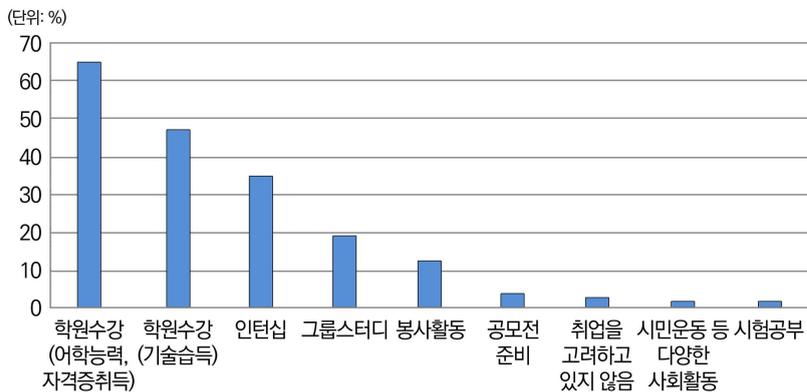
[표 3-27]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유형

(단위: %)

구분	사례 수	대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외국계 기업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시민사회 단체
전체	631	23.6	23.9	17.1	7.0	26.9	1.3	0.2
18~24세	366	14.8	22.7	16.9	7.9	35.8	1.9	-
25~29세	265	35.8	25.7	17.4	5.7	14.7	0.4	0.4

주: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631명을 대상으로 함

- 조사대상 청년들은 이와 같은 진로계획을 고려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취업준비활동으로 학원수강(어학 및 자격증취득 64.8%, 기술습득 47.0%)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인턴십(34.8%)이나 그룹스터디(19.2%), 봉사활동(12.5%) 등도 중요한 요소로 응답함
- 특히, 학원수강의 경우에는 어학학원 수강이 압도적인 가운데 일부 직무관련 학원도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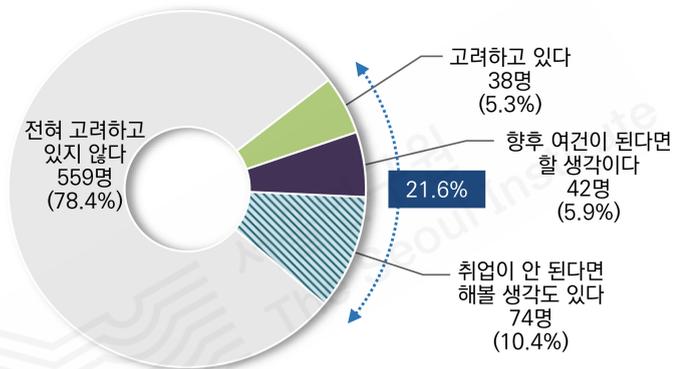
[그림 3-10] 취업을 위한 노력(복수응답)

[표 3-28] 학원수강 내용과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외국어 학원	한자능력검정 학원	컴퓨터 관련 학원	업무 관련 학원	인적성 시험 준비 학원
전체	52.2	0.3	14.0	23.6	3.4
18~19세	35.3	-	28.4	28.4	1.0
20~24세	47.2	0.3	18.0	24.3	3.6
25~29세	62.7	0.3	5.2	21.2	3.9

- 창업활동과 관련해, 실제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는 5.3%에 불과하며, 16.3%는 여건이 될 경우에 창업을 고려하는 소극적 의미의 창업자임



[그림 3-11] 창업에 관한 계획

- 진로목표로 창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로 '취업이 어려워서'(44.8%),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42.2%)라는 응답을 보임

[표 3-29] 창업을 진로로 선택하게 된 동기(복수응답)

(단위: %)

구분	취업난으로 인해	높은 수익 가능성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서	전문 영역을 키우고 싶어서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사회적 성공을 위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일의 탐색
전체	44.8	42.2	24.7	24.0	21.4	18.8	11.0
18~24세	44.3	43.2	26.1	23.9	19.3	21.6	11.4
25~29세	45.5	40.9	22.7	24.2	24.2	15.2	10.6

주: 창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154명을 대상으로 함

- 조사대상자는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 ‘창업 아이템 발굴선정’, ‘창업 관련 전문지식, 교육 및 기술훈련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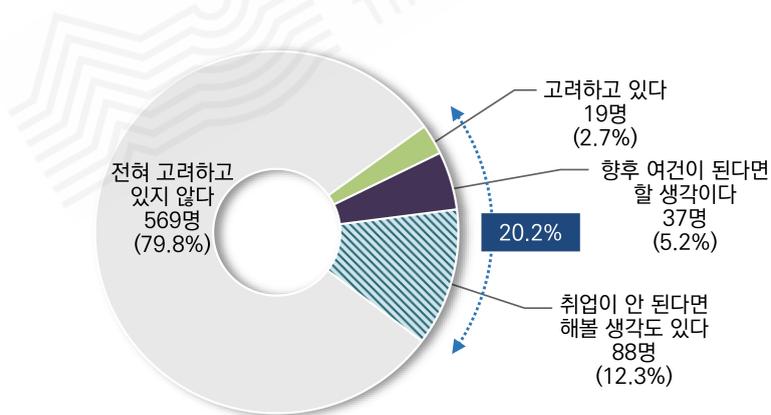
[표 3-30]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요소(복수응답)

(단위: %)

구분	창업 아이템 발굴선정	전문지식 교육 및 기술훈련 참여	창업을 위한 점포 입지 결정	창업 관련 정책에 참여	투자처 탐색을 위한 사전 조사	인맥 강화를 위한 창업 모임 참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
전체	60.4	53.2	27.3	16.2	14.9	13.6	6.5
18~24세	62.5	58.0	26.1	18.2	14.8	11.4	4.5
25~29세	57.6	47.0	28.8	13.6	15.2	16.7	9.1

주: 창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154명을 대상으로 함

- 진로목표로서 프리랜서에 대해 ‘프리랜서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2.7%로,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다만, 향후 여건이 되거나(5.2%), 취업이 안 되면 프리랜서를 고려(12.3%) 하는 잠재적 프리랜서가 일부 존재함



[그림 3-12] 프리랜서 희망 여부

- 프리랜서를 진로목표로 선택한 이유로는 ‘조직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서’(60.4%), ‘좋아하는 일을 골라 할 수 있어서’(42.4%) 등으로 응답함

[표 3-31] 프리랜서를 진로로 선택하게 된 동기(복수응답)

(단위: %)

구분	조직생활로 부터 해방	좋아하는 일의 선택	취업난으로 인한 대안	재능 및 기술의 활용	소득이 높을 것 같아서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양육가사 등과 병행 가능
전체	60.4	42.4	38.2	16.0	14.6	14.6	5.6
18~24세	61.5	39.7	39.7	16.7	16.7	9.0	7.7
25~29세	59.1	45.5	36.4	15.2	12.1	21.2	3.0

주: 프리랜서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144명을 대상으로 함

- 프리랜서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는 ‘동일 분야 취업을 통한 경력 확보’(56.3%),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54.2%) 등 취업성공 요건과 비슷한 인식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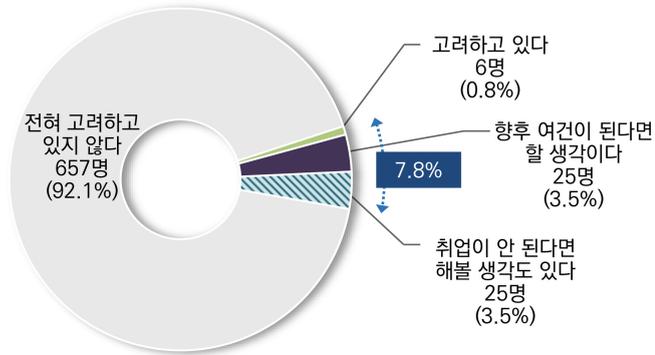
[표 3-32] 프리랜서로 성공하기 위한 요건(복수응답)

(단위: %)

구분	동일 분야 취업을 통한 경력 확보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 참여	관련 분야 교육프로그램 이수	관련 프로젝트 참여	관련 협회 회원으로 활동
전체	56.3	54.2	26.4	23.6	21.5	10.4
18~24세	61.5	60.3	23.1	19.2	19.2	10.3
25~29세	50.0	47.0	30.3	28.8	24.2	10.6

주: 프리랜서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144명을 대상으로 함

- 마지막으로 진로목표인 사회활동가에 대해서는 ‘사회활동가를 고려’하고 있는 청년은 0.8%로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향후 여건이 되면 프리랜서를 고려’(3.5%)하거나 ‘취업이 안 되면 고려’(3.5%) 하는 잠재적 프리랜서도 일부 존재함



[그림 3-13] 사회활동가 희망 여부

- 사회활동가를 진로의 목표로 선택한 사유로는 ‘추구하는 가치실현’(69.6%)과 ‘사회변화에의 기여’(46.4%) 등을 주된 이유로 응답함

[표 3-33] 사회활동가를 진로로 선택하게 된 동기(복수응답)

(단위: %)

구분	추구하는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변화에 기여하고 싶어서	시간이나 업무 방식의 자유로움	취업난의 대안으로 선택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전체	69.6	46.4	41.1	30.4	8.9
18~24세	65.5	48.3	48.3	27.6	6.9
25~29세	74.1	44.4	33.3	33.3	11.1

주: 사회활동가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56명을 대상으로 함

- 이 경우에 사회활동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강화 훈련참여’(66.1%), ‘시민단체 인턴십’(41.1%) 등이 중요 요건으로 인식함

[표 3-34] 사회활동가로서 성공하기 위한 주요 요건(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전문성 강화 훈련 참여	시민단체 인턴십	시민단체의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시민사회 관련 협회 회원 가입	동아리 및 동호회 참여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	사회활동 관련 저술활동
전체	66.1	41.1	32.1	25.0	17.9	8.9	8.9
18~24세	55.2	41.4	37.9	31.0	20.7	6.9	6.9
25~29세	77.8	40.7	25.9	18.5	14.8	11.1	11.1

주: 사회활동가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56명을 대상으로 함

(3)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조사대상 청년들은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해 2.83점(5점 만점)에 불과한 매우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나타냄
 - 연령별로 평가결과는 유사하나,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은 25~29세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3-35] 현재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단위: %)

구분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보통이다	다소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평균 점수 (5점 만점)
전체	5.3	27.6	46.1	20.8	0.1	2.83
18~24세	6.1	29.5	43.7	20.6	-	2.79
25~29세	4.2	25.2	49.3	20.9	0.3	2.88

-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에의 참여를 묻는 설문에 대해 청년들은 82.5%가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취업지원정책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6] 현재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에의 참여경험

(단위: %)

구분		취업지원정책 참여	창업지원정책 참여	취업지원과 창업지원 정책 모두 참여	없음
전체		12.8	1.4	3.4	82.5
연령	18~24세	9.8	1.2	2.7	86.2
	25~29세	16.7	1.6	4.2	77.5
최종 진로 목표	취업	13.5	0.8	2.2	83.5
	창업	7.0	8.8	12.3	71.9
	프리랜서/ 사회활동가	11.8	-	11.8	76.5

-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취업에 도움을 받기 위함’(72.8%)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취업이 진로목표인 청년은 ‘취업에 도움을 받기 위함’(79.8%)이 가장 높은 반면, 창업이 목표인 청년은 ‘창업에 도움을 받기 위함’(43.8%)이 가장 높음

[표 3-37] 현재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에의 참여 동기

(단위: %)

구분	취업에 도움	뭐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창업에 도움	경력 형성	직무능력 향상	금전적 도움	자격증 취득	
전체	72.8	8.8	6.4	4.8	3.2	3.2	0.8	
연령	18~24세	75.0	7.1	3.6	7.1	5.4	-	1.8
	25~29세	71.0	10.1	8.7	2.9	1.4	5.8	-
최종 진로 목표	취업	79.8	8.7	1.0	3.8	3.8	2.9	-
	창업	37.5	6.3	43.8	12.5	-	-	-
	프리랜서/ 사회활동가	40.0	20.0	-	-	-	20.0	20.0

주: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25명을 대상으로 함

- 청년들은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에의 참여가 가장 활발함
 - 이외에 ‘취업성공패키지’(29.6%), ‘청년취업아카데미’(26.4%), ‘내일배움카드제’(20.8%), ‘서울시 청년뉴딜일자리사업’(20.8%) 등도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나타냄

[표 3-38] 정부 취업지원사업에의 참여 정도(복수응답)

(단위: %)

구분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취업 아카 데미	내일 배움 카드제	서울시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일·학습 병행제	청년 강소 기업 체험	월드 프렌즈 코리아	스펙 초월 멘토 스쿨	
전체	40.8	29.6	26.4	20.8	20.8	16.8	9.6	6.4	5.6	
연령	18~24세	42.9	23.2	21.4	19.6	21.4	16.1	12.5	5.4	5.4
	25~29세	39.1	34.8	30.4	21.7	20.3	17.4	7.2	7.2	5.8
최종 진로 목표	취업	40.4	31.7	25.0	20.2	22.1	11.5	10.6	7.7	6.7
	창업	31.3	18.8	31.3	31.3	12.5	31.3	6.3	-	-
	프리랜서/ 사회활동가	80.0	20.0	40.0	-	20.0	80.0	-	-	-

주: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25명을 대상으로 함

- 청년들이 참여한 취업지원사업에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6~7점대를 기록한 가운데 취업성공패키지가 6.11점(10점 만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냄

[표 3-39] 취업지원정책 유형별 중 취업지원사업의 만족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점수 (10점 만점)
전체	-	0.8	1.6	4.8	14.4	16.8	42.4	18.4	0.8	-	6.50
취업성공패키지	-	-	5.4	16.2	13.5	5.4	45.9	13.5	-	-	6.1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	-	2.0	-	15.7	19.6	54.9	7.8	-	-	6.49
내일배움카드제	-	3.8	3.8	3.8	-	3.8	69.2	11.5	3.8	-	6.69
청년취업아카데미	-	-	3.0	3.0	15.2	24.2	33.3	21.2	-	-	6.45
일·학습병행제	-	-	-	-	14.3	19.0	38.1	23.8	4.8	-	6.86
청년뉴딜일자리사업	-	-	-	-	15.4	-	46.2	38.5	-	-	7.08
월드프렌즈코리아	-	-	-	-	-	-	12.5	87.5	-	-	7.88
청년 강소기업 체험	-	-	-	-	25.0	25.0	50.0	-	-	-	6.25
스펙초월 멘토 스쿨	-	-	14.3	-	-	-	28.6	57.1	-	-	7.00

주: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25명을 대상으로 함

-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에 도움이 못 된다'(48.0%)는 점과 '교육·훈련과정의 다양성 부족'(44.0%) 등을 많이 지적함
 - 이외, '교육·훈련 커리큘럼 부실'(35.2%), '훈련기관 선택의 제약'(29.6%) 등도 중요한 사유로 응답함

[표 3-40] 정부 취업지원정책의 불만족 사유

(단위: %)

구분	취업 능력 향상 미흡	교육 훈련 과정의 단순함	커리 큘럼 내용 부실	훈련 기관 선택 제약	까다 로운 통제와 관리 체계	별도의 참여 지원금 부재	강사의 자질과 역량 부족	불성실 한 취업 알선	운영 기관 상담 과정의 부실함	과다한 수강 인원
전체	48.0	44.0	35.2	29.6	28.8	24.8	18.4	17.6	16.0	14.4
취업성공 패키지	48.6	43.2	37.8	40.5	32.4	37.8	24.3	8.1	8.1	5.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47.1	35.3	33.3	27.5	47.1	31.4	17.6	19.6	17.6	17.6
내일배움 카드제	46.2	34.6	26.9	50.0	50.0	38.5	15.4	-	3.8	15.4
청년취업 아카데미	54.5	66.7	39.4	18.2	12.1	9.1	27.3	12.1	6.1	24.2
일·학습 병행제	28.6	47.6	23.8	14.3	23.8	4.8	19.0	23.8	28.6	42.9
청년뉴딜 일자리사업	19.2	34.6	11.5	26.9	38.5	50.0	11.5	42.3	46.2	7.7
월드프렌즈 코리아	12.5	12.5	12.5	-	-	75.0	-	75.0	75.0	-
청년 강소기업체험	50.0	25.0	16.7	58.3	66.7	25.0	8.3	8.3	8.3	-
스펙초월 멘토스쿨	14.3	14.3	14.3	-	14.3	71.4	-	71.4	71.4	14.3

주: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25명을 대상으로 함

- 청년취업지원사업과 달리, 정부의 청년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참여경험이 5%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 창업을 목표로 한 청년의 경우에도 사업참여경험은 24.6%에 불과함

[표 3-41]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참여경험 여부(복수응답)

(단위: %)

구분	참여경험		창업지원사업					
	없음	있음	청년창업 사관학교	창업선도 대학 육성사업	학교기업 지원사업	대한민국 창업리그	챌린지100 프로젝트 (서울시)	
전체	95.0	5.0	1.3	1.4	1.4	0.8	0.6	
최종 진로 목표	취업	96.5	3.5	1.0	1.1	0.8	0.3	0.6
	창업	75.4	24.6	5.3	5.3	8.8	7.0	-
	프리랜서/ 사회활동가	100.0	-	-	-	-	-	-

-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는 만족도는 전체 6.22점(10점 만점)으로 크게 낮은 수준임
 - 가장 낮은 만족도로 나타난 사업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5.80점)’으로 유일하게 5점대의 만족도를 보임

[표 3-42]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점수 (10점 만점)
전체	2.8	2.8	-	-	13.9	33.3	33.3	13.9	-	-	6.22
청년창업사관학교	-	-	-	-	22.2	33.3	44.4	-	-	-	6.22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10.0	-	-	20.0	30.0	40.0	-	-	-	5.80
학교기업지원사업	10.0	-	-	-	-	30.0	20.0	40.0	-	-	6.50
대한민국 창업리그	-	-	-	-	33.3	16.7	33.3	16.7	-	-	6.33
챌린지100프로젝트 (서울시)	-	-	-	-	-	50.0	50.0	-	-	-	6.50

주: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6명을 대상으로 함

- 그 이유로는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63.9%)는 것으로, 취업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함

[표 3-43] 정부 청년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불만족 사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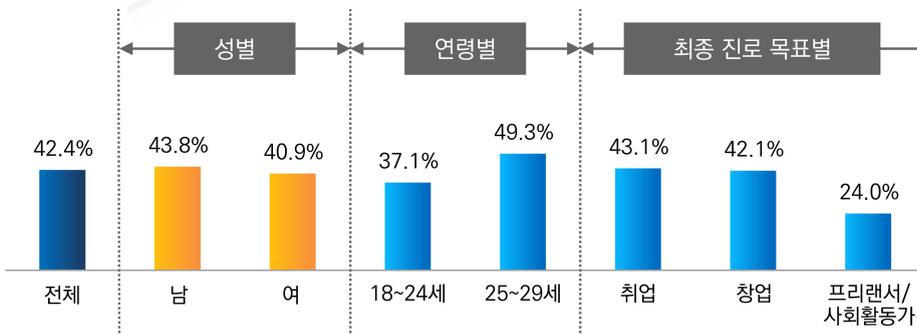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함	창업 지원금의 용처가 제한적임	창업 지원금 규모가 충분치 못함	지원 기관의 소홀한 관리	지원 기관의 까다로운 통제와 관리체계	지원 기관의 편향적 관리
전체	63.9	55.6	38.9	22.2	11.1	2.8
청년창업사관학교	22.2	66.7	33.3	33.3	33.3	-
챌린지100프로젝트(서울시)	100.0	25.0	75.0	-	-	-

주: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6명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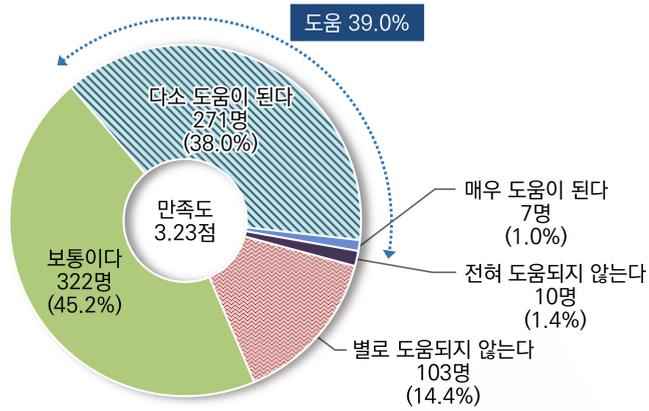
(4)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조사대상 청년들의 42.4%가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학을 졸업한 시기인 25~29세가 18~24세보다 인지도가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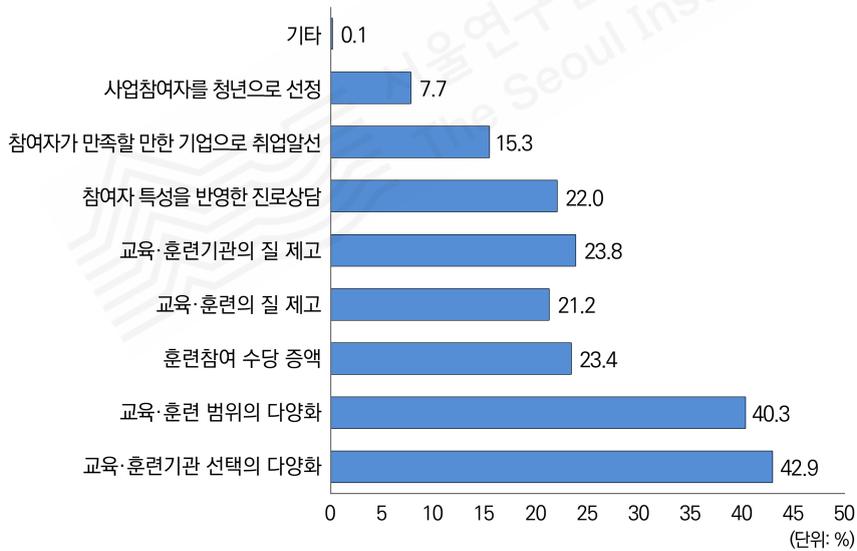


[그림 3-14]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인지 여부

- 취업성공패키지의 정책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약 40% 정도만 도움이 된다고 응답



[그림 3-15] 취업문제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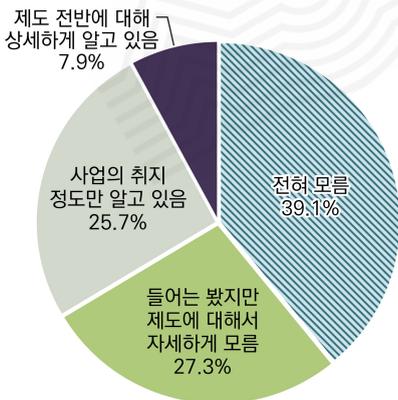


[그림 3-16]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개선사항(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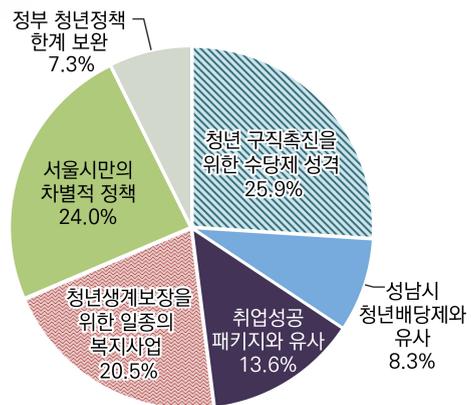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개선사항으로는 ‘교육·훈련기관 선택의 다양화’(42.9%)와 ‘교육·훈련 범위의 다양화’(40.3%)를 지적함([그림 3-16])
 - 이외에 훈련수당의 증액(23.4%), 교육·훈련시설의 질 제고(23.8%) 등도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응답함

(5)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수요

- 본 실태조사에서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수요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짐
- 우선,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1/3 정도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 이는 최근 정부와의 협의를 둘러싼 논란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데 기인함
- 이 경우에 ‘정부사업과 차별적·보완적인 사업’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외, ‘구직촉진을 위한 수당제 성격의 사업’(25.9%), ‘기존 정부사업과 다른 서울시만의 차별적 정책’(24.0%)으로도 이해되고 있음



[그림 3-17] 청년활동지원사업 인지 여부



[그림 3-18]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다수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나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응답함
 - 사업에 대해 모르거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3-44]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기대효과

(단위: %)

구분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함	효과가 있을 것이나, 명확한 사업 관리·운영 필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며, 사업 전반을 재설계해야 함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사업추진을 재고해야 함
전체		9.1	52.6	32.3	6.0
사업 인지	전혀 모르고 있음	7.5	53.4	31.9	7.2
	들어보기만 함	7.2	44.1	40.0	8.7
	취지만 알고 있음	8.7	57.4	31.1	2.7
	상세히 알고 있음	25.0	62.5	10.7	1.8

- 이 사업의 합목적성, 즉 ‘이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 청년의 취업 및 창업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53.6%)과 생활비 지원(44.7%)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가운데,
 - 다양한 사회활동 비용 지원(28.6%), 저소득층 청년의 생활고 지원(24.8%), 은둔형 미취업자 지원(11.9%) 등도 비교적 중요하게 인식됨

[표 3-45]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합리적 목적(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률
청년의 취업 및 창업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53.6
청년의 부족한 생활비 총당	44.7
다양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 지원	28.6
저소득층 청년의 생활고 지원	24.8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20.5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12.8
은둔형 미취업자(히키코모리) 지원	11.9

- 사업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는 ‘적정한 대상자 선정’(44.6%)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함
 - 이와 함께, ‘지원활동의 다양성 보장’(30.7%), ‘정부 유사사업과 차별화’(28.8%), ‘적정수준의 지원액 책정’(25.4%), ‘적정기간의 사업 참여기간 설정’(18.7%)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표 3-46]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제도설계 시 고려사항(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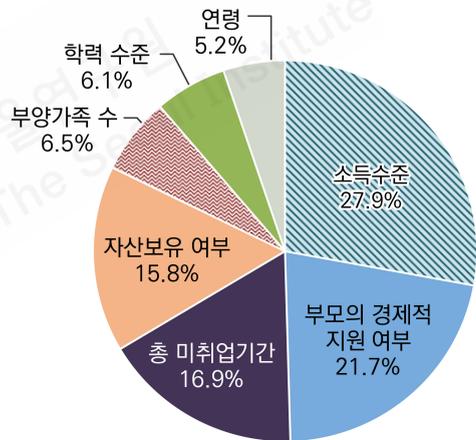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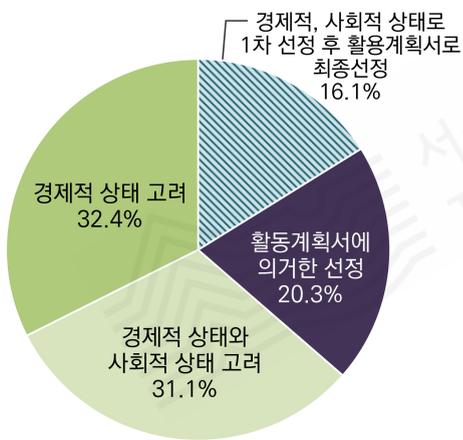
구분	응답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정	44.6
지원하는 청년활동의 다양성 보장	30.7
정부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28.8
적정수준의 활동지급액 책정	25.4
적정기간의 사업 참여기간 설정	18.7
청년활동에 대한 사업운영기관의 부당한 관리 경계	14.6
사업운영기관의 전문성 확보	13.6
사업운영기관의 실적 위주 운영 경계	9.1
부적격자의 사업 참여 배제	7.2
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	3.4

[표 3-47]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방식

(단위: %)

구분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에게 모두 지원	사업 참여 신청자 일부를 선별하여 지원	청년 계층에 모두 지원	신청한 청년층 일부를 선별하여 지원
전체		29.2	41.0	18.2	11.6
사업 인지	전혀 모르고 있음	30.5	38.0	20.1	11.5
	들어보기만 함	30.8	41.0	21.0	7.2
	취지만 알고 있음	31.1	42.6	16.4	9.8
	상세히 알고 있음	10.7	50.0	5.4	33.9

- 적절한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신청자 일부를 선별하여 지원’(41.0%) 응답이 가장 많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모두 지원’(29.2%)과 같은 보편주의적 방식에 대한 선호도 일부 존재함([표 3-47])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적절한 방식으로는 ‘개인의 경제적 상태에 의거한 선정’(32.4%), ‘개인의 경제적 상태와 사회적 상태에 의거한 선정’(31.1%) 등을 상대적으로 선호함
- 경제적·사회적 기준을 고려하는 경우, 구체적 기준으로는 ‘소득수준’(27.9%),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42.2%) 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함
 - 이외에 총 미취업기간이나 자산보유 여부 등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됨



[그림 3-19]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방식

[그림 3-20]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저소득층 미취업자’(35.6%)와 ‘장기 실업자’(25.2%)를 많이 제시함
 - 특히,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에 ‘저소득층 미취업자’, ‘장기 실업자’에 대한 응답률이 높음

[표 3-48]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우선적 지원대상

(단위: %)

구분	사업 인지 정도				
	전체	전혀 모름	들어 보기만 함	취지만 알고 있음	상세히 알고 있음
저소득층 미취업자	35.6	33.7	34.9	35.5	48.2
졸업유예자	17.8	19.4	17.4	18.0	10.7
장기 실업자	25.2	21.5	26.7	27.3	32.1
저학력 미취업자	5.6	6.8	2.6	8.7	-
은둔형 미취업자	2.0	1.4	3.1	1.6	1.8
구직단념자	2.0	2.2	3.1	-	3.6
사회·공익활동에의 적극적 참여자	2.1	2.9	1.5	2.2	-
예비창업자	1.5	1.8	2.6	0.5	-
협동조합 설립준비자	0.8	1.1	0.5	-	3.6
우선순위를 둘 필요는 없음	7.3	9.3	7.7	6.0	-

- 경제적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해야 할 대상은 '차상위 계층'(35.1%)으로 응답함

[표 3-49] 경제적 기준을 고려한 지원대상자 세부 선정기준

(단위: %)

구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자	스스로 생계를 영위하는 자	채무압박이 심한 자
전체	25.1	35.1	19.5	14.6	5.8
전혀 모르고 있음	26.9	31.9	17.6	14.7	9.0
들어보기만 함	27.7	29.2	23.6	15.4	4.1
취지만 알고 있음	19.7	41.5	21.3	14.2	3.3
상세히 알고 있음	25.0	50.0	8.9	12.5	3.6

-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등록비 지원'(72.9%)을 포함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함

- 특히, 자격증 취득과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수강비(62.6%), 교재구입비(34.1%), 비급여형 인턴활동 지원비(28.2%), 그룹스터디 운영비 지원(23.7%), 등으로 응답

[표 3-50]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

(단위: %)

구분	응답률
사례 수	71.3
자격증취득을 위한 시험등록비 지원	72.9
자격증취득, 어학능력 향상 등을 위한 학원수강	62.6
교재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	34.1
급여를 받지 않는 인턴십 활동	28.2
봉사 및 공익활동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14.4
취업 준비를 위한 스터디 운영 지원	23.7
취업·창업을 위한 공모전 준비 지원	16.5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11.8
창작활동	6.0
여가활동비 지원	5.2
다양한 모임에 필요한 공간 확보 지원	10.7
지원대상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9.7
기타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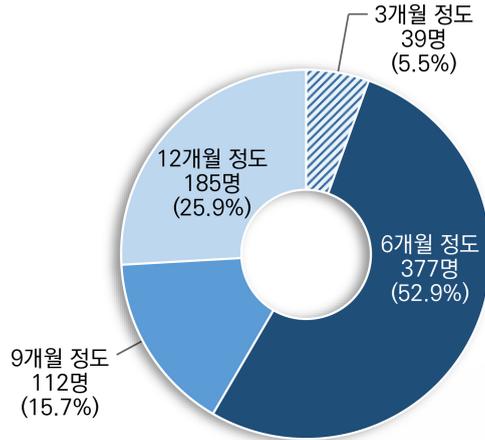
- 한편, 지원사업의 지원금 규모(액수)와 지급기간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별로 다양한 요구가 존재함
 - 지원금 규모의 경우, 교통비~교재비 또는 교통비~주거비를 포함하는 수준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1]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금 적정규모

(단위: %)

구분	응답률
교통비 및 식비, 학원비 및 교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	42.4
교통비 및 식비, 학원비 및 교재비, 주거비 정도	31.4
교통비 및 식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	13.7
교통비 및 식비, 학원비 및 교재비, 주거비, 이외 취업준비에 필요한 사항	12.5

- 활동지원금의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에 대한 응답이 52.9%로 가장 높으나, ‘12개월 정도’에 대한 응답도 적지 않음



[그림 3-21] 청년활동지원금 적정 지급기간

-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성공적 요건으로는 ‘사업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29.0%), ‘적정한 대상자 선정’(24.5%)을 지적함
 - 이외에도, 취창업에서의 실질적 도움 제공도 중요한 요소로 지적됨

[표 3-52]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단위: %)

구분	사례 수	참여자 선정과정 투명성·공정성 확보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	성공적인 취(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기존 정책과 차별화	적절한 활동지원 금액과 지원기간의 설정	지원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응답률	713	29.0	24.5	18.8	11.8	11.1	4.8

-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으로는 ‘청년활동 관련 기존 정책 및 기관과의 연계협력’(38.1%)을 가장 우선적인 요소로 지적함
 - 이외에 전산관리를 통한 활동의 주기적 모니터링이나 활동진행 보고서 제출에 의한 점검 등도 효과적인 관리방안으로 인식함

[표 3-53]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시행될 때 청년활동의 적절한 관리방안

(단위: %)

구분	전산관리를 통한 활동 이행여부 주기적 점검	기존 청년활동 지원정책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	특정기관 출석에 의한 주기적 점검	활동보고서 제출에 의한 주기적 점검	별도의 이행여부를 관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활동 계획서에 기반한 목표달성 여부 관리	
전체	24.0	38.1	12.9	15.3	2.9	6.7	
사업 인지 정도	전혀 모르고 있음	26.2	38.7	11.5	12.9	4.3	6.5
	들어보기만 함	16.4	42.6	18.5	10.3	3.1	9.2
	취지만 알고 있음	28.4	31.1	10.9	23.0	1.6	4.9
	상세히 알고 있음	25.0	42.9	7.1	19.6	-	5.4

3_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청년의 88.5%는 “취업”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으며, 취업을 위한 다양한 준비 및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
 - 일부 창업, 프리랜서, 사회활동가 등으로의 진로도 고려하고 있음
- 취업을 위한 준비로는 어학능력 향상, 자격증취득, 기술습득을 위한 ‘학원수강’이 가장 많았음
 - FGI 조사에 따르면, 취업에 요구되는 스펙이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스펙은 취업뿐만 아니라 인턴, 프로젝트 지원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에 참여한 청년의 47.0%는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48.0%에 달함
 - 지출비용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함
 - 청년들의 지출 비용은 평균적으로 식비(27.0%), 교통·통신비(20.4%), 여가·문화생활비(17.0%), 학원비(16.5%)로, 이는 지출액의 80.9%를 차지함

- 전 연령층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취업 및 구직을 지목하고 있으며, 청년들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 모든 연령대에서 비교적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교육훈련기관 및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훈련수당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운영기관의 실적중심 운영, 민간부문과의 연계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청년들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효과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음
 - 사업의 효과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어,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낮음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합리적 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취창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청년은 '부족한 생활비 총당'에 대한 요구도 존재함
- 사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적정한 대상자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청년활동의 다양성 보장'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 적정한 대상자 선정 방식으로는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자 일부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음
 - 대상자 선정 방식은 '개인의 경제적 상태' 혹은 '개인의 경제적 상태와 사회적 상태'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가장 선호함
 - 경제적 기준을 고려할 경우 '차상위 계층', 경제적·사회적 기준의 경우 '소득 수준'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함
 - 이런 맥락 속에서 '저소득 미취업자', '장기 실업자에게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지원대상활동에 대한 응답에는 '학원수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창업 활동 및 여가

- 활동 등 기존 정부의 청년정책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적정 활동지원금 규모는 교통비 및 식비, 학원비 및 교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활동지원금 지급기간은 모든 연령층에서 6개월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음
 - 청년활동의 적절한 관리방안으로는 기존 정책 및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활동이행 여부의 주기적 점검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남
 - 이러한 FGI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업의 합목적성과 효과성에 토대를 두고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취창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이는 정부가 운영했던 기존 청년정책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실제 취창업 활동에 부합할 수 있음
 - 둘째, 실적 중심의 운영과 민간부문과 연계되는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벗어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현장연계형 관리운영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책 수요자의 요구와 사회적 인식에 따라 대상자의 선정체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방법이 필요함
 - 넷째, 청년활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수행됨과 더불어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04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제도화 방안

- 1_ 예비적 논의: 사업의 주요 쟁점 검토
- 2_ 지원대상자 선정체계
- 3_ 지원대상활동과 청년활동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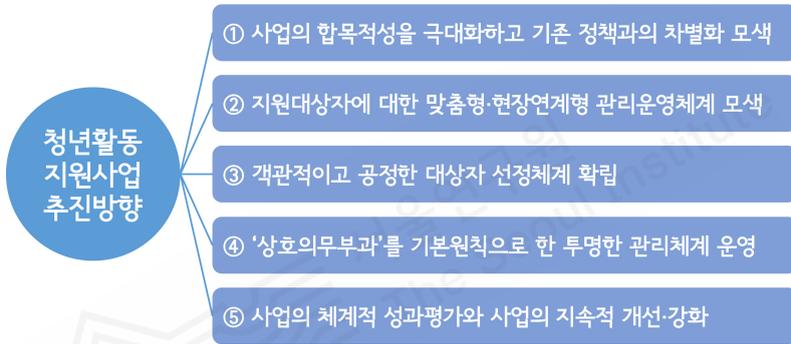
04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제도화 방안

1_예비적 논의: 사업의 주요 쟁점 검토

1)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기초 현황

- 서울시는 2015년 11월 5일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 서울형 청년보장, Seoul Youth Guarantee)’을 발표함
 - 일자리 저하, 빈곤의 세습 등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특정한 생애 주기를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보편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마련한 조치
 - 졸업유예, 청년 니트, 초단시간근로자 등 ‘사회 밖 청년’을 다각도로 지원해 기본적 활동, 자립토대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둠
 - ‘서울청년보장플랜’은 설자리/일자리/놀이자리/살자리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향후 5년간 약 7,1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 ‘서울청년보장플랜’의 4개 분야 중 ‘설자리’에 해당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 밖 청년’에 최소한의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청년 니트 중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에게 2개월~6개월 월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며,
 - 활동지원금은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함
 -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19세~29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중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로서, 활동계획서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발함
 - 서울시는 2016년 시범사업으로 3,000명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발표 이후, 2015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로서 서울시에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
 - 서울시는 2016년 2월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 2016년 3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요청서」를 작성·제출함
- 앞서 청년층 및 연령별 정책수요 조사에 부합하여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고려함
 - i) 사업의 합목적성을 극대화하고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 모색
 - ii) 지원대상자에 대한 맞춤형·현장연계형 관리운영체계 모색
 - iii)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체계 확립
 - iv) '상호의무부과'를 기본원칙으로 한 투명한 관리체계 운영
 - v) 사업의 체계적 성과평가와 사업의 지속적 개선·강화



[그림 4-1]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추진방향

2) 사업의 추진방향

(1) 사업의 합목적성을 극대화하고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 모색

-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고 정책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 목적이 설정되어야 함
 - 현재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사회참여 역량 제고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사회참여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는 의미가 다양하고 포괄하는 범위도 넓어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회참여 역량 제고를 중심으로

한 사업의 합목적성이 보다 분명해져야 함

- 이에 대해서는 4장의 ‘3) 사업의 기본모델 설정: 2가지 제도적 모델 검토’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함
- 아울러 사업의 제도적 틀을 설계함에 있어서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일부 정책, 가령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이나 ‘청년인턴제’ 등과 차별화 내지 보완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의 설계가 필요함
 - 현재의 여건을 고려 시, 지원대상/지원대상활동의 범위/사업의 관리운영체계 등을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함
- 지원대상자 측면에서의 차별성 모색
 - 기존의 제도와 같이 자격이 되는 사람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보다는,
 - 지원이 시급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선별주의적 방식의 “사회적 약자 배려형”의 모델을 모색함
- 지원대상활동 측면에서의 차별성 모색
 - 기존의 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직업훈련 성격의 학원수강을 전제로 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이용상의 경직성이 강함
 - 새로운 청년활동지원사업은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보다 “유연한” 운영모델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청년활동지원사업은 학원수강과 같이 경직적 조건을 단서조항으로 두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모두 현금수당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열거형 방식, Positive List)

(2) 지원대상자에 대한 맞춤형·현장연계형 관리운영체계 모색

- 지원대상자의 요구나 여건을 세심하게 고려한 맞춤형 관리운영체계를 구축
 - 기존의 사업이 대상자의 요구나 여건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추진되어 실효성이 미흡했음
 - 이러한 제약요건을 고려해, 지원대상자의 여건과 요구를 반영한 ‘활동계획서’

기반의 지원체계를 구축함

- 이 경우에 ‘활동계획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하되, 그 작성과 이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체계(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 등)를 마련
- 아울러, 금전적 지원(현금수당)과 함께, 청년활동(진로준비활동 등)을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금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
- 비금전적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청년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풀뿌리 운영주체들이 참여하는 ‘현장연계형 지원체계’를 구축함¹⁰⁾

(3)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체계 확립

-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잠재적 지원대상 청년 중 소수를 선정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선별주의 원리에 기초함
- 이와 관련해 현재 제시된 사업내용을 고려 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잠재적 지원대상자는 대규모로 추정되고 있음
 - 「복지패널」¹¹⁾을 활용해 추정해 볼 때, 만 19~29세의 청년 니트는 약 63만 3천 명 정도로 추정됨
 - 이 가운데 경제활동 청년은 약 41만 3천 명, 비경제활동 청년은 약 21만 9천 명으로 추정됨

¹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5장 4절을 참조할 것

¹¹⁾ 한국복지패널은 가구별가구원별 소득과 지출, 거주환경, 고용상태 등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된 빈곤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기 위해 조사된 자료로서 빈곤계층의 규모, 생활실태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 주로 활용됨. 이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의 규모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청년층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의 항목들을 활용하였음

- 경제활동 참여상태 유형에 따라 잠재적 지원대상자를 경제활동 청년(실업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과 비경제활동 청년(재학생, 휴학생을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으로 구성
- 경제활동참여 상태의 유형은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④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청조건 중 '주 30시간 미만 종사자의 조건은 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 조건을 임시일용직 근로자 여부'로 같음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추출하기 위해, 가구별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소득, 금융소득 등) 자료를 활용함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잠재적 지원대상자 규모의 추정방법>

- 지원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잠재적 규모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추정함
- ①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2014) 자료의 조사항목 중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득인정액 산출 기준에 기초해 자료를 재가공하여 서울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였음
- ② 위에서 가구별로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를 추출
- ③ ②과정에서 추출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만 19~29세 청년을 다시 추출
- ④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의 수를 기준으로 한국복지패널에서 추출된 청년의 수를 단순비율계산하여 잠재적 지원대상자 규모를 추정하였음

- 청년 니트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¹²⁾의 청년은 약 12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약 5만 5천여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6만 5천여 명으로 나타남

12)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별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계층은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함
- ①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임
- ②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56만 원)}+기타소득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음
--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서울은 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임

[표 4-1]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원대상 기준에 따른 잠재적 지원대상자(신청가능자) 수

(단위: 명)

구분	사업의 잠재적 지원대상자 수	경제활동 청년		비경제활동 청년	
		전체	실업자 임시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재학생 휴학생 제외
청년 니트	633,189	807,690	413,816	762,819	219,373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19,658	64,815	54,843	154,558	64,815

주: 2015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층 규모는 1,570,509명임(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실업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정의함
 허선·이수진(2012)의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였으며, 정확한 수치는 아님

자료: 한국복지패널(2014)

(4) ‘상호의무부과’를 기본원칙으로 한 투명한 관리체계 운영

- 현재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선심성 사업여부 등임
 - 이 지원사업이 공적부조의 복지서비스라는 점에서 기존 복지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 또는 낭비성선심성 사업으로 흐를 수 있다는 등의 우려임
 - 이러한 논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설계 시, ‘상호의무부과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의 공적지원 의무(즉,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수당 지급)에 상응해 지원대상자는 자기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설계 필요

<표>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주요 급여종류별 선정기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937,402	1,596,118	2,064,818	2,533,520	3,002,221	3,470,922	3,939,623

-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개인별 활동의 목표와 활동계획 등을 수립이행하도록 자기의무를 부과함
- 이에 기초해, 활동의 이행여부와 수당의 지출에 대해 상호협의를 거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마련함
- 이러한 상호의무부과원칙의 적용은 다양한 사업효과가 기대됨
 - 우선, 상호의무부과원칙은 앞서의 열거형 방식(Positive List) 운영모델의 도입과 더불어 정부급여(기령, 기초생활수급)와의 중복수급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활동계획서에 수반된 목표체계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목표에 의한 성과관리체계’가 가능하도록 함
 - 즉, 활동지원금을 단순 급여성이 아닌 특수목적성을 가진 지원금 성격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급여와의 중복수급 문제에서 탈피 가능

(5) 사업의 체계적 성과평가와 사업의 지속적 개선강화

- 선 시범사업 후, 사업의 개선 및 확대 시행
 - 2016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함으로써 사업에 따른 효과나 관리운영상의 개선사항을 파악함
 - 이를 위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체계적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별도의 평가체계 구축 필요
- 시범사업 추진에 기초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운영의 효율화 모색
 - 지원금 수준/지원기간/지원대상자 규모/지원대상자의 선정, 관리운영체계 전반의 개선을 모색함

3) 사업의 기본모델 설정: 2가지 제도적 모델 검토

- 앞서 추진방향에서 고려된 바와 같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이 구체화되고, 그것을 토대로 지원대상이 되는 집단과 활동의 범위가 도출되어야 함

- 사업의 취지, 지원대상 집단과 지원대상활동의 범위를 고려해 2가지의 차별적인 제도적 모델을 설정함
- 각각의 제도적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이 가운데 적정 모델을 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도출함
- 이 연구에서 고려된 2가지 모델은 ‘청년사회참여촉진수당 모델’(A모델)과 ‘청년취(창)업활동촉진(청년진로준비지원)수당 모델’(B모델)임
 - ‘청년사회참여촉진수당 모델’(A모델)은 프랑스의 가랑띠 쥘 정책이나 일본 요코하마시 니트 지원프로그램처럼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참여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에 해당함
 - ‘청년취(창)업활동촉진수당 모델’(B모델)은 노인 사회활동참여 지원사업에서 처럼 미취업 상태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구직준비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모델로, 이 연구의 청년층 정책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도출됨
 - 각 모델은 사업의 목적이 반영된 목표집단에서 근본적인 차별성을 보이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활동이나 지원대상자 식별 등에서도 차별화됨
- ‘청년사회참여촉진수당 모델’(A모델)의 주요내용
 - 목표집단: 사회참여 활동에의 욕구 및 의지가 강한 자 중에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청년을 주된 목표집단으로 함
 - 지원대상활동: 청년의 사회참여역량 강화에 필요한 활동(지역 커뮤니티 활동, 봉사활동, 시민사회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하되, 이외 사회참여와 연관된 활동(직업훈련, 창작활동 등)을 포함함
 - 지원대상자 식별: 대상자가 가지는 사회참여의 의지와 욕구 파악을 위해서는 사회참여에 관한 세부 활동계획(서) 평가가 필요
 - 지원범위: 사회활동이 가지는 다양성이나 광범위한 성격을 고려 시, 유흥비를 제외한 것으로서 개인의 판단에 따른 자유로운 지출가능
- ‘청년취(창)업활동촉진수당 모델’(B모델)의 주요 내용
 - 목표집단: 취업이나 창업 또는 그에 준하는 진로를 준비하는 활동을 수행하

는 미취업 청년층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상 지원이 시급한 자를 주요 목표집단으로 함

- 지원대상활동: 개별 청년들의 진로목표와 그 실현(이행)을 준비하는 데 관련된 다양한 활동(어학학습, 자격증 취득, 직무관련 학원등록, 교재구입, 시험 등록, 공익·봉사 활동 등)
- 지원대상자 식별: 대상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여건 등 객관적 조건을 토대로 한 대상자 식별 필요
- 지원범위: 취업준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간으로 하되, 이외 공익·봉사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포함함

[표 4-2] 청년활동지원사업의 2가지 제도적 모델

구분	청년사회참여촉진수당(A모델)	청년진로준비지원수당/ 청년취(창)업활동촉진수당(B모델)
지원 목적	· 청년들의 사회참여 촉진 · 사회참여 활동 관련 생계비 지원	· 취업취약청년의 구직활동 촉진 · 취업준비를 위한 활동비 지원
목표 집단	저소득 미취업자를 기본 대상으로 함 ·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 및 의지가 강한 자 ·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청년을 우선 선정	·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극히 취약한 청년 · 취업지원이 매우 시급한 자를 우선 선정
지원 대상 활동	· 청년의 사회참여역량 강화에 필요한 활동 - 지역 커뮤니티 활동, 봉사활동 - 시민사회 활동 - 사회적경제 활동 · 이외의 사회참여와 연관된 활동 - 직업훈련, 창작활동	·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 - 직접활동: 어학학습, 자격증 취득, 직무관련 학원 등록, 교재구입, 시험 등록, 스터디그룹 운영, 공모전 준비 - 간접활동: 공익·봉사 활동 등
지원대상 식별	사회참여활동계획 평가에 대한 식별	대상자가 처한 객관적 조건에 의한 식별
지원 범위	· 사회참여 활동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생계비 지원 · 유흥비를 제외한 용도에 자유롭게 사용가능	· 취업준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간접비용: 식비, 교통비 - 직접비용: 교재비, 시험등록비, 어학학습비 등 · 공익 봉사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

○ 제도적 모델의 비교 평가

- A모델은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활동지원금 사용에서의 자율성이 매우 큼
- 그러나 A모델은 현재 미취업 상태의 청년층 대다수의 정책수요와 부합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불합리성 등의 단점이 존재함
- 반면, B모델은 취업성공패키지와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활동지원금 사용이 다소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나,
- 현재 미취업 청년의 현실과 정책수요에 잘 부합하며, 대상자 선정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 존재

[표 4-3] 사업의 기본모델별 장·단점

구분		청년사회참여촉진수당 (A모델)	청년진로준비지원수당/ 청년취(창)업활동촉진수당(B모델)
모델 비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참여 욕구가 강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적 · 대상자 입장에서 지원금 사용을 탄력적으로 사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여건이 시급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존재 · 미취업 청년의 정책수요를 비교적 잘 반영함 · 지원대상자 선정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공정성 확보가 용이함 · 정책 성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가능성이 높고, 성과측정도 비교적 용이함 · 지출의 목적과 수단의 연관성이 높아 청년들의 실제 취업준비에 효과적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업 청년 다수의 정책수요와 차이 존재 ·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역설: 사회참여계획에 대한 식별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원 목적과 대상목표집단 간의 불일치 초래 · 활동계획서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따른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발생 · 성과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성과를 정량적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움 · 지출의 목적인 사회참여와 결과인 생계비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불분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활동이 취업준비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은 낮음 · 식비, 교통통신비, 의료비 등 지원금 사용처가 비교적 제한적임

- 이 연구에서는 상술한 2가지 모델의 비교 평가를 고려해 볼 때 ‘청년취(창)업활동 촉진수당’ 내지 ‘청년진로준비지원수당’ 모델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함
 - 특히, ‘청년 취(창)업활동촉진수당 모델’은 현재 청년층 대다수가 처한 객관적 여건, 그리고 청년들이 가지는 정책수요와의 부합 등 비교적 현실적 타당성이 높음
 - 실제, 이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대부분 자신의 향후 진로로 취업(88.5%)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취업준비활동으로 학원수강(어학 및 자격증 취득 64.8%, 기술습득 47.0%)에 국한하지 않고 인턴십(34.8%), 그룹스터디(19.2%), 봉사활동(12.5%) 등 다양하게 나타남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청년들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취해야 할 합리적 목적에 대해 ‘취창업 활동비 지원’이나 ‘부족한 생활비 지원’ 등을 우선적 요소로 요구함
- 상술한 ‘청년취(창)업활동촉진수당 모델’(B모델)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은 2가지 원리에 기초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운영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청년취(창)업활동촉진수당 모델은 선별주의에 의거하는 모델이므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지원의 시급성” 관련 기준 정립이 필요
 - 정책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당사자들은 ‘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대상자 선정’(44.0%)과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자 중 일부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별’(41.0%)을 우선적 선정기준으로 인식

2_지원대상자 선정체계

1) 추진방향

-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선정체계를 구축함
 - 신청자들은 지원대상자 선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나,

- 대규모 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는 사업의 성격상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취하게 되면 과도한 행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 공정성과 효율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선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격조건' 심사만으로 선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급적 자격조건 심사와 함께 객관적 조건(지표)으로 구성된 '선정심사'를 종합해 선정함
 - 대상자 자격조건은 이미 설정된 만 19세~29세 청년 중 정기소득이 없는 미 취업자를 기준으로 함
 - 당초 서울시 발표에서는 '활동계획서 심사'에 의해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은 계획서 작성이 쉽지 않은 역설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 여기서 활동계획서는 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사업의 관리운영 수단으로 활용함
- '선정심사'는 신청자의 경제·사회적 시급성이나 활력도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기준(지표)을 병행함
 - 개인이 처한 객관적 여건(환경)을 적극 고려할 수 있고, 선정의 공정성도 기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가급적 선정함
 - 다만, 사업의 실효성이나 효과(성과관리) 등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청자의 역량과 의지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기준도 고려함
 -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 간 배점은 대상자 선정의 변별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
- 정량적 기준은 신청자의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을 확인하는 지표, 정성적 기준은 활동에 대한 의지, 활동의 내용 및 시급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함
 - 정량적 지표: 경제적, 사회적 조건으로 구성되며, 두 가지 조건이 동일한 수준으로 고려되도록 두 지표의 비중을 비교적 동등하게 구성함
 - 정성적 지표: 사회활동 참여 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 진로계획의 적절성, 지원의 시급성, 심리적 안정성 등을 대면면접을 통해 심사함
- 신청 당시의 상황, 특히 지원 신청 규모에 따라 변별력과 행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선정절차와 기준을 차별화하는 ‘가변적 대상자 선정체계’를 운용함

- 신청인원이 과다(3천 명을 크게 상회)할 수 있으므로 3배수를 기준으로 2가지 대안적 방식의 선정체계를 고려(※ 대상자 선정체계 참조)

2) 주요 고려사항

- 자격조건, 특히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원 제외 대상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제외대상자의 지원 신청에 따른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을 공고하는 시점에서, 지원 제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도록 함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선정심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정위원과 실무진을 구성함
- 선정심사가 완료된 시점을 전후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련함
 - 면접심사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원대상자를 선정발표하고, 활동계획서 작성과 이행지원 등의 지원활동을 신속하게 이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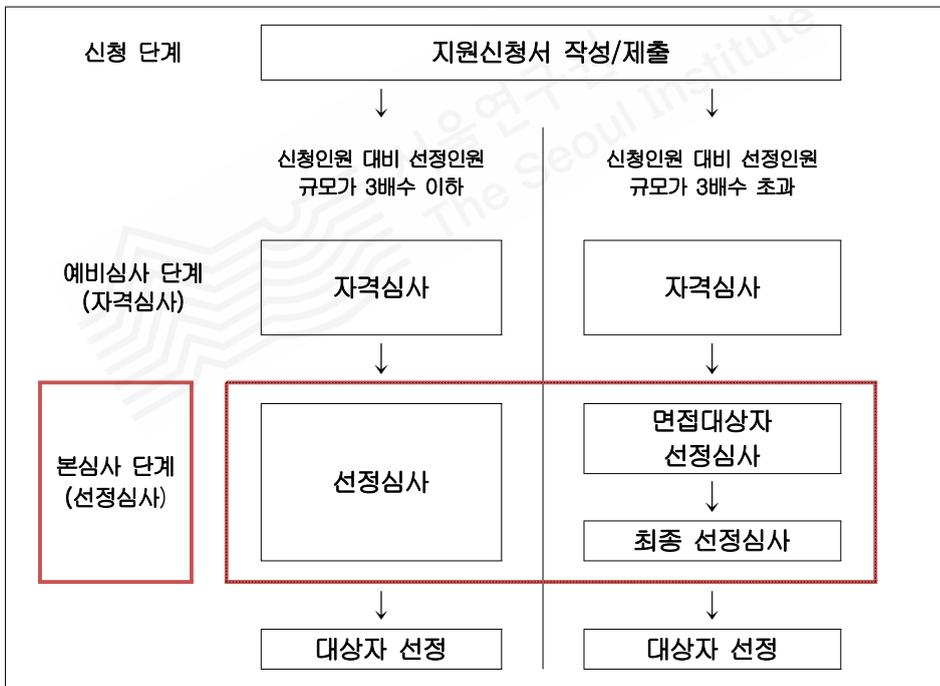
3) 대상자 선정체계: 세부 절차 및 기준

(1) 대상자 선정체계 개요

- 대상자 선정체계는 신청단계를 거친 이후, ‘예비심사’(자격심사)와 ‘본심사’(선정심사)의 2단계 절차를 기본으로 함
 - 대상자 선정절차는 신청단계를 거친 이후, 기본적으로 ‘예비심사’(자격심사)

와 ‘본심사’(선정심사)의 2단계 절차를 거쳐 선정함

- 자격심사 이후 본심사 단계에서는 신청인원 규모에 따라 적절한 심사방식을 정하는 ‘가변적인 선정체계’를 운용함
 - 선정인원 대비 신청인원 규모가 2배수 또는 3배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을 모색함¹³⁾
- 2배수 내지 3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선정심사만을 진행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3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면접대상자 선정심사를 거쳐 선정인원의 2배수/3배수를 선정한 후 최종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 선정
 - 선정을 위한 최종심사(2차 심사)에서는 정성적 평가결과와 사전에 이루어진 정량적 평가결과를 합산해 종합적으로 심사함



[그림 4-2] 신청인원 규모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정

¹³⁾ 2배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3배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대상자의 변별력, 심사에 수반되는 행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함

(2) 대상자 선정 절차Ⅰ: 신청 및 예비심사 단계

- 청년활동지원사업에의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 기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오프라인 신청접수: 서울시청, 자치구청, 동주민센터, 서울시 청년허브 및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서울시 산하기관 및 중간지원조직
 - 온라인 신청접수: 본 사업 홈페이지(사업관리전자시스템)
 - 지원신청서 외에 관련 증명서류 제출: 자격심사와 선정심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서울시는 각 기관에서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취합하여 사업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대상자 선정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
- 한편,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신청자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신청자에 대해 자격심사를 수행함
 -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지원신청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개인정보 조사에 기초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함
- 예비심사에서는 신청자가 지원자격을 갖추었는지, 결격사유가 있는지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신청자의 자격조건을 적격/부적격으로 판정함

(3) 대상자 선정 절차Ⅱ: 본심사(선정심사) 단계

- 본심사 단계는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단계로,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선정함
- 신청인원 규모에 따라 적절한 심사방식을 정하는 가변적인 선정체계를 유지함
 - 2배수 또는 3배수 초과일 경우에는 1단계에서 면접대상자 선정심사를 실시해 2배수/3배수 규모의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시 최종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사실상의 3단계 심사체계에 해당)
- 면접대상자 선정심사(2배수/3배수 선정)는 경제적 조건에 관한 평가지표와 사회적 조건에 관한 평가지표 등 정량적 기준에 의해서만 1차 심사

- 대상자 선정위원회 실무진에서 지원신청서 확인 및 개인정보 조사를 통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모집인원의 2배수/3배수를 심사대상자에서 선정
-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심사(2차 심사)는 정량적 지표(경제적 지표와 사회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심리적·행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함
 - 최종심사는 사실상 정성적 기준(심리적·행태적 지표)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단계에 해당함
 - 즉,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단계에서 실시하였던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산해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전체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서대로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함
- 이 경우에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는 면접심사에서는 전문 면접관의 대면면접 심사를 통해 면접대상자들의 심리적·행태적 상태를 확인·심사함
 - 심사위원회에 소속된 3인의 면접위원이 1개의 심사단위를 이루어 면접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심사함(1대 다 면접심사)
 - ※ 1개의 심사단위는 취업지원컨설턴트 1인, 현장연계컨설턴트 1인,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함
 - 신청서에 개략적으로 기재된 면접대상자의 심리적·행태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면접대상자를 심사함
 - 평가결과는 3인의 면접위원이 심사한 개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4)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검토

(1) 평가지표 구성

- 전체 평가지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구성하되, 정량적 지표는 개인별 경제적·사회적 상태(취약성)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
 - 경제적 조건: 가구 소득인정액, 개인 부채액,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 사회적 조건: 학력, 미취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취약계층 여부

- 정성적 조건: 사회활동 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 진로계획의 적절성, 지원의 시급성, 심리적 안정성

[표 4-4] 지원대상자 선정지표 구성(안)

지표 특성		지표	지표의 평가방향	비고
정량적 지표	경제적 조건	가구 소득수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확인에 의한 평가
		세대주 여부	세대주에 해당하면 점수 부여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개인 부채액	개인 부채액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사회적 조건	학력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미취업기간	미취업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 부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취약계층 여부	취약계층에 해당하면 점수 부여	
정성적 지표	사회활동 참여의지	사회활동 참여의지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면대면 평가 (체크리스트)	
	진로계획의 구체성	진로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진로계획의 적절성	진로계획의 적절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지원의 시급성	지원의 시급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심리적 안정성	심리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표 4-5] 선정지표별 사실관계 확인방법

지표	확인방식	비고
가구 소득수준	가구 소득인정액 확인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세대주 여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확인	
부양가족 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개인 부채액	개인 부채총액 확인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학력	최종학력증명서 확인	
미취업기간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최근의 미취업기간 확인	고용보험 전산망 활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참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고용보험 전산망 활용
취약계층 여부	관련 증명서류 확인	

주: 신청단계에서 제출서류(첨부서류) 유무는 별도 판단 필요

- 선정심사 중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대면면접에 의거하여 수행하되, 대규모 면접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문항표’(체크리스트)에 의한 심사로 진행함
 - 문항표는 사회활동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 등 5개 지표로 구성하되, 사실관계 정도만 간단히 확인하는 수준으로 진행해 면접관이나 면접대상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함
 - 전체적으로 최대 30여 개의 면접심사 단위를 운용하고, 대면면접 심사는 3인 1조로 하여 진행함

[표 4-6] 정성적 지표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예시

지표	확인사항	확인		비고
사회활동 참여의지	① 취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다	구분 그렇지 않다	체크 ①	면접대상자가 신청서 작성 시 관련 질문에 대해 응답한 내용을 참고하여 체크함 ※ 사실관계 정도만 간단히 확인하여 면접관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
		보통이다	②	
	그렇다	③		
	구분 그렇지 않다	체크 ①		
	보통이다	②		
	그렇다	③		
진로계획의 구체성	③ 구직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준비활동을 비교적 명확하게 알고 있다	구분 그렇지 않다	체크 ①	
		보통이다	②	
		그렇다	③	
진로계획의 적절성	④ 계획하고 있는 구직목표가 본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구분 그렇지 않다	체크 ①	
		보통이다	②	
		그렇다	③	
	⑤ 계획하고 있는 구직목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구분 그렇지 않다	체크 ①	
		보통이다	②	
		그렇다	③	
지원의 시급성	⑥ 경제적 문제로 인해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분 그렇지 않다	체크 ①	
		보통이다	②	
		그렇다	③	
	⑦ 취업을 위해 채용지원을 상당히 하고 있지만 쉽게 채용되지 못하고 있다	구분 그렇지 않다	체크 ①	
		보통이다	②	
		그렇다	③	
	⑧ 취업을 되도록 시급히 해야 하는 개인적 맥락이 있다	구분 그렇지 않다	체크 ①	
		보통이다	②	
		그렇다	③	
심리적 안정성	⑨ 취업준비활동 이행에 있어 장애가 될 만한 심리적 문제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	구분 그렇지 않다	체크 ①	면접대상자의 면접태도 및 면접내용을 고려해서 판단
		보통이다	②	
		그렇다	③	

(2) 평가점수표 구성

- 평가에 따른 점수체계는 대상자 선정에서의 변별성을 염두에 두고 신청규모별로 전체점수와 지표 간 점수배분에서 몇 가지 대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가능함
- 신청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의 평가점수 체계: 총점 100점 기준(다음 [표 4-7]의 대안 1-1, 1-2)
 -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는 9:1로 설정하고, 경제적 지표와 사회적 지표는 6:4 또는 5:5로 설정함
- 신청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의 평가점수 체계: 총점 200점 및 250점 기준(다음 [표 4-7]의 대안 2안과 3안)
 - 대안 2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9:1로, 대안 3은 8:1로 설정함
 - 정량적 지표는 대안 2와 3안 모두 경제적 지표와 사회적 지표를 5:5로 설정함
- 이 가운데 신청인원이 많은 상황(2배수/3배수 초과인 경우)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점은 250점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 200점, 정성적 평가 50점으로 평가체계를 구성함([표 4-8] 참조)
 - 면접대상자 선정단계에서 우선 경제적 기준 100점, 사회적 기준 100점으로 구성된 정량적 평가(200점 기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2배수 또는 3배수를 선정함
 - 면접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정성적 지표(50점 기준) 평가를 내용으로 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전체 점수를 합산해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표 4-7] 대안별 평가점수표 구성

대안	총점기준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계	
1-1	100점	54	36	90	10
1-2		45	45	90	10
2	200점	90	90	180	20
3	250점	100	100	200	50

[표 4-8]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점수표 예시: 총점 250점 기준

지표 특성	지표	배점기준				점수
정량적 지표	가구소득인정액	구분	배점	구분	배점	50
		10분위	5	5분위	30	
		9분위	10	4분위	35	
		8분위	15	3분위	40	
		7분위	20	2분위	45	
		6분위	25	1분위	50	
	경제적	개인 부채액	개인 부채액		배점	20
			500만 원 이하		0	
			501~2,000만 원		10	
	조건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수		배점	20
0명			0			
1명			10			
		2명 이상		20		
세대주 여부	세대주 여부	세대주 여부		배점	10	
		해당 안 됨		0		
		해당됨		10		
		소계				100
사회적 조건	미취업기간	구분	배점	구분	배점	40
		6개월 이하	0	18~24개월	30	
		6~12개월	10	24개월 초과	40	
		12~18개월	20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분	배점	구분	배점	30
		12개월 초과	0	6개월 이내	20	
			6~12개월	10	없음	30
	학력	학력	학력		배점	20
			대졸(졸업예정자) 이상		0	
			고졸		10	
		고졸 미만		20		
취약계층 여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 여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 주민 등)	세대주 여부		배점	10	
		해당 안 됨		0		
		해당됨		10		
		소계				100
정성적 지표	사회활동참여의지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를 반영				15
	진로계획의 구체성					10
	진로계획의 적절성					10
	지원의 시급성					10
	심리적 안정성					5
			소계			
		총점				250

5)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서울시와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주관할 사업관리기관은 사업공고 시점을 전후해, 공동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함
 -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실무적 관라·운영은 사업관리기관이 총괄하도록 함
 - 선정위원회는 자격심사, 선정심사 등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제반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
- 선정위원회는 심사의 변별력, 심사의 행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 되,¹⁴⁾ ‘심사위원회’와 ‘실무 소위원회’의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하고 ‘청년활동지원 컨설턴트(Youth-Consultant)’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 ‘심사위원회’는 본 사업의 운영을 위해 도입한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를 중심으로 하여 약 100인 내외의 규모로 구성(※ 위원장은 서울혁신기획관으로 함)
 - ‘실무 소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면접위원 일부를 포함해 실무 전문가, 관리 기관 스태프로 구성함
 - 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한 선정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며, 이를 통해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가 지원대상자 선정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함
 - ‘실무 소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회에 의한 본심사(면접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격심사와 정량적 평가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함
 - ‘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3인(컨설턴트 2인, 외부전문가 1인)을 하나의 심사단위로 하여 30여 개의 면접심사 단위를 운영함

14)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에 대해서는 이 연구보고서의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제 도입운영’(5장 3절)을 참조할 것

3_지원대상활동과 청년활동지원체계 구축

1) 청년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정책수요

- 현재 대표적인 취업지원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은 주로 취업 목적의 특정 분야 위주의 직업훈련(학원수강)으로 제한되어 있음(※ 본 연구의 2장 2절 참조)
 -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대상활동은 직업훈련, 인턴십 프로그램 및 창업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 중심으로 운영함
 - 특히, 직업훈련(학원수강)은 경영회계사무(29.9%), 문화예술디자인·방송(16.8%), 미용·숙박·스포츠(10.3%) 분야에 주로 집중함
- 반면, 이 연구의 청년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학원수강 이외에도 취업이나 창업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청년들은 사회참여를 위해 학원수강(어학자격증취득 68.7%, 기술습득 48.2%)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 학원수강도 취업성공패키지가 지원하지 않는 외국어(54.7%), 업무(직무) 관련(22.2%), 컴퓨터(13.3%) 등은 다른 분야에 비해 수요가 높게 나타남
 - 나아가, 직업에 관한 개념도 질적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준비활동 또한 다변화되는 추세임



[그림 4-3]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 범위

-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는 진로준비 활동과 이에 따른 정책수요를 고려해 사업의 지원대상활동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청년취(창)업활동촉진수당' 모델에 따른 지원대상활동 검토

- 청년이 진로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활동은 일차적으로 '활동의 유형'이나 '활동 단계'에 따라 구분이 가능함
 - 활동의 유형별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취업준비활동을 필두로, 비전형의 취업준비활동, 그리고 소수지만 사회혁신활동이 존재함
 - 반면, 활동의 단계별로도 진로의 탐색활동에 더해 진로설계와 진로실행과 같은 활동 등으로 구성됨
- 상기 활동들을 반영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활동 모듈'과 그에 상응하는 '지원대상활동'으로 개념화([표 4-9] 참조)
- 이 경우에 활동 모듈은 ① 일반취업준비활동, ② 비전형취업준비활동, ③ 사회혁신활동으로 구분 가능함
 - ① 일반취업준비활동: 일반 민간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등으로의 취업을 위한 제반 준비활동을 의미함
 - ② 비전형취업준비활동: 창업이나 그에 준하는 활동(프리랜서 등)을 시작하거나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제반 준비활동을 의미함
 - ③ 사회혁신활동: 마을공동체 사업,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참여,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진로의 목표로 하는 데 필요한 제반 준비활동, 또는 이 분야에서의 공익·봉사활동을 의미함
- 상기 모듈에 대해 지원 가능한(또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 활동은 ① 진로탐색활동 지원, ② 진로설계활동 지원, ③ 진로실행활동 지원으로 구분함
 - ① 진로탐색활동 지원: 본인의 관심과 흥미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정보수집, 인맥형성 및 교류, 멘토링, 견학 등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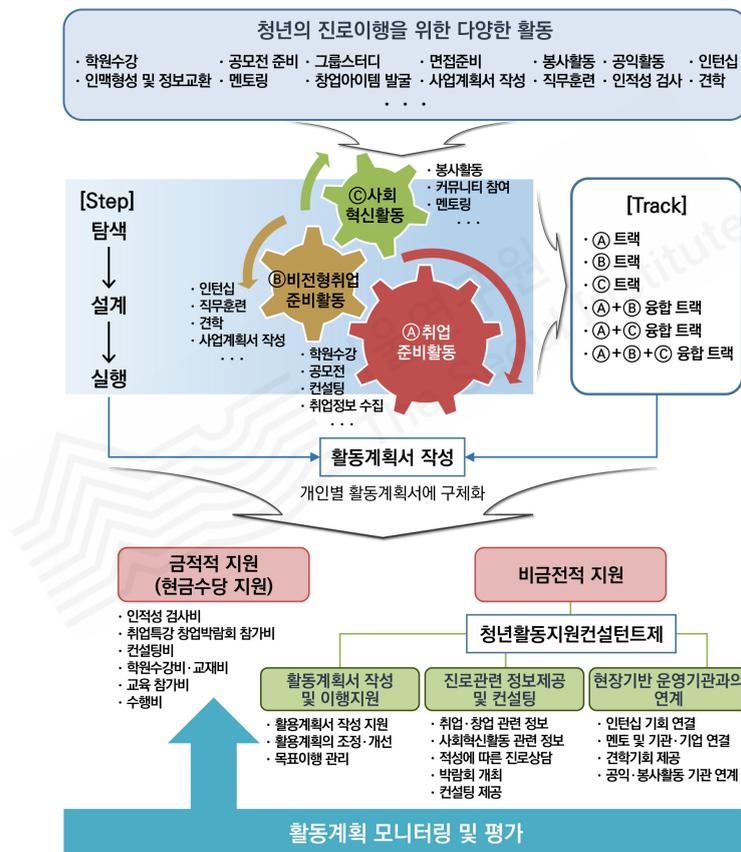
- ② 진로설계활동 지원: 진로목표를 설정한 뒤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멘토링이나 컨설팅 등을 통해 목표기간에 맞춰 이행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진로실행활동 지원: 진로계획에 따라 실제 준비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학원수강, 인턴십, 그룹스터디, 공익활동·봉사활동으로의 연계 등을 지원

[표 4-9]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

구분		㉠ 일반취업준비활동	㉡ 비전형취업준비활동	㉢ 사회혁신 활동
주요내용		- 취업을 위한 준비활동	- 창업준비활동 - 프리랜서로서의 역량 강화활동	- 지역커뮤니티 형성 - 사회적경제 활동 - 시민단체 활동 - 공공사회복지기관 봉사활동
단계 (Step)	① 진로 탐색	- 인적성 검사, 심리검사 지원 - 취업정보 제공 - 취업희망기관 견학 - 멘토 연결 - 기관기업 설명회 제공	- (서울시지원) 창업자, 1인 기업과의 네트워킹 지원 - 사업장 견학 - 인턴십 연계 -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지역사회 내 멘토 연결 - 봉사활동 기관 연결 - 시민단체 견학 및 인턴십 지원
	② 진로 설계	- 목표 설정 및 활동계획서 작성 지원 - 상담컨설팅 지원	- 목표 설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목표 설정 및 활동계획서 작성 지원 - 멘토 연결
	③ 진로 실행	- (외국어, 자격증취득, 직업 관련) 학원수강 지원 - 공모전 준비 지원 - 그룹스터디 지원 - 공익·봉사활동 연계 지원 - 인턴십 연계 - 모의면접 지원 - 목표이행 관리	- 유사 창업자와 연계 형성 - 직무훈련(학원수강) 지원 - 인턴십 연계 - 공모전 준비 지원 - 창업 아이템 입지선정 지원 - 재능기부활동 지원 - 목표이행 관리	- 사회활동 역량강화 교육 - 인턴십 연계 - 동아리 활동 지원 - 작성에 따른 기관 연계 - 공익·봉사활동 지원 - 목표이행 관리

3) 청년 진로준비활동 지원체계: 총괄 구성체계

- 상술한 지원대상활동 구성체계는 지원대상자들이 ‘활동계획서’(5장 2절 참조)를 작성하고 이행하기 위한 근거 내지 지침으로 활용됨
- 지원대상자는 각자가 고려하고 있는 진로(유형이나 세부 목표)를 고려하여 활동 모듈로 선택조합하고 이를 활동계획서에 구체화하되,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가 지원함



- 1) (A), (B), (C) 트랙은 지원기간 동안 개별 활동 모듈(일반취업준비활동, 비전형취업준비활동, 사회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 2) (A)+(B) 융합트랙은 '일반취업준비활동'과 '비전형취업준비활동'을 순차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이행하는 것을 의미
- 3) (A)+(B)+(C) 융합트랙은 '일반취업준비활동', '비전형취업준비활동' 및 '사회혁신활동'을 순차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이행하는 것을 의미

[그림 4-4]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활동 및 지원내용

-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이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지원대상 청년들에게 진로준비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 외에,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함
 - 금전적 지원: 취업준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수당(1인당 매월 50만원, 6개월)으로 직접 지원
 - 비금전적 지원: 활동계획서 작성 및 이행지원, 진로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현장기반 운영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4) 지원대상자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 지원 내역

- ‘금전적 지원’은 취(창)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진로이행에 수반되는 모든 직접·간접적 활동에 사용 가능함
 - 지원대상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50만원 × 6개월)을 현금수당으로 지급
 - 진로준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활동계획서에 반영함으로써 가급적 다음과 같은 활동범위를 중심으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

[표 4-10] 진로준비활동을 위한 현금수당의 지출 범위: 열거형 방식(Positive List)

금전적 지원		주요내용
직접 활동비용	진로탐색비용	인·적성 검사비, 취·창업 특강 및 설명회 참가비 등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제반 비용
	진로설계비용	전문 컨설팅비, 전문교육비 등 진로준비활동을 설계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 항목
	진로실행비용	학원수강비, 스터디 장소 대여비, 공모전 준비비 등 직접적인 구직준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간접 활동비용	부대비용	진로준비활동에 수반되는 간접적 활동비로서 식비, 교통·통신비, 의료비에 한정

- 사업의 합목적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대비용 중 일부 활동범위(항목)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출을 제한하도록 함(5장 4절 3항 ‘클린카드제’ 운영 참조)
 - 진로 준비와 전혀 무관한, 특히 사회통념상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는 업종이나 품목에의 지출을 제한하도록 함

- 청년활동지원사업에서의 ‘금전적 지원’은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성격이 기보다는 취(창)업준비활동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을 지님
 -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수당이 공적 부조, 실업급여의 성격을 가진다면 생계급여 등 기존의 복지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중복수급이 될 수 있어 기존 급여의 지원대상에서 탈락되거나 급여액수가 삭감될 수 있음
그러나 이 연구에서와 같이 특정 활동에 지출이 제한되는 방식의 현금수당은 지출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포괄적 용도의 생계비라기보다는 개인의 개별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성 지원금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 정부급여와의 중복성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비금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원대상자가 작성한 개인별 활동계획서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청년활동지원컨설팅트제’를 통해 청년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준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 외에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함
 - 여기에는 활동계획서 작성 및 이행지원, 진로 관련 정보 및 컨설팅 제공 지원, 현장기반 운영기관 및 주체들과의 연계 지원 등을 포함함([표 4-11]과 [표 4-12] 참조)

[표 4-11] 비금전적 지원의 주요내용

비금전적 지원	주요 내용
① 활동계획서 작성 및 이행 지원	지원대상자가 진로목표에 따른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관리 지원
② 진로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대상자의 희망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활동 이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자문 제공
③ 교류·네트워킹 촉진 지원	취창업에 관련된 현장탐방, 특강, 지원대상자 간 교류촉진 이벤트 개최 등
④ 현장기반 운영기관과의 연계	지원대상자의 진로목표와 관련된 멘토나 기관을 연계하여 직접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표 4-12] 청년활동 지원 내용

구분		① 일반취업준비활동	② 비전형취업준비활동	③ 사회혁신활동	
지원 체계	금 전 적 지 원 (현 금 수 당)	탐색 비용	- 인·적성 검사비 - 취업특강설명회 참가비	- 인·적성 검사비 - 견학 등에 따른 비용 - (무급) 인턴십비	
		설계 비용	- 전문 컨설팅비	- 전문교육 및 컨설팅비	- 전문 컨설팅비
		실행 비용	- 학원수강비 - 시험등록비, 교재비 - 공모전 준비비 - 그룹스터디 장소대여 - 모의면접비	- 학원수강비 - 공모전 준비비 - 창업 관련 컨설팅비 - 교재비 - 창업준비비	- 사회활동 교육 참가비 - 사회혁신활동 수행비 - 협동조합 출자(조합)비 - 사회적기업 창업 기반 조성(장소, 장비)비
		부대 비용	식비, 교통비 등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비 금 전 적 지 원	활동 계획서 관련 지원	- 활동계획서 작성 지원 - 활동계획의 조정개선 - 목표이행에 대한 지원	- 활동계획서 작성 지원 - 활동계획의 조정개선 - 목표이행에 대한 지원	- 활동계획서 작성 지원 - 활동계획의 조정개선 - 목표이행에 대한 지원
		진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 취업관련 정보제공 - 적성에 따른 진로상담 - 취업설명회/박람회 개최 - 취업 관련 컨설팅	- 창업관련 정보제공 - 적성에 따른 진로상담 - 창업 관련 컨설팅 제공 - 창업프리랜서 초청 간담회 개최	- 사회혁신활동 관련 정보제공 - 적성에 따른 진로상담
현장 기반 운영 기관과 연계		- 인턴십 기회 연계 - 공익·봉사기관 연계 - 멘토 및 기업 연결	- 멘토와 관련 기관 연결 - 견학기회 제공 - 인턴십 기회 연계 - 유사 창업자(기업) 연결	- 인턴십 기회 연계 - 멘토 및 기관 연결 - 재능기부 기회 제공 - 사회활동가 및 사회단체 연결 - 사회적기업 참여 제공	

05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관리·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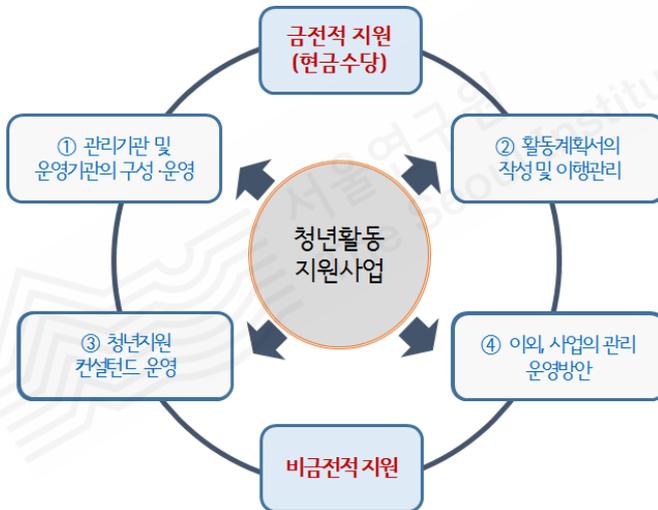
- 1_관리·운영체계 총괄
- 2_활동계획서 작성과 이행 지원 및 관리
- 3_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제 도입·운영
- 4_사업 관리·운영을 위한 추가적 방안

05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관리·운영방안

1_관리·운영체계 총괄

1)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구성 요소

- 사업이 일관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체계적 관리·운영이 매우 중요함
-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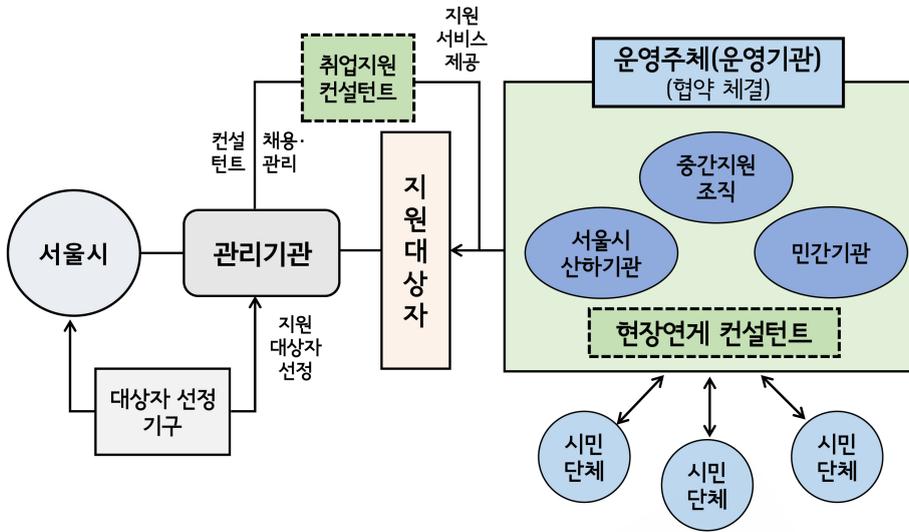
[그림 5-1]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관리·운영체계

2) 사업추진체계 구축: 관리기관과 운영기관의 이원화

- 청년활동지원사업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협력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함
 - 전체 관리운영체계는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전주기적 청년활동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관리기관, 운영주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활동지원사

업단(이하 사업단)을 구성·운영함

- 서울시는 사업을 총괄 기획·추진하되, 관리기관과 운영주체(기관)로 이원화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서울시: 사업의 총괄 관리 감독, 사업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사업의 성과관리
 - 관리기관: 사업의 실행관리,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운영주체와의 연계·협력
 - 운영주체: 지원대상자의 활동 기반 제공 및 지원서비스 제공, 개별 풀뿌리 조직이나 전문가활동가들과 연계
-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사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무는 진로 관련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관리기관은 사업 실행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조직으로, 지원대상자 관리, 전담인력 채용 및 관리, 운영주체대상자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현장기반의 다양한 주체들과 지원대상자를 연계하여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기반의 다양한 전문기관들과 별도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함
 - 운영주체는 청년활동지원을 위한 실제 운영단위(풀뿌리 단위)로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및 연계·협력을 모색함
 - 운영기관은 활동알선, 공간대여, 관련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유관 지원기관(현장기반 지원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연계함
 - 이를 위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운영주체들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세부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5장 3절 2항 참조)
 - 서울시는 사업에 참여하는 현장연계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컨설턴트 지정·운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취업컨설턴트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5-2] 청년활동지원사업 지원체계

2_활동계획서 작성과 이행 지원 및 관리

1) 활동계획서 관련 개요

- 활동계획서 운용의 목적과 기대효과
 - 활동계획서는 지원대상자/컨설턴트/관리 및 운영기관 모두에 대해 각종 활동과 현금수당 지출이 체계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함
 - 아울러 활동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상호의무부와 원칙에 입각해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격도 가짐
 - 그럼으로써 활동계획서는 자기주도하에 설정된 목표에 기반하여 사업의 성과 관리, 즉 '목표에 의한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함
- 활동계획서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에 지원대상자가 자기 주도로 수행하되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는 이를 지원하도록 함

○ 활동계획서의 작성 지침

- 활동계획서가 지원대상자와 관리·운영주체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함

<활동계획서 작성의 4가지 고려사항>

- ① 활동계획서에는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진로계획과 그것을 실행하려는 활동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함
- ② 활동계획서는 지원대상자가 자기 주도하에 계획하고 있는 목표와 활동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 극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컨설턴트가 작성하는 것이 가능함
- ③ 활동계획서는 목표지향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위해 상위목표와 그와 연관되어 있는 하위목표들로 구성함
 - 하위목표는 상위목표에 도달해가는 중간과정이나 경로를 내용으로 하여 구체화한 목표 제시함
- ④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컨설턴트와의 상담 진행 후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2) 활동계획서 수립 절차

- 활동계획서는 [그림 5-3]에서 볼 수 있듯이 가급적 사전단계-수립단계의 2단계를 거쳐 작성하도록 함
 - 사전단계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활동계획서의 취지와 구성, 이행방법, 지원사항 등에 대해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함
 - 수립단계(상담)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작성한 활동계획서 초안을 바탕으로 청년 컨설턴트가 세부 이행계획이나 지원사항 등에 대해 지원대상자와 함께 협의하고, 활동지원금 지급 및 이용, 운영기관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단계	세부절차	활동주체별 활동내용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	지원대상자
사전 단계	오리엔테이션 ↓	· 집단상담을 통해 활동계획서 작성방법 및 활용에 대한 교육 실시	· 본인의 환경, 여건, 이력 등을 작성
	활동계획서 초안 작성 ↓	-	· 희망진로, 세부목표 및 활동내용, 선호하는 활동 및 지원내용, 예상지출내역 작성
수립 단계	상담 ↓	· 활동목표 수립에 관한 조언 · 활동계획이 목표에 맞게 작성되도록 조언 · 맞춤형 지원체계 정보 제공	· 활동목표와 계획에 따른 운영기관 및 지원방안에 대한 정보 습득
	활동계획서 수정·완성	-	· 컨설턴트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활동계획서 최종 작성

[그림 5-3] 활동계획서 수립 절차

- 활동계획서는 ‘활동의 목표(다단계)’와 ‘세부 활동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구체화되도록 구성함([표 5-1] 참조)
 - 개인별 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주요 이력사항으로 구성
 - 활동 목표: 희망진로, 세부 목표, 희망 이행경로 및 단계 선택 등으로 구성
 - 희망이행계획: 희망진로 및 세부목표를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이행 경로(이행경로(Track), 이행단계(Step))를 선택
 - 세부 활동계획: 활동내용, 현금수당 사용계획, 기간별 활동계획 등으로 구성
 - 요구사항: 활동을 수행하는 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구체적인 연계 기관 등)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기재

[표 5-1] 활동계획서 구성 및 주요내용

구분	세부항목	주요내용	비고
개인별 정보	개인 기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에 대한 식별정보	
	주요 이력사항	취업준비활동(지원한 회사명 등) 이력(학업 및 전공, 직업, 사회적 활동경험 등)	
활동 목표	희망진로	구체적인 최종목표(목표 분야와 기관, 직업명 등)	예) 건축회사 건축설계사 취업 등
	세부목표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목표(자격증 취득, 스펙 쌓기, 인턴십, 유사 분야 경험 등)	
희망 진로 계획*	이행경로 (Track) 선택	취업준비형, 비전형취업형, 사회혁신활동형 중 1개 이상 선택	2개 이상 선택 하는 융합형 가능
	이행단계 (Step) 선택	진로탐색, 진로설계, 진로실행, 결합형 중 택일 후, 컨설턴트 로부터 제공된 단계별 활동 목록에서 원하는 활동 선택	희망이행계획 참조
세부 활동 계획	활동내용	본인이 선택한 이행경로 Track과 이행단계 Step에 따라 실 제로 활동할 목록 기재 · 활동이행 세부계획은 정성적 방법으로 자유롭게 기재(필요 시 컨설턴트의 도움 가능)	활동계획서 예시 참고
	현금수당 사용계획	활동내용을 수행하는 데 지출할 직접비용, 부대비용 내역을 기재 · 직접비용: 학원비, 장소대여비, 컨설팅비 등 · 부대비용: 식비, 교통비 등	
	기간별 활동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기간별로 활동계획 기재	
요구 사항	활동 관련 요구사항	활동을 이행하는 데 추가적으로 원하는 지원에 대해 기재	선택사항, 활동계획서 예시 참고
	애로사항	활동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애로사항	

* 희망진로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표 5-2] 부속표를 참조

[표 5-2] 부속표: 활동계획서 희망진로계획의 세부항목

희망이행계획-(1) 이행경로(Track)의 유형			
구분	㉠트랙 일반취업준비활동형	㉡트랙 비전형취업준비활동형	㉢트랙 사회혁신활동형
Track별 유형 정의	취업준비를 위한 활동	창업·프리랜서 등 취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목표로 하는 활동	봉사활동, 사회적기업 참여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상담, 인적성검사 · 인턴십, 컨설팅 · 학원수강 · 공모전 준비, 그룹스터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 사업계획서 작성 · 직무훈련(학원수강) · 공모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 · 견학 · 재능기부
<p>주) 지원대상자는 계획에 따라 이행경로(Track)를 2개 이상 선택할 수 있음(융합트랙)</p>			
이행계획-(2) 이행단계(Step)의 유형			
구분	Step ① 일반취업준비활동형	Step ② 비전형취업준비활동형	Step ③ 사회혁신활동형
진로 탐색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하는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정보 수집 · 인적성검사 · 멘토링, 직업상담 · 견학, 인턴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아이템 발굴 · 멘토링 · 인턴십,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 인적성검사 · 견학
진로 설계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이행 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드맵 작성 ·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작성 ·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참여 · 재능기부
진로 실행	목표달성을 위한 자율적인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자격증취득 등) 학원수강 · 그룹스터디 · 공모전 준비, 면접준비 · 공익·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훈련(학원수강) · 공모전 준비 · 인턴십 · 인맥형성 및 정보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활동 · 봉사활동 · 사회활동
결합형	탐색·설계·실행단계 중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단계들을 중복 선택		

[표 5-3] 활동계획서 기준으로 살펴본 특정 지원대상자 예시

활동계획서 주요 내용		활동계획서 작성 배경
희망진로		· 대학생일 때 외국의 노숙인을 위한 이동사위서비스를 하는 사회적기업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함
세부목표 설정		· 사업구상만 한 단계이기 때문에, · 실제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
이행 경로 선택	Ⓐ트랙 일반취업준비활동형	· 선택 이유 없음
	Ⓑ트랙 비전형취업준비활동형	· 사업계획서 작성, 공모전 준비, 봉사활동을 목표로 수립했기 때문에 · 창업준비를 위한 Ⓑ트랙을 2월~6월까지 선택
	Ⓒ트랙 사회혁신활동형	· 봉사활동과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의 인맥형성을 위해 · Ⓒ트랙을 전 사업기간(1월~6월)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선택
이행 단계 선택	진로탐색	· 창업을 위한 사업구상이 완료되어 선택이유 없음
	진로설계	· 사업계획서 작성과 진로 선택 등에 대해 멘토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진로탐색단계 선택
	진로실행	· 봉사활동, 공모전 준비, 인맥형성 및 정보교환 메뉴가 있는 진로실행단계 선택
활동이행 세부계획		· 노숙인 지원센터의 대표기관인 다시서기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노숙인 사업에 대한 조언을 얻을 계획 · 공모전 및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 초기자본을 확보하고자 함
현금수당 사용계획		· 함께 창업을 하기로 한 동료와의 회의를 위한 장소대여비 · 사업컨설팅을 받기 위한 전문컨설팅비 · 활동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식비와 교통비
기타 요구사항		·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려는 목표에 맞춰 노숙인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원함 · 사업 초기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원함
애로사항		· 창업을 목표로 하지만 초기자본이 부족하여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주: 상기 지원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활동계획서 작성 예시는 [표 5-4]와 [표 5-5]를 참조

[표 5-4] (참고자료) 활동계획서의 작성 예시: 메뉴선택형

희망진로		노숙인이동사위실 사회적기업 창업					
세부목표		사업계획서 작성, 공모전 준비, 봉사활동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행 경로 선택	㉠트랙 일반취업준비활동형						
	㉡트랙 비전형취업준비활동형						
	㉢트랙 사회혁신활동형						
이행 단계 선택	진로탐색	×					
	진로설계	×	사업계획서 작성, 멘토링, 컨설팅				
	진로실행	봉사활동, 공모전 준비, 인맥형성 및 정보교환					
활동이행 세부계획 (직접 서술)		1. 노숙인 다시서기센터에서 봉사활동 및 노숙인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함 2. 사업 초기자본을 지원받거나 확보하기 위한 공모전 참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					
현금 수당 사용 계획	직접비용	-	장소대여비, 전문 컨설팅비				
	부대비용	교통비, 통신비, 식비					
기타 요구사항 (직접 서술)		1. 노숙인 지원사업 기관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인맥을 형성하고 싶음 2. 계획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초기자본 마련 방안과 사회적 기업 설립 방법을 알고 싶음					
애로사항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초기자본 부족					

[표 5-5] (참고자료) 활동계획서의 작성 예시: 본인서술형

희망진로	노숙인이동사위실 사회적기업 창업					
세부목표	사업계획서 작성, 공모전 준비, 봉사활동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행경로 및 이행단계	1월: 노숙인 지원기관 봉사활동 2월: 사업계획서 작성, 노숙인 지원기관 봉사활동, 실무자의 멘토링 3월: 사업계획서 작성, 노숙인 지원기관 봉사활동, 실무자의 멘토링 4월: 작성된 사업계획서 전문컨설팅 진행, 노숙인 지원기관 봉사활동 5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수정, 노숙인 지원기관 봉사활동 6월: 사회적기업 관련 창업 공모전 참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노숙인 지원기관 봉사활동					
활동이행 세부계획	1. 노숙인 다시서기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노숙인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함 2. 사업 초기자본을 지원받거나 확보하기 위한 공모전 참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					
현금수당 사용 계획	직접 비용	-	장소대여비, 전문컨설팅비			
	부대 비용	교통비, 통신비, 식비				
기타 요구사항	1. 노숙인 지원사업 기관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인맥을 형성하고 싶음 2. 계획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초기자본 마련 방안과 사회적기업 설립 방법을 알고 싶음					
애로사항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초기자본 부족					

3) 활동계획서에 기반한 진로의 이행과 이행과정의 지원 및 관리

- 지원대상자는 ‘상호의무부과 원칙’에 입각해 수립된 활동계획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관리기관은 그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 활동계획의 이행은 활동착수 → 주기적 대면 컨설팅(상담) → 활동종료 단계로 진행
- 참여자는 진로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집단적·조직적 준비활동을 이행

- 하되, 주기적으로(최소 매월 1회) 상담과정을 이행함
 - 이 과정을 통해 지원대상자는 활동계획 이행을 자체 평가하고, 컨설턴트와 함께 현재의 진단과 향후 이행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을 받도록 함
 - 이와 관련해 지원대상자는 ‘활동보고서’ 및 ‘최종 활동결과보고서’(종료단계)를 온라인 플랫폼에 제출하도록 함
- 관료운영기관과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특히 취업지원컨설턴트)는 지원대상자가 활동계획을 일관되게 이행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함
 - 컨설턴트는 지원대상자와 대면 상담(최소 1회 이상/활동계획서 기반)을 통해 상담이나 지원 요청에 응하는 동시에,
 - 개인별 활동계획서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도록 함

[표 5-6] 단계별 활동계획서 이행에 따른 지원 및 관리

구분	단계별 이행관리 내용		
	활동 착수	주기적 컨설팅(상담)	활동 종료
지원대상자	· 계획에 따른 활동 이행	· 활동보고서 제출	· 최종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총괄관리기관	· 민원 접수 및 해결	· 현금수당 사용내역 모니터링	· 활동계획서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측정
청년활동지원 컨설턴트	· 지원대상활동의 활동방법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 비스 연계	· 상담 · 활동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
운영주체	· 현장연계 컨설턴트 설치 · 지원대상자 활동 배분 및 관리	-	-

3_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제 도입·운영

1)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이하 청년컨설턴트) 제도의 개요

- 지원대상 청년을 선정하고, 나아가 청년활동의 활동계획 수립과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적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 지원대상자 각자가 진로목표에 따라 다양한 진로준비활동을 계획하고, 계획한 활동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
 - 이를 위해 지원대상자의 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의 도입을 적극 고려함
 - 이러한 청년컨설턴트제도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 프랑스의 가랑띠 쥘 사례 참조)

<프랑스 ‘가랑띠 쥘(Garantie Jeunes)’ 사업의 컨설턴트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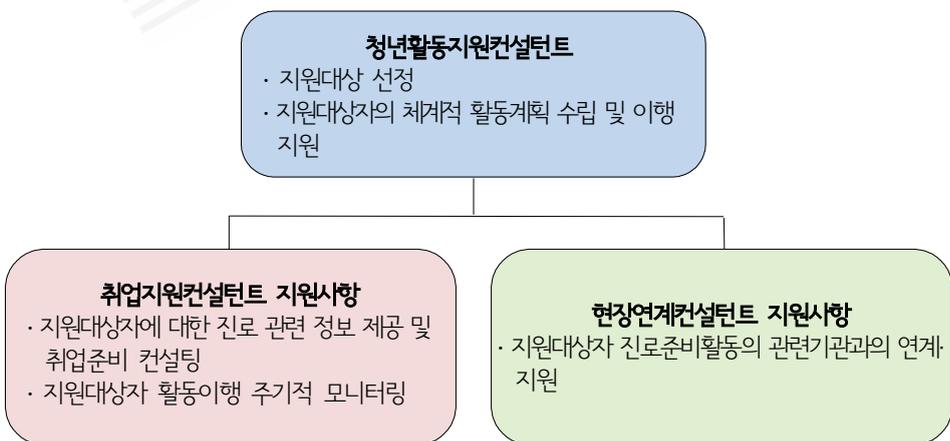
- 미션 로케일(Mission Locale, 본 사업의 운영주체)에 소속되어 있는 컨설턴트는 2인 1조가 되어 지원대상자 개인별 맞춤형 취업준비활동을 지도
- 컨설턴트는 지원대상자와 개별 면담을 통해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지원대상자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며,
- 컨설턴트는 지원대상자의 취업준비활동 내역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주기별로 지원대상자의 발달과 전망 상태에 대해 평가

- 이와 같은 ‘청년컨설턴트제도’에 기초해 서울시와 관리기관은 지원대상자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함
 - 본 사업에서 목표에 의한 관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의 이행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의 업무가 중요하며,
 - 지원대상자의 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청년컨설턴트가 활동의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까지 연계하여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 청년컨설턴트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포함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 지원대상자 선정(3천 명)을 위한 심사(면접심사 등)/대상자 선정위원회 참여
- 지원대상자의 활동계획서 작성 지원과 함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진로 관련 정보 제공과 취업준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
- 지원대상자의 활동이행에 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실시함
- 진로준비활동에 관련된 기관(운영기관)이나 전문가활동가 연계지원

2) 청년컨설턴트의 구성 및 운영

-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는 사업의 제도적 틀을 고려해볼 때 ‘취업지원컨설턴트’와 ‘현장연계컨설턴트’로 이원화하여 구성·운영함
- ‘취업지원컨설턴트’는 관리기관 소속으로 하고, 적어도 30인(지원대상자 100인당 1인) 이상의 규모로 운용함
 - 진로상담이나 취업준비 지원에 전문성을 지닌 경력자로서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또는 퇴직 전문가를 활용함(시간선택제 또는 전일제 계약직으로 채용)
- ‘현장연계컨설턴트’는 운영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을 지정·임명함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은 현장기반 활동가 중심으로 컨설턴트를 신규로 확보함



[그림 5-4]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의 구성과 역할

- 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사업이 시행되는 일정기간(7~8개월) 동안 청년컨설턴트를 계약제 형태로 운용함
 - ‘청년컨설턴트 후보자 인력풀’을 형성하여 상시적 채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채용함
 -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온라인 인력풀 사이트에 프로필, 활동계획 등을 등록
 - ‘현장연계컨설턴트’는 가급적 운영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활용하고, 컨설턴트 활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활동수당을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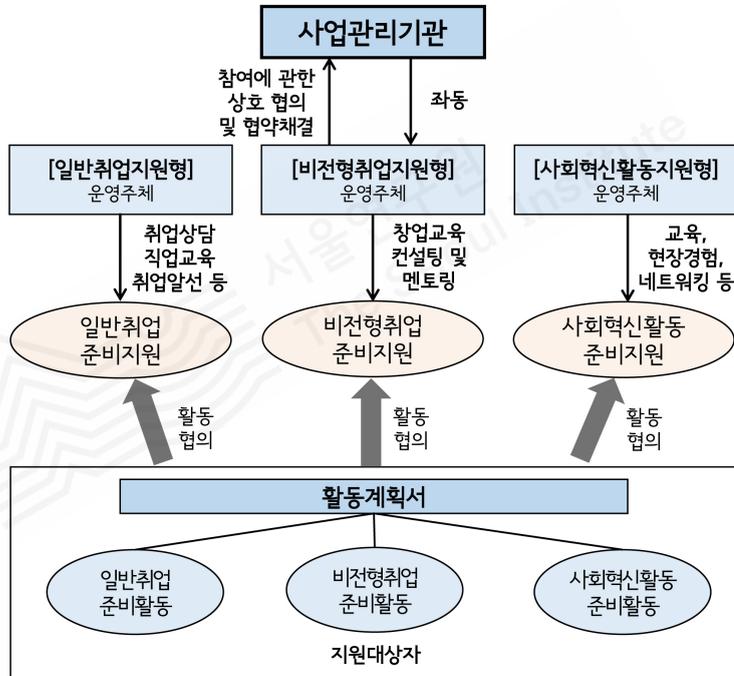
<청년컨설턴트 자격 예시: 대학취업지원관 사례 참조>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상담사」 1급 내지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업체 인사·노무 업무를 3년 이상 근무한 자
 - 경영자단체, 노동조합 단체, 고용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업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 업무, 직업정보제공 종사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 관리기관은 ‘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과 연계해 청년활동지원컨설턴트를 심사위원(면접심사)으로 운용함
 - ‘취업지원컨설턴트’는 지원대상자와 협의해 최소한 매월 1회 정도의 상담 일정을 이행하며, 그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 매해 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급적 청년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청년컨설턴트의 교육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함
 - 취업지원컨설턴트는 사업 프로세스, 컨설팅 기법, 노동시장의 이해 등의 관련 연수교육에 참여(의무강좌 및 선택강좌로 분류)

4_사업 관리·운영을 위한 추가적 방안

1) 운영주체(기관)와의 연계 협력

- 청년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모색함
 - 이를 위해 현장에 기반을 둔 다양한 운영주체들이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현장연계형 지원체계’를 구축함([그림 5-5] 참조)
 - 이러한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수립한 활동계획에 상응해 현장의 다양한 운영주체들과 지원대상자를 매칭함



[그림 5-5]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연계형 지원체계

○ 운영주체(기관)의 구성과 역할

-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닌 서울시 산하기관, 중간지원조직,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하는 운영주체(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 운영주체는 활동계획서에 기초해 지원대상자의 진로목표나 활동유형 등을 고려해 맞춤형의 지원을 제공함
- 일반취업지원형: 취업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여성일자리센터 등 취업 관련 공공지원기관, 그리고 민간 영역의 취업지원 컨설팅 회사 등을 고려
- 비전형취업지원형: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보육센터 등 취업 관련 공공지원기관, 그리고 민간영역의 창업 엑셀러레이터 등을 고려
- 사회혁신활동지원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NPO지원센터, 민간 NPO나 지역사회 주민조직 등을 고려

[표 5-7] 분야별 운영주체(기관) 예시

구분		주요 기관
일반취업 지원형	탐색	·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여성일자리센터 · 민간 취업컨설팅 회사(잡코리아, 사람인 등)
	설계	· 서울기술교육원, 서울학생교육원
	실행	· 청년허브, 하자센터 ·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비전형취업 지원형	탐색	· 서울창업스쿨
	설계	· 서울산업진흥원
	실행	· 창업보육센터, 서울사회투자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 민간분야의 창업 엑셀러레이터(디캠프 등)
사회혁신활동 지원형	탐색	·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계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실행	· 시민단체, 민간연구소,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자치구 마을넷

[표 5-8] 분야별 운영주체(기관) 지원서비스

구분		주요 지원서비스
일반취업 준비형	탐색	- 컨설팅을 통한 인·적성 파악 및 취업정보 제공, 취업희망 기관 견학 - 인·적성 검사, 심리검사 지원, 멘토 연결, 기관·기업 설명회 제공
	설계	- 목표 설정 및 활동계획서 작성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지원
	실행	- (외국어, 자격증취득, 직업 관련) 학원수강 지원, 공모전 준비, 그룹스터디 - 공익·봉사활동 연계지원, 인턴십 연계, 모의면접 지원, 목표이행 관리
비전취업 준비형	탐색	- (서울시지원) 창업자, 1인기업과의 네트워킹 지원 - 사업장 견학, 인턴십 연계, 상담 및 컨설팅 지원
	설계	- 목표 설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상담 및 컨설팅 지원
	실행	- 유사 창업자와 연계 형성, 직무훈련(학원수강) 지원 - 인턴십 연계, 공모전 준비 지원, 창업 아이템, 입지선정 지원 - 재능기부활동 지원, 목표이행 관리
사회혁신 활동형	탐색	- 상담 및 컨설팅 지원, 지역사회 내 멘토 연결 - 봉사활동 기관 연결, 시민단체 견학 및 인턴십 지원
	설계	- 목표 설정 및 활동계획서 작성 지원, 멘토 연결
	실행	- 사회활동 역량교육, 인턴십 연계 - 동아리 활동 지원, 적성에 따른 기관과의 연계 - 공익·봉사활동 지원, 목표이행 관리

○ 운영주체(기관)의 관리

- 서울시 및 관리기관은 분야별 운영주체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하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영역 운영주체들의 경우에 지원활동 수행능력, 유사 사업 추진 경험, 담당인력 유무 등 일정한 사전 필터링 과정을 거치도록 함
- 운영에 참여하는 주체(기관)들이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도록 함
- 운영기관과의 연계는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현장연계컨설턴트’가 이를 전담 지원하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함

2) 지원대상자별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사업의 투명한 관리와 실효성 제고라 할 수 있음
- 아울러 ‘상호의무부과 원칙’이라는 관점에서도 활동계획서가 충실히 이행되는지, 활동비(현금수당) 지출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활동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를 구축함
 - 모니터링: 전문컨설턴트는 월별 활동실적 점검, 상담, 애로사항 수렴 등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며, 사업관리기관은 지도·감독 역할을 수행함
 - 평가체계: 지원대상자는 월별 활동결과보고서를 온라인 플랫폼에 제출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가적 지원여부를 결정함

(1) 지원대상자별 주기적 모니터링 실행방안

- 취업지원컨설턴트 주도하에 월 1회 실시하며, 활동계획의 이행여부, 예산사용의 적정성, 애로 및 개선 요청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모니터링은 활동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보다는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자가 자기 주도로 수립한 활동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되,
 -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선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협의·상담을 진행하도록 함
 - 아울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활동비(현금수당)의 부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도록 함
- 사업관리기관(취업지원컨설턴트)은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활동계획, 상담 결과, 애로사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관리기록카드’를 운영함
 - 지원대상자는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하며, 이를 중심으로 취업지원 컨설턴트는 예산사용의 적정성, 활동사항 이행여부, 애로사항 등으로 이루어진 관리카드를 작성함
 - 사업관리기관은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상담·모니터링 등에 관한

운영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컨설턴트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도·감독함

- 취업지원컨설턴트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의 현장연계 수요가 있을 경우 현장연계컨설턴트와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지원대상자 평가 및 활용 방안

- 평가는 매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활동보고서’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한편, 종료 시점에는 ‘최종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한 최종 평가를 실시함([그림 5-6] 참조)
 - 지원대상자 평가는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관리기관, 취업지원 컨설턴트, 현장연계컨설턴트로 구성된 평가팀(3인 이내)에서 수행
- 평가는 ‘활동계획 이행평가’와 ‘지출적정성 평가’로 이원화하여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함
 - 활동계획 이행평가: ‘당초 계획 대비 이행 정도’, ‘상담 결과 반영 여부’, ‘기타 지원서비스 이용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함
 - 지출적정성 평가: 당초 설정된 계획 대비 지출의 정도는 확인하되, ‘사용처의 적정성’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만 평가하도록 함
 - 세부 평가지표와 평가점수에 대해서는 [표 5-7] 지원대상자 평가체계를 참조
-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 활동계획 이행평가: 평가결과가 다소 저조한 지원대상자(70점 미만)에게 개선을 위한 권고나 컨설팅을 실시함
 - 지출적정성 평가: 평가점수가 낮은 지원대상자(30점 미만)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활동지원금을 수수사용한 경우에 한해, ‘환수 및 지원중단’ 조치를 검토함
 - ‘클린카드제’를 통해 사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출을 차단하고, 부적절한 지출영역에서의 지출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

-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사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차원에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이 종료된 이후 3개월간 지원을 연장하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함
 -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상자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기보다는 당사자에 대한 권고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 지원대상자 중 평가결과가 매우 양호한 10% 정도에 대해서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활성화와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5-6]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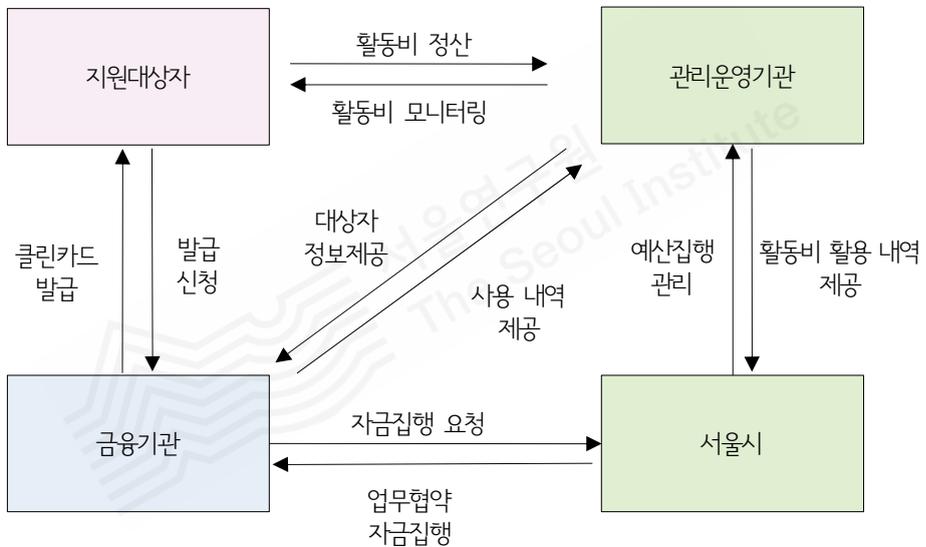
[표 5-9] 지원대상자 평가체계

구분	지표	배점기준		점수
활동계획 이행 평가	계획 대비 이행도	구분	배점	50
		80~100% 달성	50	
		60~80% 달성	30	
	60% 미만	10		
상담결과 반영도	구분	배점	30	
	상	30		
	중	20		
기타 지원서비스 이용도	구분	배점	20	
	5회 이상	20		
	1~4회	10		
		0회	5	
합계				100
지출 적정성 평가	계획 대비 지출정도	구분	배점	30
		80~100% 달성	30	
		60~80% 달성	20	
	60% 미만	10		
사용처의 적정성	구분	배점	70	
	상	70		
	중	40		
		하	10	
합계				100

3) 활동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클린카드제 운용

(1) 클린카드제 개요

-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활동비의 사용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공공예산을 활용해 특정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성격상, 지원금 사용에서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고 투명한 관리가 요구됨
- 이를 위해 가급적 유흥 및 사행성 업종이나 특정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클린카드제’ 운용을 적극 검토함



[그림 5-7] 클린카드제 운영체계

(2) 클린카드제 운용방안

- 서울시와 금융기관이 카드발급 관련 협약을 맺어 개인적으로 발급받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업관리기관에서 지원함
 - 서울시는 계좌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우리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사용처가 제한된 카드를 발급하도록 함

- 관리운영기관은 금융기관에 카드발급을 위해 필요한 지원대상자 정보를 제공함
-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카드를 발급함
- 활동비는 기본적으로 취업준비활동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식비, 교통비, 의료비)과 직접비용(교재비, 시험등록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 세부 지출범위에 대해서는 4장 3절 2항 [표 4-10] 참조
-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유흥업종(소) 등 제한업종이나 특정물품에 대해 사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일부 제한함
 - 제한업종 설정: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등),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진로준비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물품 구매 제한: 금·은·보석 등 귀금속류, 고급양주 등 고가의 주류, 골프채·골프화·골프가방 등 골프용품 등
- 보다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사용이 제한되는 사용처 예시>

- 주요 사용 제한업종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등),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특정물품 구매 제한
 - 금·은·보석 등 귀금속류, 고급양주 등 고가의 주류, 골프채·골프화·골프가방 등 골프용품 등

참고문헌

- 남재량, 2006,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통권 제16호.
- 남재량, 2011, “최근 청년 니트의 현황과 추이(NEET)”, 『노동리뷰』, 통권 제72호.
- 이로미·박가열·정연순, 2008, “청년 니트 유형과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구직 희망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제23권 제1호.
- 정연순·박가열·오민홍·이로미·장지은·김은영, 『한국형 니트취업지원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채창균·오호영·정재호·남기곤·김기현, 2008, 『유휴청년연구』, 한국직원능력개발원.
- 허선·이수진, 2012, 『아동빈곤가구의 복지사각지대 규모추정 및 현황분석을 통한 대안모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정세균 의원실 보도자료, 2015. 10. 18.
- <http://kosis.kr/>(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http://koweps.re.kr/>(한국복지패널)
- <http://moel.go.kr/>(고용노동부)
- <http://stats.oecd.org/>(OECD)

부록

1_청년활동 실태 및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수요 조사 온라인 설문지

청년활동 실태 및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수요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전액 출연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서울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청년층의 취업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년 대상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청년층의 현실과 수요를 고려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은 다양한 계층의 청년을 대상으로 활동 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서울시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작성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보호 등)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통계목적 외 위해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평안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5년 12월

- 주관기관: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센터
- 수행기관: NICE R&C 김유미 차장(02-2122-8765)

일반 사항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만 18~29세 ② 만 30~39세 ③ 만 40~49세
 ④ 만 50~59세 ⑤ 만 60세 이상

●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고교 중퇴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중 ④ 전문대 졸업
 ⑤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졸업

문1. 귀하의 가까운 주변(가족, 친인척, 동네 이웃 등)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문2. 귀하는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매우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3.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어떠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취업 및 구직 ② 주거
 ③ 건강(정신적 건강 포함) ④ 연예 및 결혼
 ⑤ 인간관계 ⑥ 도전정신의 부족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4. 귀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다
 ② 과도한 스펙 경쟁을 해야 한다
 ③ 취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조달하기가 어렵다
 ④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한다
 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르고 있다
 ⑥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5. 귀하가 보시기에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번으로 이동			5-1번으로 이동	

문5-1. 별도의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면,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저소득층 미취업자 ② 졸업유예자
- ③ 장기(1년 이상) 실업자
- ④ 저학력(고졸 이하) 미취업자 ⑤ 은둔형 미취업자(히키코모리)
- ⑥ 구직단념자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6. 현재 청년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학원등록, 공모전 준비 등의 구직활동 지원
- ② 진로상담,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
- ③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기회 제공
- ④ 생계비 지원(식비, 교통비, 월세 등)
- ⑤ 저가의 기숙사/임대주택 공급
- 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⑦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형성 촉진
- ⑧ 청년들의 봉사·공익활동 촉진
- ⑨ 청년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7. 귀하가 보시기에 현재 정부정책이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별로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7-1.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들이 청년의 다양한 일자리 요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보통이다	다소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7-2. 주위의 청년들을 볼 때, 정부의 청년 취업지원정책이 청년들의 취업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①	②	③	④	⑤

※ 현재 정부는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의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개요(안)

- 사업목적: 저소득층, 청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에게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1단계: 진로 및 활동계획 수립
 - 2단계: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과 연계)
 - 3단계: 취업알선대상자 지원내용
 - 직업훈련기관에 등록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교육·훈련비용 전부/일부 지원
 - 직업훈련 참여 시 최장 6개월까지 월 최대 약 42만 원까지 훈련참여수당 지급

문8. 귀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9번으로 이동)

문8-1. 귀하가 보시기에 이 사업이 청년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준다고(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다소 도움이 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⑤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9.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비용을 지원해주는 교육·훈련의 범위가 다양해져야 한다
- ② 비용을 지원해주는 교육·훈련기관의 선택 범위가 다양해져야 한다
- ③ 훈련참여수당의 지급액이 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
- ④ 커리큘럼 내용, 강사의 역량 등 교육·훈련의 질이 제고되어야 한다
- ⑤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의 질이 제고되어야 한다
- ⑥ 사업운영기관의 진로상담이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⑦ 사업운영기관의 취업알선이 참여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⑧ 사업 참여자가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으로 선별되어야 한다
-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서울시에서는 현재 실업자, 니트, 졸업유예자, 단시간 근로자 등 ‘사회 밖 청년’의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년활동지원사업(가칭 청년활동수당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개요

- 사업대상: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15~29세의 사회 밖 청년
- 사업내용
 - 신청자가 제출한 활동계획서 심사를 통해 3,000명의 참여자 선정
 - 선정된 자에게 활동지원금으로 최장 6개월까지 월 50만 원 지급

문10. 귀하는 상기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르고 있다 ⇒ (11번으로 이동)
- ② 들어는 봤지만 어떠한 제도인지는 모르고 있다 ⇒ (11번으로 이동)
- ③ 사업의 취지 정도만 알고 있다
- ④ 지원대상, 지원기간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다.

문10-1. 이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신다면, 어떠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한 사업이다
- ② 기존 정부사업과 다른 서울시만의 차별적인 정책이다
- ③ 성남시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청년배당제와 유사한 사업이다
- ④ 청년의 구직촉진을 위한 수당제 성격의 사업이다
- ⑤ 청년의 생계보장을 위한 일종의 복지사업이다
- ⑥ 정부의 청년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다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1. 귀하는 청년들의 여건을 고려해볼 때, 현재와 같은 사업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 ②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사업의 관리운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 ③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며, 사업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 ④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사업추진을 재고(취소)해야 한다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1-1.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어떠한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청년의 부족한 생활비 충당
- ② 청년의 취업 및 창업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 ③ 다양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 지원
- ④ 저소득 청년 생활 지원
- ⑤ 은둔형 미취업자(히키코모리) 지원
- ⑥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 지원
- ⑦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활동 지원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1-2.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청년에게 도움을 주려면, 제도설계 시 어떤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정부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 ②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정
- ③ 지원하는 청년활동의 다양성 보장
- ④ 적정수준의 활동지급액 책정
- ⑤ 적정 기간의 사업 참여기간 설정
- ⑥ 청년활동에 대한 사업운영 기관의 부당한 관리 경계
- ⑦ 사업운영 기관의 전문성 확보
- ⑧ 사업운영 기관의 실적 위주의 운영 경계
- ⑨ 부적격자의 사업 참여 배제 ⑩ 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
-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1-3.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①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에게 모두 지원
- ②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 중 사업 참여 신청자의 일부를 선별하여 지원
- ③ 청년 계층에 모두 지원
- ④ 청년 계층 중 사업 참여 신청자의 일부를 선별하여 지원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2. 청년활동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면, 청년의 어떤 활동을 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자격증취득을 위한 시험등록비 지원
- ② 자격증취득, 어학능력 향상 등을 위한 학원 수강
- ③ 교재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
- ④ 급여를 받지 않는 인턴십 활동
- ⑤ 봉사 및 공익활동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 ⑥ 취업 준비를 위한 스터디 운영 지원
- ⑦ 취업·창업에 위한 공모전 준비 지원
- ⑧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 ⑨ 창작활동(저술, 작품 제작 등)
- ⑩ 여가활동비 지원
- ⑪ 다양한 모임에 필요한 공간 확보 지원

문3-1. 귀하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학자금 대출
- ② 생활비 대출
- ③ 주택자금(전세, 월세 등) 대출
- ④ 부채상환
- ⑤ 창업자금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4. 귀하가 보시기에 현재 취업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스펙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외국어 능력(제2외국어 포함)
- ② 영어회화 능력
- ③ 컴퓨터 관련 자격증
- ④ 업무(직무) 관련 자격증
- ⑤ 어학연수 등 해외경험
- ⑥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 ⑦ 공모전 등 수상경력
- ⑧ 석·박사학위
- ⑨ 봉사활동 경험
- ⑩ 동아리활동
-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II . 구직활동

문5.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취업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1주일 이상 일했던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 ① 있다
- ② 없다 ⇒ (7번으로 이동)

문5-1. 취업 기간 중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정규직
- ② 기간제 비정규직(단시간 근로 포함)
- ③ 일용직(초단기 근로)
- ④ 고용주
- ⑤ 자영업자
- ⑥ 가족의 일을 도움

문6. 귀하께서 이전에 취업했던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 ② 폐업이나 해고, 사업(일) 종료로 인해서
- ③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④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
- ⑤ 직장이나 직무가 전망이 없어서
- ⑥ 학업을 계속하게 되어서
- ⑦ 육아 및 가사의 이유로
- ⑧ 건강상의 이유로

- ⑨ 창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⑩ 동료 또는 상관과의 불화 때문에
 ⑪ 현재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⑫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7. 귀하가 보시기에 현재 청년들이 취업 시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 ① 월급 등 희망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② 전공이나 기술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③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아서
 ④ 성차별 또는 신체적 차별 때문에
 ⑤ 근무시간이나 근로환경이 맞지 않아서
 ⑥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⑦ 경기침체로 채용기회 자체가 줄어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7-1. 귀하께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 ① 학원 등록, 시험응시 등의 취업준비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서
 ② 아르바이트와 취업준비 병행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③ 나의 적성을 잘 알지 못해서
 ④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⑤ 경력을 쌓기 어려워서
 ⑥ 사회봉사 또는 해외연수 기회가 부족해서
 ⑦ 직무 관련 자격증이 부족해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8.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진로계획에서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 ⇒ (8-1번으로 이동) ② 창업 ⇒ (9번으로 이동)
 ③ 프리랜서* ⇒ (9번으로 이동) ④ 사회활동가** ⇒ (9번으로 이동)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음

** 특정기관에 소속되거나 독립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종사하는 사람

문8-1. 귀하께서 취업을 고려한다면, 주로 어떤 곳으로의 취업을 생각하십니까?

- ① 대기업
- ② 공공기관(정부 행정기관)
- ③ 공기업(공사·공단, 재단 등)
- ④ 외국계 기업
- ⑤ 중소기업
- ⑥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⑦ 시민사회단체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9. 귀하께서는 취업을 위해 주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하고 계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기술습득을 위한 학원수강
- ② 어학능력 향상, 자격증취득을 위한 학원수강
- ③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한 인턴십
- ④ 취업준비를 위한 그룹스터디
- ⑤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봉사활동
- ⑥ 공모전 준비
- ⑦ 시민운동, 정당 활동, 지역공동체 활동 등의 사회활동
- ⑧ 취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9-1. 학원 수강은 주로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 ① 외국어 학원(토익, 토플, 회화, 제2외국어 등)
- ② 한자능력검정 학원
- ③ 컴퓨터 관련 학원
- ④ 업무(직무) 관련 학원
- ⑤ 인·적성시험 준비 학원
- ⑥ 면접 준비 학원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9-2. 그룹 스터디의 경우, 주로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 ① 취업 스펙 충족을 위한 외국어 스터디
- ② 면접 준비를 위한 스터디
- ③ 창업 준비를 위한 스터디
- ④ 사회활동 진출(참여)을 위한 스터디
- ⑤ 직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
- ⑥ 공무원(공기업) 시험 준비를 위한 스터디

- ⑦ 유사 분야의 사람들과 인맥형성을 위한 정보교류 스터디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9-3. 봉사활동의 경우, 주로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 ① 취업을 위해 필요한 스펙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봉사
- ② 사회 참여 및 기여를 위한 자원봉사
- ③ 향후 사회활동가로서 경험을 얻기 위한 자원봉사
- ④ 재능기부를 위한 자원봉사
- ⑤ 사회사업(복지) 관련 업종에 취업 또는 창업하기 위한 자원봉사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9-4. 사회활동의 경우, 주로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 ① 취업 스펙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활동
- ② 시민활동가로 취업을 위한 인턴십 참여
- ③ 공공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
- ④ 마을 공동체사업의 운영주체로 활동
- ⑤ 공공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참여
- ⑥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등)에서 활동가로 활동
- ⑦ 사회단체에서 재능기부 활동 참여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0. 귀하께서는 창업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 ① 고려하고 있다
- ② 향후 여건이 된다면 창업할 생각이다
- ③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이 안 된다면 해볼 생각도 있다
- ④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문10-1. 창업을 생각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 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 ②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 ③ 나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고 싶어서
- ④ 나의 전문영역을 키우고 싶어서
- ⑤ 취업이 어려워

- ⑥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
- ⑦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0-2.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창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 및 기술훈련 참여
- ② 창업 아이템 발굴·선정
- ③ 창업 관련 정책에의 참여
- ④ 창업을 위한 점포(사무실) 입지 결정
- ⑤ 인맥 강화를 위한 창업 모임 참여
- ⑥ 투자처 탐색을 위한 사전 조사
- ⑦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1. 귀하께서는 프리랜서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 ① 고려하고 있다
- ② 향후 여건이 된다면 할 생각이다
- ③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이 안 된다면 해볼 생각도 있다
- ④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문11-1. 프리랜서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 ① 소득이 높을 것 같아서
- ② 조직생활에 엄매이지 않을 수 있어서
- ③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할 수 있어서
- ④ 취업이 어려워 대안으로 선택
- ⑤ 자녀양육, 가사활동과 병행할 수 있어서
- ⑥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서
- ⑦ 재능이나 기술을 잘 활용하고 싶어서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1-2. 프리랜서로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2가지 선택)**

- ① 관련 분야 교육프로그램 이수
- ②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 ③ 동일 분야 취업을 통한 경력 확보
- ④ 관련 프로젝트 참여
- ⑤ 인맥 강화를 위한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 참여
- ⑥ 관련 협회 회원으로 활동
- ⑥ 석사 또는 박사학위 준비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2. 귀하께서는 사회활동가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 ① 고려하고 있다
- ② 향후 여건이 된다면 할 생각이다
- ③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이 안 된다면 해볼 생각도 있다
- ④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문12-1. 사회활동가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 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서
- ② 시간이나 업무 방식이 자유로워서
- ③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어서
- ④ 취업이 어려워 대안으로 선택
- ⑤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2-2. 사회활동가로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참여
- ② 시민단체에서의 인턴십을 통한 경력 확보
- ③ 인맥 강화를 위한 동아리 및 동호회 참여
- ④ 시민사회 관련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
- ⑤ 시민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
- ⑥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등) 활동에 참여

- ⑦ 사회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저술활동 수행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Ⅲ.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현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청년일자리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내용
취업성공패키지	미취업 청년에게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의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중소기업 인턴 고용 및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의 일부 지원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습득을 위한 훈련기회 제공
K-move 스쿨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
청년취업아카데미	대학졸업예정자, 졸업생, 일반고 출신 학생들에게 산업 연관 교육 제공
일·학습병행제	취업을 원하는 청년근로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제도
서울시 청년뉴딜일자리 사업	청년들에게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진로 개발 및 취업연계 도모
월드프렌즈코리아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지 봉사활동 수행
청년 강소기업 체험	(구)“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3개월 이내 직장체험 지원
스펙초월 멘토 스쿨	청년들에게 멘토들이 현장 맞춤형으로 멘토링을 제공

문13. 귀하가 보시기에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들이 청년의 다양한 일자리 요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보통이다	다소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4.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방정부)의 정책(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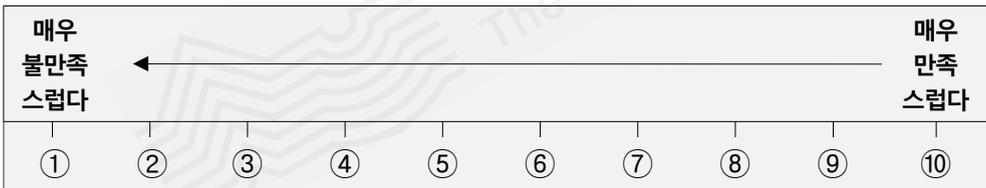
- ① 취업지원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 (14-1번으로 이동)
- ② 창업지원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 (14-1번으로 이동)
- ③ 취업지원과 창업지원정책에 모두 참여한 경험이 있다 ⇒ (14-1번으로 이동)
- ④ 없다 ⇒ (15번으로 이동)

문16. 정부의 청년 창업지원과 관련한 다음의 주요 사업 중 귀하께서는 어떠한 사업에 참여하셨나요? 참여하신 사업은 모두 '참여여부'란에 “○”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내용	참여여부
청년창업사관학교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의 전 단계를 일괄지원하여 대학을 권역별 청년창업 전진기지로 육성	
학교기업지원사업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기술개발 등에 기반한 창업 전초기지 역할 수행	
대한민국 창업리그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국내 창업분위기 제고	
챌린지100프로젝트 (서울시)	청년창업자에게 성장단계별 맞춤지원과 민간협업형 창업 플랫폼 구축	

☞ 하나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 17번으로 이동

문16-1. 귀하가 참여해 본 창업지원사업들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문16-2.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어떠한 점이 불만이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함 ② 창업지원금의 용처가 제한적임
- ③ 창업지원금 규모가 충분치 못함 ④ 지원기관의 소홀한 관리
- ⑤ 지원기관의 까다로운 통제와 관리체계
- ⑥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기관의 편향적 관리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Ⅳ.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인식 및 관리·운영방안 조사

※ 서울시에서는 현재 실업자, 니트, 졸업유예자, 단시간 근로자 등 '미취업 청년'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년활동지원사업(가칭 청년활동수당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개요

- 사업대상: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15~29세의 미취업 청년
- 사업내용
 - 신청자가 제출한 활동계획서 심사를 통해 3,000명의 참여자 선정
 - 선정된 자에게 활동지원금으로 최장 6개월까지 월 50만 원 지급

문19. 귀하는 상기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르고 있다 ⇒ (20번으로 이동)
- ② 들어는 봤지만 어떠한 제도인지는 모르고 있다 ⇒ (19-1번으로 이동)
- ③ 사업의 취지 정도만 알고 있다 ⇒ (19-1번으로 이동)
- ④ 지원대상, 지원기간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다 ⇒ (19-1번으로 이동)

문19-1. 이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신다면, 어떠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한 사업이다
- ② 기존 정부사업과 다른 서울시만의 차별적인 정책이다
- ③ 성남시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청년배당제와 유사한 사업이다
- ④ 청년의 구직촉진을 위한 수당제 성격의 사업이다
- ⑤ 청년의 생계보장을 위한 일종의 복지사업이다
- ⑥ 정부의 청년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다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0. 귀하는 청년들의 여건을 고려해볼 때, 현재와 같은 사업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 ②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사업의 관리운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 ③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며, 사업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 ④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사업추진을 재고(취소)해야 한다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0-1.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어떠한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청년의 부족한 생활비 총당
- ② 청년의 취업 및 창업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 ③ 다양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 지원
- ④ 저소득 청년의 생활고 지원
- ⑤ 은둔형 미취업자(히키코모리) 지원
- ⑥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⑦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0-2.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청년에게 도움을 주려면, 제도설계 시 어떤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정부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 ②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정
- ③ 지원하는 청년활동의 다양성 보장
- ④ 적정수준의 활동지급액 책정
- ⑤ 적정 기간의 사업 참여기간 설정
- ⑥ 청년활동에 대한 사업운영 기관의 부당한 관리 경계
- ⑦ 사업운영 기관의 전문성 확보
- ⑧ 사업운영 기관의 실적 위주의 운영 경계
- ⑨ 부적격자의 사업 참여 배제
- ⑩ 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
-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0-3.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①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에게 모두 지원
- ②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 중 사업 참여 신청자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지원
- ③ 청년 계층에 모두 지원
- ④ 청년 계층 중 사업 참여 신청자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지원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1. 청년활동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면, 청년의 어떤 활동을 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등록비 지원
- ② 자격증 취득, 어학능력 향상 등을 위한 학원수강
- ③ 교재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
- ④ 급여를 받지 않는 인턴십 활동
- ⑤ 봉사 및 공익활동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 ⑥ 취업 준비를 위한 스터디 운영 지원
- ⑦ 취업·창업을 위한 공모전 준비 지원
- ⑧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 ⑨ 창작활동(저술, 작품 제작 등)
- ⑩ 여가활동비 지원
- ⑪ 다양한 모임에 필요한 공간 확보 지원
- ⑫ 지원대상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⑬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2.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우선적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저소득층 미취업자
- ② 졸업유예자
- ③ 장기(1년 이상) 실업자
- ④ 저학력(고졸 이하) 미취업자
- ⑤ 은둔형 미취업자(히키코모리)
- ⑥ 구직단념자
- ⑦ 사회·공익활동의 적극적 참여자
- ⑧ 예비창업자
- ⑨ 협동조합 설립준비자
- ⑩ 특별히 우선순위를 둘 필요는 없음
-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2-1. 경제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면, 어떤 대상이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②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자(차상위 계층)
- ③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자
- ④ 부모로부터 독립한 자로서 스스로 생계를 영위하는 자
- ⑤ 채무압박이 심한 자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며, 201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562,337원, 4인 가구는 4,222,533원임

문23. 1개월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 액수의 수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통비 및 식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
- ② 교통비 및 식비, 학원비 및 교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
- ③ 교통비 및 식비, 학원비 및 교재비, 주거비 정도
- ④ 교통비 및 식비, 학원비 및 교재비, 주거비, 이외 취업준비에 필요한 제반활동 비용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4. 활동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3개월 정도
- ② 6개월 정도
- ③ 9개월 정도
- ④ 12개월 정도

문25. 사업 참여를 신청한 청년들 중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청년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출한 활동계획서에 의거한 선정
- ② 개인의 경제적 상태(수준)에 의거한 선정
- ③ 개인의 경제적 상태와 사회적 상태에 의거한 선정
- ④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을 기준으로 1차 선정 후 활동계획서에 의거한 최종 선정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5-1.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에 의거한 참여자 선정 시, 경제적·사회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소득수준
- ② 자산보유 여부
- ③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
- ④ 부양가족 수
- ⑤ 학력수준(저학력 우선)
- ⑥ 총 미취업 기간(실업기간)
- ⑦ 연령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6.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청년에게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관리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산관리를 통한 활동 이행여부의 주기적 점검
- ②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기존 정책 및 기관과의 연계·협력
- ③ 특정기관으로의 출석에 의한 주기적 점검
- ④ 활동진행(결과)보고서 제출에 의한 주기적 점검
- ⑤ 이행여부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⑥ 활동계획서에 근거한 목표의 달성여부로 관리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7. 활동지원금은 어떠한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액 현금
- ② 전액 바우처(이용권)
- ③ 전액 지역화폐
- ④ 일부 현금+일부 바우처
- ⑤ 일부 현금+일부 지역화폐
- ⑥ 일부 바우처+일부 지역화폐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8.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 ①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
- ②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
- ③ 참여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④ 성공적인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 ⑤ 적절한 활동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의 설정
- ⑥ 지원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Abstract

A Study on the Support for Promoting the Youth Activities in Seoul

Byeongsun Jeong · Taeuk Kim · Bongjo Yi

Recently, Seoul has announced for the '2020 Seoul Youth Guarantee Plan' to solve young people's difficulties. One of the main contents of this plan is 'Program for Supporting the Youth Activities', which includes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3,000 young citizens of Seoul for activities, 3 millions won for 6 months, so called 'Seoul Youth Guarantee'.

This study makes action plan to implement this program. Firstly, this program should aim to participate in various social activities, especially economic activity. According to this dire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ogram need to be support economically, socially vulnerable youth preferentiall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esents a detailed criteria.

Secondly, the range of activities that the youth perform is also a key factor to implement program. This study suggested the range of activities encompassing the direct and indirect activities necessary to prepare the employment of the candidates. The latter should include costs of food,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and so on.

Finally, the program should provide monetary and non-monetary suppor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o this end, this study suggested the 'Youth Consultant Support System', that is support system for establish and perform of 'Activity Plan For Preparing Employment' and connection with field agencies.

Contents

01 Introduction

- 1_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2_Contents and Methods of the Study

02 Current Conditions and Cases of Policy on the Youth

- 1_Current Conditions on the Youth
- 2_Current Conditions on Policies for the Youth
- 3_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y on Support for Social Activities

03 Youth Activity Conditions and Demand Survey on Policy for the Youth

- 1_FGI to Determine Conditions on the Youth Activities
- 2_Result of Survey on Youth Activity Conditions and Demand
- 3_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

04 Institutionalization Methods of Plan on Supporting the Youth Activities

- 1_Preliminary Discussion: Review Issues of the Program
- 2_Selection System of Applicants
- 3_Construct of Supported Activities and Youth Activity Supporting System

References

Appendices

서울연 2015-PR-46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모델 구축방안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6년 2월 25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142-2 93320 10,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